

2022

남북통합지수

IPUS

김병연 · 김병로 · 김학재 · 조용신
신인석 · 권지애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CONTENTS

1. 2021년 남북통합지수 총괄	11
--------------------	----

2. 영역별 요약	
가. 경제	14
나. 정치	16
다. 사회문화	18

3. 남북통합지수로 본 2021년 한반도: 평가와 전망	
가. 남북통합지수로 본 2021년 한반도 평가	21
나. 향후 전망	22

1장. 구조통합지수

1. 경제	
가. 지수구성	27
나. 제도통합지수	28
다. 관계통합지수	32
라. 종합	46
2. 정치	
가. 지수구성	54
나. 제도통합지수	55
다. 관계통합지수	61
라. 종합	85
3. 사회문화	
가. 지수구성	88
나. 제도통합지수	89
다. 관계통합지수	100
라. 종합	117

2장. 의식통합지수

1. 지수구성	125
2. 영역별 지수	
가. 경제	128
나. 정치	135
다. 사회문화	147
3. 종합	162

3장. 남북통합지수 : 2010~2021	169
------------------------	-----

표 목차

〈표 2-1〉 경제영역 변인들의 분류와 배점	27	〈표 2-31〉 남북한의 연도별 병력 수 및 병력감축 수준 부문 점수	73
〈표 2-2〉 경제 분야 법제도화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30	〈표 2-32〉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의 배점 (2010년 신설)	75
〈표 2-3〉 제도통합지수 종합	31	〈표 2-33〉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부문 점수	76
〈표 2-4〉 교역부문 상대점수	34	〈표 2-34〉 2021년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부문 내용	79
〈표 2-5〉 투자부문 상대점수(UN 명목소득 기준)	36	〈표 2-35〉 상호체제인정 정도(법 개정)	82
〈표 2-6〉 노동부문 상대점수	38	〈표 2-36〉 남북한의 상호체제인정 부문 점수	83
〈표 2-7〉 무역자유화 부문 상대점수	40	〈표 2-37〉 2020/2021년 정치영역 관계통합지수 변화부문 지수 비교	84
〈표 2-8〉 제도장치 확립부문 상대점수	42	〈표 2-38〉 정치영역 구조통합지수 종합	85
〈표 2-9〉 소득수준 수렴부문 상대점수(UN 명목소득 기준)	44	〈표 2-39〉 사회문화영역 변인들의 분류와 배점	88
〈표 2-10〉 2020/2021년 경제영역 구조통합지수 변화부문 지수 비교	46	〈표 2-40〉 사회문화영역 제도적 통합의 지표와 배점	90
〈표 2-11〉 경제영역 구조통합지수 종합(UN 명목소득 기준)	47	〈표 2-41〉 사회문화영역 남북한 제도 단일화 변인에 대한 점수	94
〈표 2-12〉 투자부문 상대점수 (구매력 평가 소득 기준)	49	〈표 2-42〉 사회문화영역 남북한 법제화 정도	96
〈표 2-13〉 소득수준 수렴부문 상대점수(구매력평가 소득 기준)	51	〈표 2-43〉 사회문화영역 남북한 법제화 전문가 설문조사 연도별 추이	96
〈표 2-14〉 경제영역 구조통합지수 종합(구매력평가 소득 기준)	52	〈표 2-44〉 북한의 사회문화 자유화 법제의 실효성	97
〈표 2-15〉 정치영역 변인들의 분류와 배점	54	〈표 2-45〉 남북한 사회문화 법제화 변인에 대한 점수	98
〈표 2-16〉 정치영역 제도적 통합의 지표와 배점	56	〈표 2-46〉 사회문화영역 제도통합지수 종합	99
〈표 2-17〉 북한 정치관련 법제화 정도	58	〈표 2-47〉 사회문화영역 관계적 통합 지표와 배점	100
〈표 2-18〉 북한 정치관련 법제의 실효성 정도	58	〈표 2-48〉 인적왕래 변인 상대점수	102
〈표 2-19〉 남북한 공동법제화 수준	59	〈표 2-49〉 공동행사 변인 상대점수	104
〈표 2-20〉 정치영역 제도통합지수 종합	60	〈표 2-50〉 사회문화 교류협력기금 변인 상대점수	106
〈표 2-21〉 실무정치회담 연도별 개최 횟수 및 점수	62	〈표 2-51〉 이산가족 상봉 변인 상대점수	108
〈표 2-22〉 고위급 정치회담 연도별 횟수 및 점수	63	〈표 2-52〉 인적 이동 자유화 변인 상대점수	110
〈표 2-23〉 군사분야 회담 연도별 개최 횟수 및 점수	65	〈표 2-53〉 언론·방송의 자유화 변인 지표와 배점	111
〈표 2-24〉 의회회담 연도별 개최 횟수 및 점수	66	〈표 2-54〉 언론·방송의 자유화 변인 점수	111
〈표 2-25〉 정당교류 정치단체 교류 관련 점수	67	〈표 2-55〉 주요 국제대회 공동개최·단일팀 구성 변인 상대점수	113
〈표 2-26〉 정치분야 공동행사	67	〈표 2-56〉 사회문화 교류협력 당국자 회담 상대점수	114
〈표 2-27〉 매개제도의 구성과 활동 부문 점수	69	〈표 2-57〉 사회문화 교류협력 정례화 및 공동협의기구 변인 종합점수	115
〈표 2-28〉 대화·회담의 정례화 수준 평가 방법 (2010년 수정)	71	〈표 2-58〉 사회문화영역 구조통합지수 종합	117
〈표 2-29〉 대화·회담의 정례화 부문 점수	71	〈표 2-59〉 사회문화영역 구조통합지수 연도별 추이	119
〈표 2-30〉 국제사회에서 외교군사적 협력 횟수 및 점수	72	〈표 2-60〉 2020/2021년 사회문화 구조통합지수 변화부문 지수 비교	120

표 목차

〈표 3-1〉 의식통합지수 변인과 배점	125
〈표 3-2〉 경제영역 의식통합 변인과 배점	128
〈표 3-3〉 통일이 남한과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정도에 대한 응답률과 상대점수	129
〈표 3-4〉 남한 주민의 남북 경제교류에 대한 평가	130
〈표 3-5〉 대북 지원의 선호 정도에 대한 응답률과 상대점수	131
〈표 3-6〉 경제분야 의식통합지수 종합	133
〈표 3-7〉 정치영역 의식통합 변인과 배점	135
〈표 3-8〉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률과 상대점수	136
〈표 3-9〉 남북 정치제도의 동질성에 대한 응답률과 상대점수	137
〈표 3-10〉 상대방의 무력도발 가능성 “없음”에 대한 응답률과 상대점수	139
〈표 3-11〉 상대방에 대한 긍정인식 응답률과 상대점수	140
〈표 3-12〉 상대방 인지도에 대한 응답률과 상대점수	142
〈표 3-13〉 정치분야 의식통합지수 종합	144
〈표 3-14〉 사회문화영역 의식통합 변인과 배점	148
〈표 3-15〉 상대방의 사회문화에 대한 인지 수준 응답률과 상대점수	149
〈표 3-16〉 상대방에 대한 수용의식 응답률과 상대점수	151
〈표 3-17〉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 해소 응답률과 상대점수	153
〈표 3-18〉 남북 사회문화양식의 동질성 응답률과 상대점수	154
〈표 3-19〉 통일 이후의 사회평등 기대수준 응답률과 상대점수	156
〈표 3-20〉 사회문화영역 의식통합지수 종합	159
〈표 3-21〉 남북의식통합지수 연도별 변화	164
〈표 4-1〉 2010~2021년 남북통합지수와 백분율	170
〈표 4-2〉 영역별 구조통합지수 시계열적 추이와 단계 변화	175

그림 목차

〈그림 1-1〉 영역별 남북통합지수 추이	11
〈그림 1-2〉 경제영역 구조통합지수 연도별 추이	14
〈그림 1-3〉 정치영역 구조통합지수 연도별 추이	16
〈그림 1-4〉 사회문화영역 의식통합지수 남북한 상대점수 연도별 추이	18
〈그림 1-5〉 사회문화영역 구조통합지수 연도별 추이	19
〈그림 2-1〉 개성공단 고용 북한노동자와 생산액 추이	38
〈그림 2-2〉 경제영역 구조통합지수 연도별 추이	48
〈그림 2-3〉 정치영역 구조통합지수 연도별 추이	87
〈그림 2-4〉 사회문화영역 구조통합지수 연도별 추이	121
〈그림 3-1〉 사회문화영역 의식통합지수 (2008~2021)	158
〈그림 3-2〉 의식통합지수 2010~2021년 변화 추이	165
〈그림 4-1〉 2010~2021년 남북통합지수 추이	173
〈그림 4-2〉 최근 3년간의 제도, 관계, 의식, 종합지수 비교	174
〈그림 4-3〉 영역별 구조통합지수 연도별 추이	176
〈그림 4-4〉 영역별 제도통합지수 연도별 추이	176
〈그림 4-5〉 영역별 관계통합지수 연도별 추이	177
〈그림 4-6〉 영역별 의식통합지수 연도별 추이	177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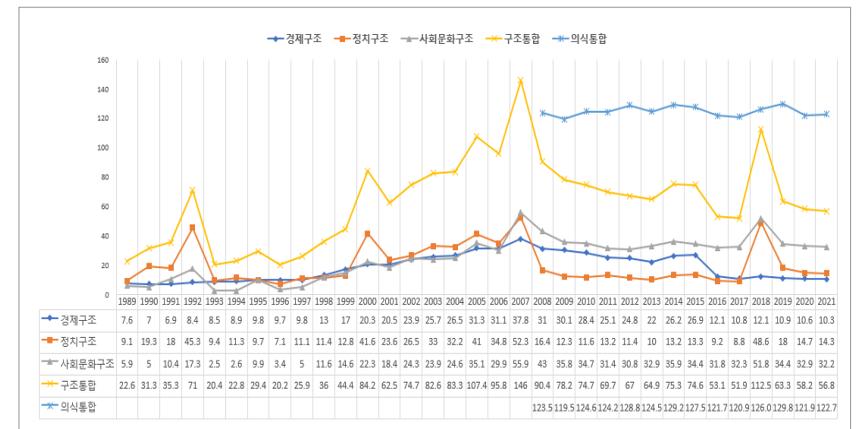
-
1. 2022년 남북통합지수 총괄
 2. 영역별 요약 및 전망
 3. 남북통합지수로 본 2021년
한반도: 평가와 전망
-

IPUS

1. 2022년 남북통합지수 총괄

- 『2022 남북통합지수』에서는 2021년 남북한 간 경제, 정치, 문화 영역의 통합 현황을 파악하여 구조통합지수와 의식통합지수를 산출하였다.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의 영향으로 남북 간 접촉과 교류가 어려워졌고 정치군사적 긴장도 역시 높아짐에 따라 올해의 통합지수 역시 하락하는 추세를 이어갔다.
 - 경제영역 구조 통합지수는 10.3점으로 지난해 대비 0.3점 떨어졌다. 이는 남북 교역액 및 대북투자 감소로 인한 교역, 투자 부문 지수의 하락 때문이다.
 - 정치영역 구조 통합지수는 14.3점으로 지난해 대비 0.4점 하락하였다. 이는 정치제도의 단일화 및 공동법제화 수준이 지난해보다 더 떨어진 양상을 보였기 때문이다.
 - 사회문화영역 구조 통합지수는 지난해 대비 0.7점 하락한 32.2점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정치영역과 마찬가지로 제도통합 수준의 하락이 영향을 미쳤다.

〈그림 1-1〉 영역별 남북통합지수 추이



- 영역별 통합단계는 남북관계 경색 및 교착으로 인한 대화, 협상이 중단된 상태가 지속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전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 경제영역 통합단계는 전년과 동일한 1단계(물적 자원이 교류되고 있으나, 그 비중은 낮은 단계, 혹은 물적 자원의 교류는 거의 없으나 낮은 수준의 제도적 균질성이 존재하는 단계)를 기록하였다.
 - 정치영역의 통합단계는 2018년 3단계로 상승하였으나, 2019년에 다시 1단계(대화·회담 등 교류 빈도 및 비중이 없거나 낮음)로 하락한 이후 계속 1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 사회문화영역 통합단계는 2단계(교류가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나, 접촉빈도가 높은 상태)로서 전년과 같은 수준이었다.
- 구조통합 분야의 남북통합지수는 56.8점으로 전년 58.2점 대비 다소 감소하였다. 지난 10년간 종합지수는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18년 크게 증가했으나, 2019년부터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다.
 - 남북관계 변화와 협상의 전개에 따라 증감 폭이 큰 구조통합지수의 변화가 종합지수 하락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 남북 의식통합지수는 경제영역에서는 전년과 마찬가지로 비율이 하락하였으나 정치영역은 동일한 수치를 보였고, 사회문화 영역에서는 소폭 상승하였다. 전체 의식통합지수는 전년 대비 0.8점 상승하였다. 2019년 이후 경제와 정치영역에서는 지속적으로 하락 또는 현상을 유지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나, 사회문화영역은 2010년부터 현재까지 소폭 등락하는 양상을 반복하고 있다.
 - 경제부문에서는 남한 주민의 경우 대북 지원에 대한 선호도는 전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통일이 남한 혹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정도, 인도적 지원과 남북한 경제협력의 통일 기여도 등 나머지 항목은 모두 소폭 하락하였다. 북한주민의 경우 모두 전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이는 코로나 사태 이후 남한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급감하며 북한이탈주민 조사가 어려워졌고, 이에 따라 2021년의 북한주민 의식조사 결과는 2020년과 동일한 자료를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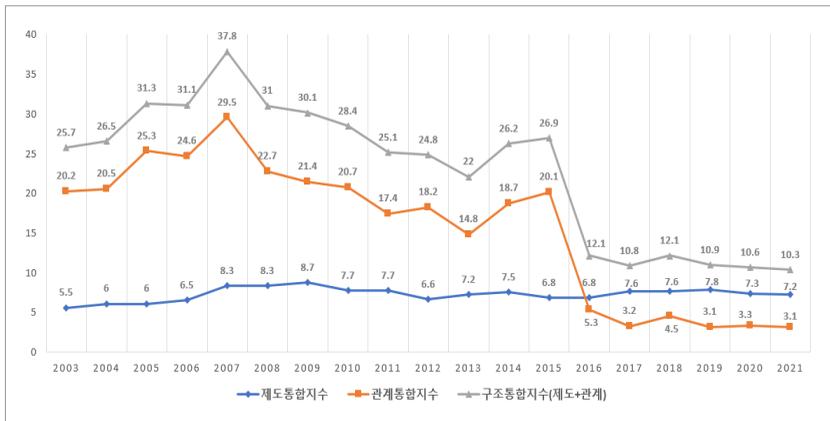
- 정치영역 또한 북한주민의 경우 전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한 가운데 남한주민이 인식하는 상대방에 대한 긍정인식, 상대방에 대한 인지도 문항은 전년과 동일한 수치를 나타냈고, 상대방의 무력도발 가능성 없음에 대한 내용은 전년대비 소폭 상승하였다. 반면 통일의 필요성은 큰 폭으로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다.
- 사회문화영역 의식통합지수는 북한주민은 전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남한주민의 경우 통일 이후 사회평등 기대수준의 하락을 제외하고 모든 항목에서 소폭 상승하였다. 이는 남북한 주민 간 의식격차와 이질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라고 하겠다.
- 구조통합과 의식통합을 합한 종합 남북통합지수는 179.5점으로 전년(180.1점) 대비 0.6점 감소하였다. 2018년도에 크게 증가한 이후 2019년부터 점점 떨어지는 등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인다.
 - 지난 10여년 간 종합지수는 전반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였으며, 2018년에 크게 증가하였다가 2019년에 감소한 이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남북관계에 진전이 없는 관계로 구조통합지수가 낮아진 상황에서 의식통합지수도 다소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종합지수에 기초한 남북한 통합률은 2021년 18.0%로, 2018년의 23.9%와 비교하면 5.9% 하락하였는데, 이는 남북 간 교류 협력이 중단되며 구조 및 의식 통합지수가 하락한 결과이다.
 - 남북한 통합률은 2008년 이후 20% 내외에서 증감을 반복하다가 2018년에 23.9%로 크게 증가하였다. 하지만 2019년부터 지속해서 하락하는 양상을 유지하고 있다.
 - 영역별로는 경제영역의 통합률이 15.5%, 정치영역이 15.3%, 사회문화영역이 22.8%의 통합률을 나타내고 있다. 경제, 정치영역은 소폭 하락한 가운데 사회문화영역의 소폭 상승이 눈에 띄는 대목이다. 한편 경제통합률은 그 수치가 점점 낮아져 통합률이 가장 낮았던 2017년 이전의 추세로 되돌아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 영역별 요약

가. 경제

- 2021년 경제영역 구조통합지수는 전년 대비 0.3점 하락한 10.3점을 기록하였고, 이는 통합단계로는 1단계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 2021년에 지수가 하락한 주요 이유는 북한의 총 교역액 대비 남북교역액의 하락으로 인한 '교역부문'의 하락과 대북투자감소로 인한 '투자부문'의 하락이다.
 - 통합단계는 전년과 같이 1단계를 기록하였다. 이는 '물적 자원이 교류되고 있으나, 그 비중은 낮은 단계, 혹은 물적 자원의 교류는 거의 없으나 낮은 수준의 제도적 균질성이 존재하는 단계'이다. 그러나 올해 지수 10.3점은 0단계에서 불과 0.3점 높음에 따라 실제로는 0단계와 가깝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

(그림 1-2) 경제영역 구조통합지수 연도별 추이



- 구체적으로 2021년 경제영역 구조통합지수에 영향을 미친 변화요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2021년 구조통합지수의 하락의 원인은 다음과 같다.
 - 2021년 북한 총 교역액은 약 7.1억 달러로 전년 대비 17.3% 감소한 반면, 남북교역액의 경우 2020년 약 400만 달러에서 2021년 100만 달러로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하락함에 따라 총 교역액에서 남북교역액으로 추산되는 '교역부문' 점수가 하락하였다.
 - 2021년 '경협기반 조성 무상지원액'은 전년 대비 38.7% 급감한 787만 달러가 지출되었고, '남북협력지원 용자액'은 지난해 257만 달러 대비 10.5% 감소한 230만 달러 지출되었다. 이에 따라 북한 국민소득에서 남한 투자액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추산되는 '투자부문' 점수가 하락하였다.
 - 2022년의 경제영역 구조통합지수는 다음과 같이 예측할 수 있다.
 - 2022년의 경제영역 구조통합지수는 2021년과 비슷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북한의 경제성장과 무역은 2021년에 이어 2022년에도 지속되고 있는 대북 경제제재의 여파로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남북관계는 교착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북핵 협상 또한 크게 진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남북교역 등 남북교류협력도 올해와 비슷한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 경제영역의 의식통합지수는 2015년 42.6점 → 2016년 39.3점 → 2017년 38.3점 → 2018년 41.2 → 2019년 45.0점 → 2020년 41.8점 → 2021년 41.0점으로 2020년에 이어 재차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 2021년 경제분야 남한주민의 의식조사 상대점수는 2020년 전년대비 3.2점 하락에 이어 2021년에도 전년대비 0.8점 하락하였다. 남북관계가 사실상 정체된 상황을 반영하여 남북통합의식에 큰 변동은 없는 상태에서 소폭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북한주민(탈북자)의 의식조사 상대점수는 2020년 이후 이어진 코로나-19 관련 국경봉쇄 영향으로 이탈주민의 표본 수가 급감하였다.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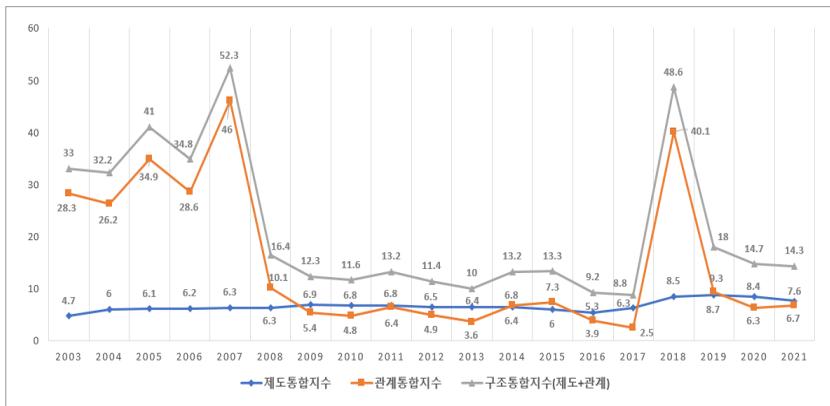
수 도출을 위한 충분한 표본 수가 확보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지난해의 23.6점을 유지한다.

- 경제영역의 통합지수는 남북관계의 정치적 변화에 따라 상당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평가된다.
 - 구조통합지수는 작년에 비해 0.3점 추가하락하여 지난해에 이어 2018년 이후 이어진 하락추세가 지속되었다.
 - 남북관계, 북미관계, 그리고 북핵을 둘러싼 전반적인 국제정치적 관계의 경색이 경제영역의 남북 통합을 저해하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정치영역에 대한 경제영역의 독자성은 여전히 낮은 단계에 머물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나. 정치

- 2021년 정치영역의 남북통합지수는 50.6점으로 전년도 51.0점보다 0.4점 감소하였다. 구조통합지수와 의식통합지수를 나누어 보면 구조통합지수는 작년보다 0.4점 하락한 14.3점을 기록하였고, 의식통합지수는 전년과 동일한 36.3점을 기록하였다.

〈그림 1-3〉 정치영역 구조통합지수 연도별 추이



- 구조통합지수는 2014년에 13.2점으로 1단계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6년, 2017년에는 더 하락하여 8.8점까지 떨어져 0단계가 되었으나 2018년에는 남북관계의 급격한 진전으로 큰 폭의 상승을 기록하여 48.6점을 기록했다. 하지만 2019년 이후 남북 및 북미협상의 교착상태 이후 지속해서 점수가 하락했고 2021년 역시 14.3점을 기록하여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다.

- 구조통합지수의 한 축인 제도통합지수는 남북한 정치제도의 단일화 부문에서 북한의 당에 의한 정치가 제도화되고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을 중시하는 흐름이 지속된 것을 고려해 전년과 같은 1.5점을 유지하였고, 공동법제화 수준(전문가평가)은 2020년 대비 0.8점 하락하여 6.1점으로 측정되었다. 따라서 정치제도의 단일화와 공동법제화 수준을 합한 제도통합지수는 총 7.6점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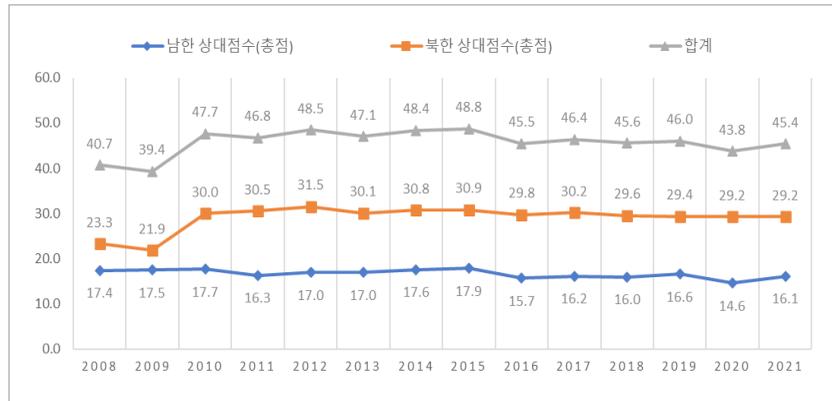
- 다른 한 축인 관계통합지수의 경우 2019년 이후 흐름과 마찬가지로 실무정치회담, 고위급 회담, 군사분야 회담 모두 개최되지 못했고 이에 따른 외부적 긴장요인 또한 해소하지 못했으나 군축 부문에서 남한정부의 전력구조 개편에 따른 일부 병력감축으로 전년대비 0.4점 오른 6.7점을 나타냈다. 하지만 제도통합과 관계통합을 합한 구조통합지수는 총 14.3점으로 그 하락세를 유지하였으므로 2021년 정치분야 통합단계는 '대화·회담 빈도 및 비중이 없거나 낮음'으로 설명되는 1단계를 기록하였다.

- 의식통합지수는 80점 중에서 36.3점으로 통합수준은 45.4%였는데 이는 전년인 2020년과 동일하였다. 각 항목을 전년과 대비하여 볼 때, '상대방에 대한 긍정인식', '상대방에 대한 인지도'에 대한 수치는 동일하였고, '정치제도 동질성', '상대방에 대한 무력도발 가능성 없음' 등은 각각 0.3점, 0.5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통일의 필요성' 문항은 전년 대비 0.8점 하락하였다. 남한주민의 통합의식은 전년과 같은 16.7점을 보였고, 북한주민의 통합의식도 19.6점으로 전년과 동일하였다.

다. 사회문화

- 2021년 사회문화영역 통합지수(의식통합지수 + 구조통합지수)는 의식통합지수 45.4점, 구조통합지수 32.2점으로 총합 77.6점으로 전년 대비 소폭 상승했다. 의식통합지수는 전년 대비 1.6점 상승했으나, 구조통합지수는 전년 대비 0.7점 하락하여 총합 0.9점이 상승했다.

〈그림 1-4〉 사회문화영역 의식통합지수 남북한 상대점수 연도별 추이



- 2021년 사회문화영역 의식통합지수는 90점 만점 중 45.4점으로 2020년 43.8점보다 1.6점 상승했다. 남한주민의 상대점수는 전년 대비 1.5점이 상승한 16.1점이며, 북한주민의 상대점수는 전년과 동일한 29.2점이다.
- 사회문화영역 의식통합지수는 2010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11년 간 일정한 수준을 유지한 가운데 소폭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사회문화영역 의식통합지수에서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부동성(不動性)은 남북한 주민 모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다.
- 사회문화영역에서 남한주민의 상대점수 변화가 북한주민 상대점수 변화보다 크게 나타나 전체 의식통합지수는 남한주민의 상대점수 변동에 따라 변화하는 추세를 보인다.

〈그림 1-5〉 사회문화영역 구조통합지수 연도별 추이



- 2021년 사회문화영역 구조통합지수는 32.2점으로 전년 32.9점에서 0.7점 하락했으며, 제도적 통합지수 하락이 영향을 미쳤다. 통합단계로는 ‘비정기적인 교류, 접촉빈도 높음’으로 설명되는 2단계로 평가된다.
- 관계통합지수는 전년대비 0.1점 감소했으나, 제도통합지수는 전년대비 0.6점 하락해 제도적 통합지수 하락 폭이 더 크다.
 - 구조통합지수의 한 축인 제도통합지수 하락은 전문가 조사 결과 ‘공동법 제화 수준’이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 구조통합지수의 다른 한 축인 관계적 통합지수 하락은 2020년 대비 △ 사회문화영역 교류협력기금 집행 감소에 따른 것이다.
- 2021년 구조통합지수(제도+관계)는 2020년에 이어 소폭의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반적으로 남북 간 교류, 접촉을 측정하는 관계적 통합지수 하락의 영향이 큰 경향을 보여왔으나, 2021년의 경우 전년대비 관계적 통합지수의 정체로 큰 변화 없이 제도적 통합지수에 영향을 받아 소폭 하락한 모습을 보였다.
- 2022년 사회문화영역 남북통합지수를 전망해 보면 구조통합지수가 정체

된 상황에서 남북갈등의 심화로 의식통합지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상당한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 구조(제도+관계)통합지수의 경우 남북간 교류, 접촉을 측정하는 관계통합지수가 전체 구조통합지수 등락에 미치는 영향이 결정적이고 제도통합지수도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회문화 영역 남북 교류가 재개되지 않는 한 전체 지수 변화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방역 협력, 인도적 지원 등을 계기로 남북 교류가 재개된다면 구조통합지수가 소폭 상승할 여지는 있다.
- 의식통합지수는 남북 상호 간 군사적 도발이나 정상회담과 같은 남북 관계의 크고 작은 사건에 민감한 영향을 받고 있는데, 2022년 유례없는 북한의 도발과 남북관계의 악화로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3. 남북통합지수로 본 2021년 한반도: 평가와 전망

가. 남북통합지수로 본 2021년 한반도 평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지속과 코로나-19로 인한 국경봉쇄로 2021년 남북한 교류협력과 통합은 별다른 진척이 없었다. 북한은 남북통신선을 복원(7.27)하면서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등 남한의 정책 전환을 기대했지만 실현되지 않았다. 특히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여러 차례의 담화를 통해 “공정성과 존중의 자세가 유지되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재설치 및 정상회담 등이 가능하다고 말했으나, 결국 미국의 대북정책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판단하고 대화에 임하지 않음으로써 남북관계는 사실상 전면 중단되었다.

이처럼 경색된 한반도 정세가 반영되어 2021년 구조통합지수는 2020년 58.2점에 비해 1.4점이 하락한 56.8점으로 나타났다. 남북관계 전반에 걸쳐 평화 분위기가 강조되었던 2018년도 이후 구조통합지수의 수치는 연속적인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영역별 구조통합지수 추세를 살펴보면 경제영역의 경우 2018년 12.1점에서, 2019년 10.9점, 2020년 10.6점, 2021년 10.3점 등으로 지속 하락하였다. 정치영역도 2018년 48.6점에서 2019년 18.0점, 2020년 14.7점, 2021년 14.3점 등 연속으로 이어지는 하락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사회문화영역에도 반영되어 2018년 51.8점, 2019년 34.4점, 2020년 32.9점, 2021년 32.2점의 수준을 나타내었다.

2021년 구조통합지수의 하락은 남북관계 경색으로부터 기인한 전 영역에서의 교착이 지속된 영향으로 평가할 수 있다. 경제 부문에서의 교역 및 투자 감소, 정치군사적 긴장 요인 증가로 인한 회담 및 교류협력 중단은 이러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아울러 코로나-19 지속으로 인한 북한의 국경

봉쇄 조치는 인도적 지원의 성격을 반영한 민간교류마저 차단시키는 상황으로 나아갔다. 이는 구조통합지수의 두 축이라고 할 수 있는 관계통합과 제도통합지수가 전 영역에 걸쳐 하락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반면 2021년 의식통합지수는 구조통합지수의 하락 추세와는 달리 122.7점으로 나타나 전년 121.9점 대비 0.8점으로 소폭 상승하였다. 이는 사회문화영역에서의 지수 상승에 영향을 받았다고 하겠다. 영역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경제영역의 경우 41.0점으로 2020년 41.8점에 비해 0.8점 하락하였고, 정치영역은 36.3점으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이와 달리 사회문화영역은 45.4점으로 2020년 43.8점에 비해 1.6점 상승하였다. 이는 남한주민이 인식하는 북한 사회문화에 대한 인지수준, 상대방에 대한 수용의식, 적대감 해소, 사회문화양식의 동질성 등의 항목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아진 영향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예년과 마찬가지로 종합적인 의식통합지수의 추세는 최근 10여 년간 대체로 120점대에서 등락을 반복하며 큰 변동없이 유지되고 있다.

나. 향후 전망

남북통합이 낮은 단계에 머무는 현상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1~2년 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첫째, 북한 비핵화에 진전이 없다면 대북제재도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코로나-19 감염병의 영향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셋째,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와 한국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도 북미와 남북 관계가 여전히 교착상태에 머무르고 있고 향후 개선 여지도 크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은 2023년 1월 공개적으로 천명한데서 볼 수 있듯이 한미 양국에 대해 ‘강대강 정면돌파’와 ‘대적투쟁’을 적극 전개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이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해 ICBM 발사 등으로 적극 맞대응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정책의 흐름을 보여준다.

현재로서는 북한이 코로나 국경봉쇄정책을 해제할 기미가 보이지 않으나, 중국이 코로나-19 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북한도 변화

의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하지만 북한주민의 백신 접종률이 현저히 낮고 보건의로 시설이 극도로 열악한 상황이어서 북한이 코로나-19를 명분으로 차단하고 있는 국경봉쇄가 단기간에 해제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따라서 2022년에는 물론 2023년에도 남북통합지수가 하락 혹은 정체 상태를 벗어나 상승 추세로 반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구축을 위해서는 대북제재 상황에 저촉되지 않고 북한이 필요로 하는 남북 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북한이 가장 필요로 하는 보건의로 분야에서의 인도적 협력 방안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보건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남북한 방역 협력과 보건의로 협력은 남북한이 모두 상생할 수 있는 협력 방안이며 남북통합지수를 끌어 올릴 수 있는 유력한 방안이다. 또한 북한의 취약계층에 대한 식량 지원도 중요한 인도적 협력 방안이다. 또 이산가족 문제처럼 남북 공통의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교류협력 방안 모색도 필요해 보인다. 그러나 현재 북한은 남한과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 제안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남북관계가 교착되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국제협력을 통해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시점에서는 남북 대화와 교류만으로는 작금의 경색국면을 타개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교착상태에 있는 비핵화 협상을 견인하려면 미국의 적극적인 대북 관여가 필요하다. 또한 한반도 평화체제를 활용하고 다각적인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가동해야 한다. 특히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한미 간의 긴밀한 조율과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동원할 수 있는 역량이 중요하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이 이에 성공한다면 남북관계가 개선될 여지도 존재한다. 그러나 남북관계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이루어지려면 결국 북한 비핵화 논의에 진전이 있어야 한다.

전반적으로 2023년에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긴장 고조가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정부가 북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적극적 대응을 이끌어 내고 남북대화의 전례를 참고해 계기를 만들어 낼 경우 개선의 여지는 남아 있다.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최근의 추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2

1장. 구조통합지수

IPUS

1장. 구조통합지수

1. 경제

가. 지수구성

〈표 2-1〉 경제영역 변인들의 분류와 배점

영역	지표	배점
제도적 통합	□ 공동의 경제제도나 정책의 존재	30
	□ 동일화폐 사용	30
	□ 남북한 경제 분야 공동법제화	30
관계적 통합	□ 남북교역액/북한 총 무역액 : 교역부문	20
	□ 한국의 대북투자액/북한 국민소득 : 투자부문	20
	□ 남한기업이 고용한 북한 노동자의 수/남한기업이 고용가능한 최대 북한 노동자 고용수 : 노동부문	20
	□ 관세 정도와 비관세 장벽의 존재 : 무역자유화 부문	20
	□ 경제교류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장치 확립 정도	20
	□ 소득수준의 수렴	20
	□ 이자율의 수렴	10
	□ 인플레이션율의 수렴	10
	□ 경기변동의 동조화	10
	□ 금융시장의 통합정도	10

- 이상의 변인들에 부여된 점수를 가산하여 경제통합의 단계를 다음과 같이 11단계로 구분한다.
 - 0단계 (물적 자원의 교류가 없거나 있더라도 미미한 수준이며 남북 사이 제도적 균질성도 매우 낮은 수준임): 10점 이하

- 1단계 (물적 자원이 교류되고 있으나 그 비중은 낮음, 혹은 물적 자원의 교류는 거의 없으나 낮은 수준의 제도적 균질성이 존재하는 단계): 11-20점
- 2단계 (물적 자원이 교류되고 있으며 그 비중이 높으며 낮은 수준의 제도적 균질성이 존재하는 단계): 21-30점
- 3단계 (물적 자원 교류의 비중이 높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지원(주로 매개적 제도)이 마련됨): 31-50점
- 4단계 (3단계+관세나 수입할당 등이 없으며 자유로운 수출입이 가능): 51-70점
- 5단계 (4단계+비관세 장벽을 철폐하고 자본이동을 자유화함, 상당한 정도의 노동 이동도 가능): 71-100점
- 6단계 (5단계+회원국의 정책을 구속하는 제도-위임적 제도-의 수립): 101-130점
- 7단계 (6단계+동일 화폐 사용): 131-160점
- 8단계 (7단계+경제정책의 대부분이 국가 공동의 기구와 제도에 위임): 161-190점
- 9단계 (8단계+모든 경제정책이 국가 공동의 기구와 제도에 위임): 191-220점
- 10단계 (9단계+실질적인 경제적 통일을 이룬 단계): 221-250점

나. 제도통합지수

1) 공동의 경제제도나 정책의 존재

- 공동의 경제제도와 정책 부문은 현재까지 공동의 경제정책(통합재정, 공동 중앙은행)을 위임하기 위한 위임기관(delegated institutions)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예년과 같이 0점을 부여한다.
- 이 부문의 배점은 30점으로 남북한 통합재정의 존재유무와 그 정도에 따라 15점을 배점하고, 남북한 중앙은행의 존재유무와 그 권한 정도에 따라 15점 배점한다.

- 현재는 남북한 정부의 경제정책 권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임받은 공동기관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공동 제도·정책 부문의 점수는 0점이다.

2) 공동화폐의 사용 - 화폐 동맹

- 남북한 공동화폐 사용 부문도 현재까지는 진전이 없으므로 예년과 같이 0점을 부여한다.
- 이 부문의 배점은 30점으로 남북한 공동화폐 사용이 EU의 경우와 같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가정하에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 1단계: 북한화폐 태환화 10점
 - 2단계: 북한화폐의 남한 화폐에 대한 페그(peg) 10점
 - 3단계: 남북한 공동화폐의 사용 10점

3) 남북한 경제 분야 공동법제화

- 남북한 법제의 공동법제화는 전문가 평가에 기초한 '법제화 수준' 배점과 △사유재산권, △경제적 자유화, △금융제도의 확립 등 세 부분으로 나누어 평가한 '법제의 실효화' 배점의 합으로 측정된다.
- 경제분야 법제화 수준은 △북한의 법제화 수준, △남북한 법제의 수렴정도, △남북공동법제의 구속력 수준으로 나누어 전문가 조사를 통해 측정한다. 전문가 조사는 10명의 북한법 전문가들이 세 개의 지표에 대해 각각 10점 척도로 점수를 부과, 그 부문별 점수를 합계한 후, 15점 만점으로 환산하는 방식을 따른다. 2022년에 실시된 전문가 조사 결과, 경제분야 남북한 공동법제화 수준은 15점 만점에 6.2점으로 평가되었으며, 이것은 작년보다 0.1점 하락한 수치이다.
 - '북한 경제 분야 법제화 수준', '공동법제의 구속력' 부문 점수는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하였으나 '남북한 법제의 수렴정도' 부문은 소폭 상승하였다.
 - 공동법제화 부문의 점수 하락은 △ 이른바 '자력갱생'의 강조로 기업소

법, 농장법 등 법제에 변화 부진 추정, △ 남북 경제교류에 대한 기대감 하락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 2019년 2월 결렬된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UN 경제제재를 둘러싼 북미와 남북 간의 대화가 정체기에 들어선 이후 북한의 본격적인 경제분야 법제화 또한 정체된 상황으로 경제 제도 개선의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아 2021년 경제 법제화 점수는 예년 수준에서 크게 변화하지 않고 있다.

〈표 2-2〉 경제분야 법제화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a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북한의 경제분야 법제화 수준	2.6	3.0	2.9	2.8	2.7	3.0	3.0	3.0	2.9	2.7
경제분야 남북한 법제의 수렴 정도	1.6	1.8	1.7	1.6	1.6	1.9	1.9	1.8	1.6	1.9
경제분야 공동법제 구축력	1.4	1.8	1.9	1.4	1.5	1.8	1.7	2.0	1.8	1.6
합계	5.6	6.6	6.5	5.8	5.8	6.6 ^a	6.6	6.8	6.3	6.2

a. 합계 점수는 각 부문별 점수를 '합산 후 반올림' 한 것이며, 부문별로 반올림 후 합산한 것과는 차이가 날 수 있음.

- 법제 실효화 수준은 △사유재산권, △경제적 자유화, △금융제도의 확립 등 세 부분으로 나누어 평가한다.

- 2009년 화폐 개혁의 단행으로 '사유재산권' 부문의 점수가 하락하고, 2010년 3월 북한이 금강산 지구 내 남한 투자 자산에 대한 몰수를 통보하여 경제적 자유화 부문 중 '투자의 자유'가 침해된 이후 이에 대한 개선의 여지가 없어 전년대와 동일한 1점을 유지하였다.

- 이상의 남북한 공동법제화 변인에 대한 점수를 종합해 보면, 전문가 평가에 의한 '법제화 수준' 점수 6.2점과 '법제의 실효화 수준' 점수 1점을 합하여 7.2점이 된다.

4) 제도통합지수 종합

- 경제영역의 제도통합지수는 △공동의 경제제도나 정책의 존재, △공동의

화폐의 사용, △남북한 공동법제화 수준의 합계로 산정하며 2021년에는 전년대비 0.1점 하락한 7.2점을 기록하였다.

- 현재 남북 사이의 공동의 경제제도와 정책, 공동의 화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두 항목의 점수는 0점이다.
- 남북한 공동법제화 수준은 위에서 기술한 대로 법제화 수준과 법제의 실효화 수준을 합산하여 7.2점이 된다. 따라서 제도통합지수는 공동법제화 수준 점수와 동일하며 이는 아래 〈표 2-3〉에 나타나 있다.

〈표 2-3〉 제도통합지수 종합

	공동제도와 정책 (30)	동일화폐 사용(30)	남북한 공동법제화(30)		법적, 제도적 통합
			법제화(15)	실효화(15)	
1989	0	0	1	0	1
1990	0	0	1	0	1
1991	0	0	1	0	1
1992	0	0	2	0	2
1993	0	0	2	0	2
1994	0	0	2	0	2
1995	0	0	2	0	2
1996	0	0	2	0	2
1997	0	0	2	0	2
1998	0	0	3	2	5
1999	0	0	3	2	5
2000	0	0	3	2	5
2001	0	0	3	2	5
2002	0	0	3.5	2	5.5
2003	0	0	3.5	2	5.5
2004	0	0	4	2	6
2005	0	0	4	2	6
2006	0	0	4.5	2	6.5
2007	0	0	6.3	2	8.3
2008	0	0	6.3	2	8.3
2009	0	0	7.2	1.5	8.7
2010	0	0	6.7	1	7.7
2011	0	0	6.7	1	7.7
2012	0	0	5.6	1	6.6

	공동제도와 정책 (30)	동일화폐 사용(30)	남북한 공동법제화(30)		법적, 제도적 통합
			법제화(15)	실효화(15)	
2013	0	0	6.6	0.6*	7.2
2014	0	0	6.5	1	7.5
2015	0	0	5.8	1	6.8
2016	0	0	5.8	1	6.8
2017	0	0	6.6	1	7.6
2018	0	0	6.6	1	7.6
2019	0	0	6.8	1	7.8
2020	0	0	6.3	1	7.3
2021	0	0	6.2	1	7.2

* 개성공단인 5개월 가량 폐쇄되었던 점을 감안하여 1-5/12의 점수를 부여함.

다. 관계통합지수

1) 교역부문

- 2021년 북한의 무역액(남북교역 제외)은 7.1억 달러로 전년 대비 17.3% 감소한 수치이다. 수출은 8.2% 감소한 0.820억 달러, 수입은 18.4% 감소한 6.3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5.5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였다.
북한이 가장 많이 수출한 품목은 철강, 금속제품(HS 72-83)으로 전체 수출에서 중 38.5%인 약 3,159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2020년 최대 수출품목인 광물성 생산품(HS 25-27)은 22.2%를 차지하여 총 1,822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 가장 많이 수입된 품목은 광물성생산품(HS 25-27)이며 총 3.7억 달러로 전체 수입의 58.9%를 차지하였다. 화학공업제품(HS 28-38)은 전체 수입의 13.5%인 0.85억 달러를 기록하여 그 뒤를 이었다.
- 2020년 남북교역액은 2019년 700만 달러에서 400만 달러로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북·중 교역액은 2019년 대비 75.4% 급감한 7.6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 2021년 남북교역액은 2020년 40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로 이전 연도에 이어 재차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북·중 교역액은 2020년 대비 10.4% 감소한 6.8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 2010년 5.24 조치에 이어 2016년 2월 10일 개성공단 역시 폐쇄되면서 이후의 남북교역은 전면 중단된 상황이다. 2018년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 및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로 인한 일시적 교역액 증가 이후 2019년부터는 지소적으로 감소하여 유의미한 남북교역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 2021년, 북한의 전체 무역에서 남한과의 교역이 차지하는 비율은 북한 대외무역액의 급감으로 0.01%를 기록하였다.
- 2021년에 북중 무역은 전체 북한 대외무역의 95.6%를 차지하여 95.8%로 역대 최고 비중을 기록하였던 2018년에 이어 두 번째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사실상 북한의 제2교역국이었던 남한과의 교역이 전면 중단된 상태에서 국제 제재의 영향으로 다른 주요 교역국 또한 북한과의 거래를 줄이면서 북한의 대중 무역 의존도는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2021년 북한 대외무역 동향에서 드러난 가장 중요한 특징은 대외교역의 지속적인 축소이다.
- 2016-2017년의 UN 안보리 대북제재 효과가 지속되고 있으며, 2021년에도 총 교역액은 17.3% 감소하였으며 수출액 감소(-8.2%) 대비 수입액의 감소(-18.4%)가 가파르게 이루어지며 무역수지는 전년 대비 19.7% 감소한 5.5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였다.
- 이상의 결과 교역부문 상대점수는 0점을 기록하였다.¹⁾

1) 교역부문의 상대점수는 EU나 COMECON과 같이 경제통합도가 높은 경제공동체의 '역내교역비중'과 남북 교역 비중을 비교하여 산출하였다. 2006년 유럽연합 27개의 회원국가의 국가별 전체 교역액 중 역내교역(intra-EU)의 비중 자료와 1985년 CMEA (Council for Mutual Economic Assistance) 회원국 6개국(불가리아, 체코,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 소련연방)의 역내 수출비중 자료를 사용한다. 각각 68.9% 과 56%로 이 두 수치의 평균인 62.4%를 상대점수 산출을 위한 기준으로 삼았다.

지난해 교역부문 상대점수 0.1점에서 소폭 감소하였다. 이는 남북교역액과 북한 대외무역의 감소폭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표 2-4〉 교역부문 상대점수

(단위: 백만 달러, %)

연도	북한무역액 ^a (A)	남북교역액 ^b (B)	북한 총 무역액 (C=A+B)	남북교역 비중 (D=B/C)	상대점수 (E=(D*14)/62.4)
1989	4,516	19	4,534	0.4%	0.1
1990	4,170	14	4,184	0.3%	0.1
1991	2,584	111	2,695	4.1%	0.9
1992	2,555	173	2,728	6.4%	1.4
1993	2,646	187	2,833	6.6%	1.5
1994	2,100	195	2,295	8.5%	1.9
1995	2,052	287	2,339	12.3%	2.8
1996	1,977	252	2,229	11.3%	2.5
1997	2,177	308	2,485	12.4%	2.8
1998	1,442	222	1,664	13.3%	3.0
1999	1,480	333	1,813	18.4%	4.1
2000	1,969	425	2,394	17.8%	4.0
2001	2,270	403	2,673	15.1%	3.4
2002	2,260	642	2,902	22.1%	5.0
2003	2,391	724	3,115	23.2%	5.2
2004	2,857	697	3,554	19.6%	4.4
2005	3,002	1,056	4,058	26.0%	5.8
2006	2,996	1,350	4,346	31.1%	7.0
2007	2,940	1,798	4,738	37.9%	8.5
2008	3,816	1,820	5,636	32.3%	7.2
2009	3,414	1,679	5,093	33.0%	7.4
2010	4,174	1,912	6,086	31.4%	7.1
2011	6,316	1,714	8,030	21.3%	4.8
2012	6,811	1,971	8,782	22.4%	5.0
2013	7,340	1,136	8,476	13.4%	3.0
2014	7,610	2,343	9,953	23.5%	5.3
2015	6,252	2,711	8,963	30.2%	6.8
2016	6,532	332	6,879	4.8%	1.1

연도	북한무역액 ^a (A)	남북교역액 ^b (B)	북한 총 무역액 (C=A+B)	남북교역 비중 (D=B/C)	상대점수 (E=(D*14)/62.4)
2017	5,550	1	5,551	0.0%	0.0
2018	2,843	31	2,875	1.1%	0.2
2019	3,245	7	3,252	0.2%	0.0
2020	863	4	867	0.5%	0.1
2021	713	1	714	0.01%	0.0

a. Kotra, 『북한대외무역동향』, 각년호 (남북교역액은 제외).

b. 통일부 주요 사업 통계, “남북 교역액 현황”, (<<https://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statistics>>, 검색일 2021.8.10).

2) 투자부문

- 대북투자액은 크게 ‘정부 대북투자’와 ‘민간 대북투자’로 구분될 수 있으나, 현재까지 대부분의 투자는 정부주도임을 감안하여 정부 대북투자규모를 중심으로 대북투자액을 산정하였다.
 - 정부 대북투자액은 남북협력기금 중 투자의 성격으로 볼 수 있는 두 가지 항목 △경협기반조성 무상지원액(이하 지원액), △남북교류협력지원 용자액(이하 용자액)의 합산을 통해 산출하였다.
- 2021년 남북협력기금 중 투자 성격으로 규정한 지원액과 용자액의 합은 약 1,017만 달러로 전년 대비 33.8% 감소하였다.
 - 2021년 ‘경협기반 조성 무상지원액’은 전년 대비 38.7% 급감한 787만 달러가 지출되었다. 위 금액은 대북 경협기반조성 사업 중 대북 투자와는 무관하다고 생각되는 ‘화살머리고지 현장기념관 조성’, ‘판문점 견학 통합 관리 운영을 위한 기금 지원’,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운영경비 지원’, 항목을 제외한 금액이다.
 - ‘남북협력지원 용자액’은 지난해 257만 달러 대비 10.5% 감소한 230만 달러 지출되었다.
- 2021년 투자부문 상대점수는 ‘경협기반 조성 무상지원액’ 부문의 지원액

이 증가한 결과 지난해 대비 0.1점 하락한 0.1점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상승은 본격적인 남북관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²⁾

○ 전반적인 추세로 보면, 2010년 5.24 조치 이후 정부의 대규모 대북투자 역시 어려워졌기 때문에 투자부문 상대 점수는 대부분의 연도에서 1점 이하의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표 2-5〉 투자부문 상대점수(UN 명목소득 기준)

(단위: 백만 달러, %)

연도	정부투자(남북협력기금) ^{a)}		민간 투자액 ^{b)}	남한 전체 투자액 (A)	북한의 국민소득 ^{c)} (B)	남한투자 비중 C=(A/B)*100	상대점수 D=(C*14)/5.87
	경협분야 기반조성 (경상지출)	남북교류 협력지원 (용자)					
1995					5,215	0.00	0.0
1996	4.9		5	9.9	10,528	0.09	0.2
1997			1	1.0	10,309	0.01	0.0
1998			1	1.0	10,260	0.01	0.0
1999			125	125.0	10,265	1.22	2.9
2000	14.6		22	36.6	10,593	0.35	0.8
2001	89.9	46.0	28	163.9	11,007	1.49	3.6
2002	36.8	35.7	12	84.5	10,887	0.78	1.9
2003	76.3	54.7	8	139.0	11,028	1.26	3.0
2004	76	81.4	12	169.4	11,145	1.52	3.6
2005	204.5	56.8	45	306.3	13,001	2.36	5.6
2006	152.1	71.0		223.1	13,741	1.62	3.9
2007	172.5	140.0		312.5	14,349	2.18	5.2
2008	110.0	36.6		146.6	13,327	1.10	2.6
2009	41.5	24.0		65.5	12,044	0.54	1.3
2010	17.7	45.2		62.9	13,960	0.45	1.1

2) 투자부문의 경제통합지수는 경제통합이 높은 지역에 포함된 국가들의 국민소득대비 외국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의 비중을 기준점으로 삼고, 남한의 대북투자액을 이와 비교하여 산출하였다. 2004년 EU에 가입한 동유럽 8개국(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슬로베니아)의 GDP의 FDI 비중을 사용하였고, 기간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고려하였다. 이들 국가들의 EU 통합 이후 3개년에 걸친 국민소득 대비 외국인직접투자 비중의 평균값은 5.9%이다.

연도	정부투자(남북협력기금) ^{a)}		민간 투자액 ^{b)}	남한 전체 투자액 (A)	북한의 국민소득 ^{c)} (B)	남한투자 비중 C=(A/B)*100	상대점수 D=(C*14)/5.87
	경협분야 기반조성 (경상지출)	남북교류 협력지원 (용자)					
2011	12.4	13		25.4	15,719	0.16	0.4
2012	23.8	22.1		45.9	15,962	0.29	0.7
2013	11.5	74.6		86.1	16,602	0.52	1.2
2014	20.0	22.3		42.3	17,462	0.24	0.6
2015	20.6	3.6		24.2	16,386	0.15	0.4
2016	11.5	3.2		14.7	16,837	0.09	0.2
2017	8.64	2.66		11.3	17,404	0.06	0.2
2018	18.12	2.57		20.7	17,516	0.12	0.3
2019	9.44	2.57		12.0	17,551	0.06	0.1
2020	12.84	2.57		15.4	16,002	0.09	0.2
2021	7.87	2.30		10.2	15,986 ^{d)}	0.06	0.1

a. 통일부, "남북협력기금 현황", (1,000원 = 1달러 적용), <<https://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interkoreanfund/bfPresent/>>, 검색일 2020.12.14.>

b. 김영훈, 2006, "남북경협 현황과 평가", 『금융경제연구』, 제281호.

c. UN, "GNI in US Dollars", <<http://unstats.un.org/unsd/snaama/dnlist.asp>>.

d. 2020년도 국민소득에서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1년 북한경제성장률 -4.5%를 적용하여 산출함.

3) 노동부문

■ 노동부문의 상대점수는 통일 이후 예상되는 북한 노동인구의 남한 유입 규모³⁾와 현재 고용된 북한노동력 규모를 비교하여 산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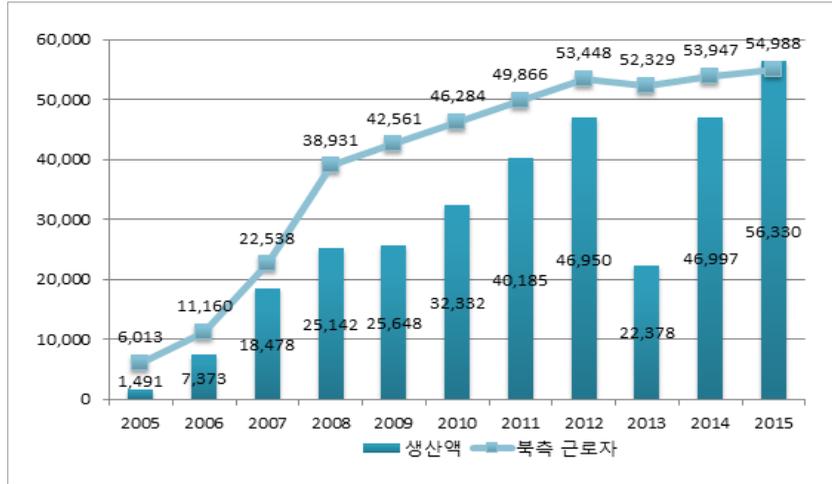
○ 남한기업이 고용한 북한 노동자의 수는 2015년 말 기준 개성공단에 약 5만 5천 명이 있었으나, 2016년 2월 10일 개성공단이 폐쇄되어 현재는 남한 기업에 고용된 북한 노동자가 없다.

- 이에 따라 2021년 노동부문의 상대점수는 2020년과 동일한 0점을 기록하였다.

3) 정청무(2007) 인구이동 예측결과는 2020년을 통일 시점으로 가정하고 거주이전의 자유가 보장되는 2025년부터 2040년까지 연평균 32만 명 정도의 북한주민이 남한지역으로 이동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림 2-1〉 개성공단 고용 북한노동자와 생산액 추이

(단위: 만 달러, 명)



〈표 2-6〉 노동부문 상대점수

(단위: 명)

연도	남한기업 고용 북한노동자 ^a (A)	상대점수 (A/320,000)*20
1989	0	0.0
1990	0	0.0
1991	0	0.0
1992	0	0.0
1993	0	0.0
1994	0	0.0
1995	0	0.0
1996	0	0.0
1997	0	0.0
1998	0	0.0
1999	0	0.0
2000	0	0.0
2001	0	0.0
2002	0	0.0

연도	남한기업 고용 북한노동자 ^a (A)	상대점수 (A/320,000)*20
2003	0	0.0
2004	0	0.0
2005	7,621	0.5
2006	11,189	0.7
2007	22,538	1.4
2008	38,931	2.4
2009	42,561	2.7
2010	46,284	2.9
2011	49,866	3.1
2012	53,448	3.3
2013	30,525 ^b	1.9
2014	53,947	3.4
2015	54,988	3.4
2016	6,110 ^c	0.4
2017	0	0.0
2018	0	0.0
2019	0	0.0
2020	0	0.0
2021	0	0.0

a. 통일부, “개성공단 사업 주요 통계”, <http://www.unikorea.go.kr/cms/getFile.do?file=2017070714065518271.xls&orgname=%EA%B0%9C%EC%84%B1%EA%B3%B5%EB%8B%A8%EC%82%AC%EC%97%85_%EC%B5%9C%EC%A2%85.xls&mgmtId=MGMT_0000000350&siteId=SITE_00001&filePath=unikorea/common/file/&count=Y>.

b. 연말 노동인구 52,379명에 개성공단 폐쇄일 수를 고려한 (1-5/12)를 곱하여 산출함.

c. 전년도 연말 노동인구 54,988명에 개성공단 폐쇄일 수를 고려한 (1-32/36)를 곱하여 산출함.

4) 무역자유화 부문

- 2021년에도 일부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남북 교류가 전면 중단된 것을 반영하여 0점을 부여한다.
 - 무역자유화 부문은 크게 ‘상품무역’과 ‘서비스무역’ 자유화정도의 합산을 통해 상대점수를 산출한다.

○ 상품무역은 다시 '관세 유무'와 '교역금지품목 범위' 등 두 가지 범주로 나누어 평가한다.

- 2010년 '5.24 대북조치'로 인해 같은 해 6월 「반출·반입 승인대상품목 및 승인 절차에 관한 고시」가 개정된 후 모든 물품의 반출입 시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극소수의 예외를 제외하면 승인을 받기 어려워졌다. 이에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역이 거의 중단되면서 상품 무역자유화 정도에 심각한 제한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어 2010년부터 그 전년에 비해 0.5점이 낮은 4.5점을 부여하여 왔다.
- 2016년 2월 개성공단 잠정 폐쇄 이후 2021년에도 남북 간 상품 교역이 여전히 전면 중단된 상태이므로 상품 무역자유화 점수는 0점을 부여한다.

○ 서비스무역에 대한 자유화 점수는 '북한 서비스시장에 대한 접근성'과 '남한인력의 국경 간 이동' 등 두 가지 범주에서 평가한다.

- 2010년 이후 '5.24 조치'로 인해 개성공단사업을 제외한 경협사업에 대해서는 남한 사업자들이 방북 승인이 불가한 상황을 반영하여 1.5점을 부여하여 왔다.
- 2021년에도 남한인력의 국경 간 이동이 이루어지지 못했으므로 0점을 부여한다.

〈표 2-7〉 무역자유화 부문 상대점수

연도	상품무역(10) (A)	서비스무역(10) (B)	상대점수 (C=A+B)	비고
1989	5.0	0.0	5.0	
1990	5.0	0.0	5.0	
1991	5.0	0.0	5.0	
1992	5.0	0.0	5.0	
1993	5.0	0.0	5.0	
1994	5.0	0.0	5.0	
1995	5.0	0.0	5.0	
1996	5.0	0.0	5.0	
1997	5.0	0.0	5.0	
1998	5.0	0.0	5.0	
1999	5.0	0.0	5.0	
2000	5.0	0.0	5.0	
2001	5.0	0.0	5.0	
2002	5.0	0.0	5.0	

연도	상품무역(10) (A)	서비스무역(10) (B)	상대점수 (C=A+B)	비고
2003	5.0	0.0	5.0	
2004	5.0	1.0	6.0	개성공단·금강산 통합합의서 채택(1)
2005	5.0	2.0	7.0	KT 개성공단 통신서비스 개시(1)
2006	5.0	2.0	7.0	
2007	5.0	2.0	7.0	
2008	5.0	2.0	7.0	
2009	5.0	1.5	6.5	'12.1 조치' : 인적이동 제한 '유씨 억류사건' : 거주인력 안정보장 문제 발생
2010	4.5	1.5	6.0	'5.24 조치' : 상품무역 및 인력이동에 대한 제약 요인 발생
2011	4.5	1.5	6.0	
2012	4.5	1.5	6.0	
2013	2.6	1.5	4.1	개성공단 폐쇄(5개월)에 따른 점수 차감
2014	4.5	1.5	6.0	'5.24 조치'에 따른 상품과 인력이동의 제한 지속
2015	4.5	1.5	6.0	
2016	0.5	0.2	0.7	개성공단 폐쇄(2월10일 이후)에 따른 점수 차감
2017	0.0	0.0	0.0	남북 상품 무역 및 인적 왕래 전면 중단
2018	0.0	0.5	0.5	
2019	0.0	0.0	0.0	
2020	0.0	0.0	0.0	
2021	0.0	0.0	0.0	

5) 경제 교류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장치 확립 정도

- 2021년에는 남북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설치되었던 매개제도인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이후 공동위원회)'가 개최된 바 없고 철도, 도로 등 인프라 분야 및 산림협력 분야에서도 회담 개최와 합의서 채택이 전무하여 작년과 동일한 3.0점을 부여한다.

○ 본 연구에서는 남북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매개제도(intermediating institutions)를 2007년 2차 정상회담이후 설치된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로 규정하고, 매개제도의 존재와 실질적인 작동여부를 구분하여 점수를 부여한다.

- 제도 확립의 질적인 측면에서는 매개제도인 공동위원회가 2021년에도 계속 존재하는 상황이므로 '매개 제도의 존재'에 대해 3점을 부여하나 질적인 작동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개 제도의 작동' 점수는 0점이다.
- 제도 확립의 양적인 측면에서는 2021년 남북간 회담 성사와 합의서 채택의 사례가 없는 관계로 0점을 부여한다.

〈표 2-8〉 제도장치 확립부문 상대점수

(단위: 회)

연도	질적변수			양적변수 ⁴⁾					상대 점수
	위임 제도의 존재	매개 제도의 존재	매개 제도의 작동 ^a	회담 개최수	합의서 채택수	합의서 가중치	연도별 점수	연도별 점수에 따른 상대점수	
1989							0.0	0.0	0.0
1990							0.0	0.0	0.0
1991							0.0	0.0	0.0
1992							0.0	0.0	0.0
1993							0.0	0.0	0.0
1994							0.0	0.0	0.0
1995							0.0	0.0	0.0
1996							0.0	0.0	0.0
1997							0.0	0.0	0.0
1998							0.0	0.0	0.0
1999							0.0	0.0	0.0
2000	0.0	3.0	2.0	3	0	0.0	3.0	0.5	5.5
2001	0.0	3.0	0.0	3	2	3.0	6.0	0.5	3.5
2002	0.0	3.0	2.0	14	11	16.5	30.5	1.5	6.5
2003	0.0	3.0	2.0	17	14	21.0	38.0	2.0	7.0

4) 제도 확립관련 양적변수는 다음의 방식으로 산출한다.

* 합의서 가중치 : 합의서 채택은 회담 개최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렵고 파급효과도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회담 개최에 비해 0.5의 가중을 더 주었다.

* 연도별 점수는 다음 수식으로 산출: 연도별점수=경제회담 개최 수+경제관련 합의서 채택 수 *1.5

* 상대점수는 연도 연도별 점수에 따라 0~5점까지 범위에서 상대점수를 부여한다. 하지만, 연도별 점수가 80이상을 넘을 만큼 활발히 회담이 개최되고, 합의서가 채택된다고 할지라도 상대점수는 5점 이상 부여할 수 없다. 이는 매개제도의 존재와 활발한 활동만으로는 10점 이상의 점수는 부여될 수 없고, 위임제도가 존재하였을 때만이 그 이상의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을 함의하고 있는 것이다.

연도	질적변수			양적변수 ⁴⁾					상대 점수
	위임 제도의 존재	매개 제도의 존재	매개 제도의 작동 ^a	회담 개최수	합의서 채택수	합의서 가중치	연도별 점수	연도별 점수에 따른 상대점수	
2004	0.0	3.0	2.0	13	8	12.0	25.0	1.5	6.5
2005	0.0	3.0	2.0	11	6	9.0	23.0	1.5	6.5
2006	0.0	3.0	2.0	8	3	4.5	12.5	1.0	6.0
2007	0.0	3.0	2.0	22	16	24.0	46.0	2.5	7.5
2008	0.0	3.0	0.0	3	1	1.5	4.5	0.5	3.5
2009	0.0	3.0	0.0	4	0	0.0	4.0	0.5	3.5
2010	0.0	3.0	0.0	3	0	0.0	3.0	0.5	3.5
2011	0.0	3.0	0.0	0	0	0.0	0.0	0.0	3.0
2012	0.0	3.0	0.0	0	0	0.0	0.0	0.0	3.0
2013	0.0	3.0	0.0	22	5	7.5	29.5	1.5	4.5
2014	0.0	3.0	0.0	3	0	0.0	3.0	0.5	3.5
2015	0.0	3.0	0.0	1	0	0.0	1.0	0.5	3.5
2016	0.0	3.0	0.0	0	0	0.0	0.0	0.0	3.0
2017	0.0	3.0	0.0	0	0	0.0	0.0	0.0	3.0
2018	0.0	3.0	0.0	4	4	6.0	10.0	0.5	3.5
2019	0.0	3.0	0.0	0	0	0	0.0	0.0	3.0
2020	0.0	3.0	0.0	0	0	0	0.0	0.0	3.0
2021	0.0	3.0	0.0	0	0	0	0.0	0.0	3.0

a. 2000년 이후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또는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가 개최되었을 경우 매개제도가 작동한 것으로 보고 2점을 부여하였음.

※ 자료 :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http://dialogue.unikorea.go.kr>>.

6) 소득수준 수렴

- 2021년에 남한은 4.1%의 경제성장률을 보였으며, 북한은 -0.1%의 역성장을 기록하였다.
- 북한의 소득수준은 여전히 남한의 10% 이하 수준이어서 소득수렴 부문의 상대점수는 예년과 같은 0점을 기록하였다.
 - 2021년 남한의 1인당 소득 대비 북한 1인당 소득수준은 약 1.8% 정도이다.

〈표 2-9〉 소득수준 수렴부문 상대점수(UN 명목소득 기준)

(단위: 달러, %)

연도	북한	남한	비율	상대점수
1989	911	5,711	16.0%	1.74
1990	835	6,498	12.8%	1.08
1991	753	7,496	10.0%	0.42
1992	659	7,966	8.3%	0
1993	547	8,692	6.3%	0
1994	432	10,129	4.3%	0
1995	239	12,222	2.0%	0
1996	476	13,016	3.7%	0
1997	461	11,992	3.8%	0
1998	455	7,916	5.7%	0
1999	451	10,199	4.4%	0
2000	461	11,767	3.9%	0
2001	475	11,095	4.3%	0
2002	467	12,635	3.7%	0
2003	470	14,045	3.3%	0
2004	472	15,739	3.0%	0
2005	547	18,295	3.0%	0
2006	574	20,616	2.8%	0
2007	596	22,813	2.6%	0
2008	550	20,361	2.7%	0
2009	495	18,222	2.7%	0
2010	570	22,110	2.6%	0
2011	639	24,315	2.6%	0
2012	645	24,731	2.6%	0
2013	668	26,210	2.5%	0
2014	700	29,472	2.5%	0
2015	654	28,931	2.3%	0
2016	669	29,531	2.4%	0
2017	688	31,911	2.2%	0
2018	689	33,841	2.0%	0
2019	692	32,422	2.0%	0
2020	624	32,193	2.0%	0
2021 ^a	623	33,513	1.8%	0

a. 2021년 소득은 2020년 자료에 한국은행에서 산출한 남북한 경제성장률을 곱하여 산출함. 전반적인 통계 수치는 각 해에 발표된 UN 공식통계를 반영하여 재조정됨.

※ 자료: UN, "Per Capita GNI in US Dollars", <<http://unstats.un.org/unsd/snaama/dnllist.asp>>.

7) 이자율의 수렴

- 이자율의 수렴은 남북한의 월별 대출이자율과 화폐시장이자율의 상관계수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 이자율의 수렴정도는 북한에 시장경제가 도입된 이후에 통합지수의 일부로 이용될 것이며 따라서 이 부문에서의 현재 점수는 0점이다.

8) 인플레이션율의 수렴

- 인플레이션율의 수렴은 남북한의 월별 CPI로 측정된 인플레이션의 상관계수를 사용하여 계산한다.
 - 현재 북한에서는 전반적인 가격자유화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문에서의 점수도 0점을 부여한다.

9) 경기변동의 동조화

- 경기변동의 동조화는 월별 산업생산량(industrial production) 자료를 활용하되 추이(trend)를 제거한 데이터를 사용한다.
 - 현재 북한과 남한의 경기변동을 동조화시키는 요인들을 찾기 어려우므로 이 영역에서의 현재 점수도 0점으로 평가한다.

10) 자본시장의 통합 정도

- 북한에 주식과 채권시장 등 자본시장 개설이후 '북한의 포트폴리오 투자액과 남한저축액과의 상관계수' 및 '남북한 주식시장 수익률 상관계수' 등을 이용하여 자본시장의 통합정도를 측정한다.
 - 현재 이 부문의 상대점수는 0점으로 평가한다.

라. 종합

- 2021년 경제영역 구조통합지수는 전년 대비 0.3점 하락한 10.3점을 기록하였고, 이는 통합단계로는 1단계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 2021년에는 △ 대북투자액 감소로 인한 ‘투자부문’ 지수 하락, △ 남북 교역액 감소로 인한 ‘교역부문’ 지수 하락이 전체지수의 하락을 이끌었다.
 - 통합단계는 전년과 동일한 1단계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물적 자원이 교류되고 있으나, 그 비중은 낮은 단계’이다.
 - 그러나 이것은 정치적/문화적 교류 재개에 따른 부수적인 효과로 볼 수 있으며, 실질적인 물적 자원 교류 현황만으로 평가하면 2021년의 남북 경제통합 수준은 사실상 0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2-10〉 2020/2021년 경제영역 구조통합지수 변화부문 지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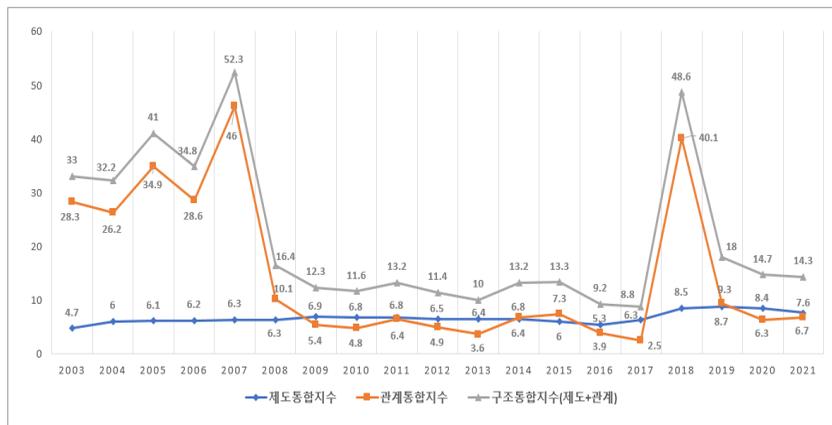
	부문	2020년	2021년	증감	요인
변화 부문	공동 법제화	7.3	7.2	-0.1	- 소폭하락
	교역	0.1	0.0	-0.1	- 남북 교역액 감소
	투자	0.2	0.1	-0.1	- 대북투자액 감소
불변 부문	무역자유화	0.0	0.0	-	- 상품 및 서비스 무역 없음
	제도 장치	3.0	3.0	-	- 남북회담 및 합의서 채택 없음
	공동제도와 정책	0	0	-	- 공동의 경제정책(통합재정, 공동 중앙은행)을 위임할 위임기관 부재
	공동화폐의 사용	0	0	-	- 남북공동 화폐 사용 관련 진전 없음.
	노동	0	0	-	- 남한 기업의 북한 인력 고용 전무함
	소득 수렴	0	0	-	- 남북 간 소득격차 소폭 확대
	이자율 수렴	0	0	-	- 북한의 시장 이자율 미확립
	인플레이션 수렴	0	0	-	- 북한의 가격 자유화 미도입
	경기변동 동조화	0	0	-	- 남북한 경기변동 동조 요인이 없음.
자본시장 통합도	0	0	-	- 북한 자본시장 미도입	
계	10.6	10.3	-0.3		

〈표 2-11〉 경제영역 구조통합지수 종합(UN 명목소득 기준)

연도	제도통합 (90)			관계통합 (160)										합계 (250)	통합 단계
	공동 제도와 정책 (30)	동일 화폐 사용 (30)	법제의 시장 경제화 (30)	교역 (20)	투자 (20)	노동 (20)	무역 자유화 (20)	제도 장치 (20)	소득 수렴 (20)	이자율 수렴 (10)	인플레이션 수렴 (10)	경기변동 동조화 (10)	자본 시장 통합도 (10)		
1989	0.0	0.0	1.0	0.1	0.0	0.0	5.0	0.0	1.5	0.0	0.0	0.0	0.0	7.8	0단계
1990	0.0	0.0	1.0	0.1	0.0	0.0	5.0	0.0	0.9	0.0	0.0	0.0	0.0	7.2	0단계
1991	0.0	0.0	1.0	0.9	0.0	0.0	5.0	0.0	0.0	0.0	0.0	0.0	0.0	7.3	0단계
1992	0.0	0.0	2.0	1.4	0.0	0.0	5.0	0.0	0.0	0.0	0.0	0.0	0.0	8.4	0단계
1993	0.0	0.0	2.0	1.5	0.0	0.0	5.0	0.0	0.0	0.0	0.0	0.0	0.0	8.5	0단계
1994	0.0	0.0	2.0	1.9	0.0	0.0	5.0	0.0	0.0	0.0	0.0	0.0	0.0	8.9	0단계
1995	0.0	0.0	2.0	2.8	0.0	0.0	5.0	0.0	0.0	0.0	0.0	0.0	0.0	9.8	0단계
1996	0.0	0.0	2.0	2.5	0.2	0.0	5.0	0.0	0.0	0.0	0.0	0.0	0.0	9.8	0단계
1997	0.0	0.0	2.0	2.8	0.0	0.0	5.0	0.0	0.0	0.0	0.0	0.0	0.0	9.8	0단계
1998	0.0	0.0	5.0	3.0	0.0	0.0	5.0	0.0	0.0	0.0	0.0	0.0	0.0	13.0	1단계
1999	0.0	0.0	5.0	4.1	2.9	0.0	5.0	0.0	0.0	0.0	0.0	0.0	0.0	17.0	1단계
2000	0.0	0.0	5.0	4.0	0.8	0.0	5.0	5.5	0.0	0.0	0.0	0.0	0.0	20.3	1단계
2001	0.0	0.0	5.0	3.4	3.6	0.0	5.0	3.5	0.0	0.0	0.0	0.0	0.0	20.4	1단계
2002	0.0	0.0	5.5	5.0	1.9	0.0	5.0	6.5	0.0	0.0	0.0	0.0	0.0	23.8	2단계
2003	0.0	0.0	5.5	5.2	3.0	0.0	5.0	7.0	0.0	0.0	0.0	0.0	0.0	25.7	2단계
2004	0.0	0.0	6.0	4.4	3.6	0.0	6.0	6.5	0.0	0.0	0.0	0.0	0.0	26.5	2단계
2005	0.0	0.0	6.0	5.8	5.6	0.4	7.0	6.5	0.0	0.0	0.0	0.0	0.0	31.3	3단계
2006	0.0	0.0	6.5	7.0	3.9	0.7	7.0	6.0	0.0	0.0	0.0	0.0	0.0	31.0	3단계
2007	0.0	0.0	8.3	8.5	5.1	1.4	7.0	7.5	0.0	0.0	0.0	0.0	0.0	37.8	3단계
2008	0.0	0.0	8.3	7.2	2.6	2.4	7.0	3.5	0.0	0.0	0.0	0.0	0.0	31.1	3단계
2009	0.0	0.0	8.7	7.4	1.3	2.7	6.5	3.5	0.0	0.0	0.0	0.0	0.0	30.1	2단계
2010	0.0	0.0	7.7	7.1	1.2	2.9	6.0	3.5	0.0	0.0	0.0	0.0	0.0	28.3	2단계
2011	0.0	0.0	7.7	4.8	0.5	3.1	6.0	3.0	0.0	0.0	0.0	0.0	0.0	25.0	2단계
2012	0.0	0.0	6.6	5.0	0.9	3.3	6.0	3.0	0.0	0.0	0.0	0.0	0.0	24.7	2단계
2013	0.0	0.0	7.2	3.0	1.3	1.9	4.1	4.5	0.0	0.0	0.0	0.0	0.0	22.0	2단계

연도	제도통합 (90)			관계통합 (160)										합계 (250)	통합 단계
	공동 제도와 정책 (30)	동일 화폐 사용 (30)	법제의 시장 경제 화 (30)	교역 (20)	투자 (20)	노동 (20)	무역 자유화 (20)	제도 장치 (20)	소득 수렴 (20)	이자 수렴 (10)	인플레이션 수렴 (10)	경기 변동 조화 (10)	자본 시장 통합 정도 (10)		
2014	0.0	0.0	7.5	5.3	0.6	3.4	6.0	3.5	0.0	0.0	0.0	0.0	0.0	26.2	2단계
2015	0.0	0.0	6.8	6.8	0.4	3.4	6.0	3.5	0.0	0.0	0.0	0.0	0.0	26.9	2단계
2016	0.0	0.0	6.8	1.1	0.2	0.4	0.7	3.0	0.0	0.0	0.0	0.0	0.0	12.1	1단계
2017	0.0	0.0	7.6	0.0	0.2	0.0	0.0	3.0	0.0	0.0	0.0	0.0	0.0	10.8	1단계
2018	0.0	0.0	7.6	0.2	0.3	0.0	0.5	3.5	0.0	0.0	0.0	0.0	0.0	12.1	1단계
2019	0.0	0.0	7.8	0.0	0.1	0.0	0.0	3.0	0.0	0.0	0.0	0.0	0.0	10.9	1단계
2020	0.0	0.0	7.3	0.1	0.2	0.0	0.0	3.0	0.0	0.0	0.0	0.0	0.0	10.6	1단계
2021	0.0	0.0	7.2	0.0	0.1	0.0	0.0	3.0	0.0	0.0	0.0	0.0	0.0	10.3	1단계

〈그림 2-2〉 경제영역 구조통합지수 연도별 추이



[참조 1] 북한소득 자료를 구매력 평가지수(Purchasing Power Parity: PPP) 기준으로 할 경우 경제통합지수 산정

- 북한의 국민소득 자료를 김병연·김석진·이근(2007)과 김병연(2008)⁵⁾이 추정된 구매력평가지수(Purchasing Power Parity: PPP) 국민소득(GDP) 통계를 사용할 경우 경제통합지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 구매력평가 소득자료를 기준으로 지수를 산정할 경우 ‘투자부문’과 ‘소득수렴 부문’에서 UN명목소득 기준으로 산정한 지수와 차이를 나타내게 된다.
- 2021년 투자부문에서는 2020년과 같은 0.1점을 부여한다.

〈표 2-12〉 투자부문 상대점수 (구매력 평가소득 기준)

(단위: 백만 달러, %)

연도	정부투자(남북협력기금)a		민간 투자액b	남한 전체 투자액(A)	북한의 국민소득c(B)	남한투자 비중 C=(A/B)*100	상대점수 D=(C*14)/5.87
	경제협력분야기반조성(경상지출)	남북교류협력지원(융자)					
1989					45,160	0.00	0.0
1990					41,979	0.00	0.0
1991					40,437	0.00	0.0
1992					36,293	0.00	0.0
1993					34,198	0.00	0.0
1994					34,272	0.00	0.0
1995					31,065	0.00	0.0

5) Byung-Yeon Kim, Suk Jin Kim and Keun Lee, "Assessing the economic performance of North Korea, 1954-1989: Estimates and growth accounting analysis",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vol. 35 (2007), pp. 564-582 ; 김병연, "북한의 국민소득: 추정치와 평가", 『수은해외경제』, 2008 가을호, pp. 19-42.

연도	정부투자(남북협력기금) ^a		민간 투자액 ^b	남한 전체 투자액 (A)	북한의 국민소득 ^c (B)	남한투자 비중 C=(A/B)*100	상대점수 D=(C*14)/5.87
	경제협력분 야기반조성 (경상지출)	남북교류 협력지원 (용자)					
1996	4.9		5.0	9.9	30,206	0.03	0.1
1997			1.0	1.0	26,826	0.00	0.0
1998			1.0	1.0	27,801	0.00	0.0
1999			125.0	125.0	30,407	0.41	1.4
2000	14.6		22.0	36.6	28,539	0.13	0.4
2001	89.9	46.0	28.0	163.9	30,442	0.54	1.8
2002	36.8	35.7	12.0	84.5	30,757	0.27	0.9
2003	76.3	54.7	8.0	139.0	31,643	0.44	1.5
2004	76.0	81.4	12.0	169.4	32,020	0.53	1.8
2005	204.5	56.8	45.0	306.3	33,567	0.91	3.1
2006	152.1	71.0		223.1	33,718	0.66	2.3
2007	172.5	140.0		312.5	32,294	0.97	3.3
2008	110.0	36.6		146.6	33,295 ^d	0.44	1.5
2009	41.5	24.0		65.5	32,995	0.20	0.7
2010	17.7	45.2		62.9	32,830	0.19	0.7
2011	12.4	13.0		25.4	33,093	0.08	0.3
2012	23.8	22.1		45.9	33,523	0.14	0.5
2013	11.5	74.6		86.1	33,892	0.25	0.9
2014	20	22.3		42.3	34,231	0.12	0.4
2015	20.6	3.6		24.2	33,854	0.07	0.2
2016	11.5	3.2		14.7	35,175	0.04	0.1
2017	8.64	2.66		11.3	33,944	0.03	0.1
2018	18.1	2.57		20.7	32,552	0.06	0.2
2019	9.44	2.57		12.01	32,682	0.03	0.1
2020	12.84	2.57		15.4	31,211	0.04	0.1
2021	7.87	2.30		10.2	32,490	0.03	0.1

- a. 통일부, 『남북협력기금 통계』, 각년호 (1,000원 = 1달러 적용).
b. 김영훈, 2006, "남북경협 현황과 평가", 『금융경제연구』, 제281호.
c. Byung-Yeon Kim, Suk Jin Kim and Keun Lee(2007).
d. 2008년 이후의 북한국민소득은 전년도 통계에 매년 한국은행에서 산출한 북한 경제 성장률을 곱하여 구함.

○ 소득수준 수렴부문에서는 구매력평가 자료에서도 남한소득 대비 북한 소득이 10% 미만으로 상대점수는 0점을 부여한다.

〈표 2-13〉 소득수준 수렴부문 상대점수(구매력평가 소득 기준)

(단위: 달러, %)

	북한 ^a	남한 ^b	비율	상대점수
1990	2,076	8,260	25.1%	3.5
1991	1,973	9,330	21.1%	2.6
1992	1,745	10,020	17.4%	2.0
1993	1,619	10,850	14.9%	1.3
1994	1,605	11,970	13.4%	1.1
1995	1,442	13,240	10.9%	0.4
1996	1,393	14,370	9.7%	0.0
1997	1,230	15,300	8.0%	0.0
1998	1,267	14,410	8.8%	0.0
1999	1,377	16,200	8.5%	0.0
2000	1,287	17,950	7.2%	0.0
2001	1,368	19,050	7.2%	0.0
2002	1,375	20,690	6.6%	0.0
2003	1,405	21,290	6.6%	0.0
2004	1,410	22,900	6.2%	0.0
2005	1,464	24,010	6.1%	0.0
2006	1,461	25,730	5.7%	0.0
2007	1,392	27,740	5.0%	0.0
2008	1,430	28,650	5.0%	0.0
2009	1,410	28,250	5.0%	0.0
2010	1,395	30,410	4.6%	0.0
2011	1,399	31,410	4.5%	0.0
2012	1,411	32,430	4.4%	0.0
2013	1,420	32,850	4.3%	0.0
2014	1,427	33,690	4.2%	0.0
2015	1,404	35,300	4.0%	0.0
2016	1,453	36,730	4.0%	0.0
2017	1,395	38,340	3.6%	0.0
2018	1,388	40,090	3.5%	0.0
2019	1,394	43,430	3.2%	0.0
2020	1,331	43,039	3.1%	0.0
2021	1,330	47,490	2.8%	0.0

- a. Byung-Yeon Kim, Suk Jin Kim and Keun Lee(2007) ; Byung-Yeon Kim(2008).
b. World bank, "GNI per capita, PPP (current international \$)",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NY.GNP.PCAP.PP.CD, 검색일 2020.12.17>.
c. 2008년 이후 북한의 소득은 전년도 소득에 매년 한국은행에서 산출한 북한 경제 성장률을 곱하여 구함.

- 구매력평가 소득을 기준으로 한 2020년 경제영역 구조통합지수는 전년 대비 0.5점 하락한 10.4점을 기록하였고, 이는 통합단계로 1단계에 해당 하는 수치이다.

〈표 2-14〉 경제영역 구조통합지수 종합(구매력평가 소득 기준)

연도	제도통합 (90)			관계통합 (160)									합계 (250)	통합 단계	
	공동 제도와 정책 (30)	동일 화폐 사용 (30)	법제 의 시장 경제 화 (30)	교역 (20)	투자 (20)	노동 (20)	무역 자유 화 (20)	제도 장치 (20)	소득 수렴 (20)	이자 율 수렴 (10)	인플 레이션 수렴 (10)	경기 변동 조 화 (10)			자본 시장 통합 정도 (10)
1989	0.0	0.0	1.0	0.1	0.0	0.0	5.0	0.0	1.7	0.0	0.0	0.0	0.0	7.8	0단계
1990	0.0	0.0	1.0	0.1	0.0	0.0	5.0	0.0	1.1	0.0	0.0	0.0	0.0	7.2	0단계
1991	0.0	0.0	1.0	0.9	0.0	0.0	5.0	0.0	0.4	0.0	0.0	0.0	0.0	7.3	0단계
1992	0.0	0.0	2.0	1.4	0.0	0.0	5.0	0.0	0.0	0.0	0.0	0.0	0.0	8.4	0단계
1993	0.0	0.0	2.0	1.5	0.0	0.0	5.0	0.0	0.0	0.0	0.0	0.0	0.0	8.5	0단계
1994	0.0	0.0	2.0	1.9	0.0	0.0	5.0	0.0	0.0	0.0	0.0	0.0	0.0	8.9	0단계
1995	0.0	0.0	2.0	2.8	0.0	0.0	5.0	0.0	0.0	0.0	0.0	0.0	0.0	9.8	0단계
1996	0.0	0.0	2.0	2.5	0.2	0.0	5.0	0.0	0.0	0.0	0.0	0.0	0.0	9.8	0단계
1997	0.0	0.0	2.0	2.8	0.0	0.0	5.0	0.0	0.0	0.0	0.0	0.0	0.0	9.8	0단계
1998	0.0	0.0	5.0	3.0	0.0	0.0	5.0	0.0	0.0	0.0	0.0	0.0	0.0	13.0	1단계
1999	0.0	0.0	5.0	4.1	1.4	0.0	5.0	0.0	0.0	0.0	0.0	0.0	0.0	15.5	1단계
2000	0.0	0.0	5.0	4.0	0.4	0.0	5.0	5.5	0.0	0.0	0.0	0.0	0.0	19.9	1단계
2001	0.0	0.0	5.0	3.4	1.8	0.0	5.0	3.5	0.0	0.0	0.0	0.0	0.0	18.7	1단계
2002	0.0	0.0	5.5	5.0	0.9	0.0	5.0	6.5	0.0	0.0	0.0	0.0	0.0	22.9	2단계
2003	0.0	0.0	5.5	5.2	1.5	0.0	5.0	7.0	0.0	0.0	0.0	0.0	0.0	24.2	2단계
2004	0.0	0.0	6.0	4.4	1.8	0.0	6.0	6.5	0.0	0.0	0.0	0.0	0.0	24.7	2단계
2005	0.0	0.0	6.0	5.8	3.1	0.5	7.0	6.5	0.0	0.0	0.0	0.0	0.0	28.9	2단계
2006	0.0	0.0	6.5	7.0	2.3	0.7	7.0	6.0	0.0	0.0	0.0	0.0	0.0	29.4	2단계

연도	제도통합 (90)			관계통합 (160)									합계 (250)	통합 단계	
	공동 제도와 정책 (30)	동일 화폐 사용 (30)	법제 의 시장 경제 화 (30)	교역 (20)	투자 (20)	노동 (20)	무역 자유 화 (20)	제도 장치 (20)	소득 수렴 (20)	이자 율 수렴 (10)	인플 레이션 수렴 (10)	경기 변동 조 화 (10)			자본 시장 통합 정도 (10)
2007	0.0	0.0	8.3	8.5	3.3	1.4	7.0	7.5	0.0	0.0	0.0	0.0	0.0	36.0	3단계
2008	0.0	0.0	8.3	7.2	1.5	2.4	7.0	3.5	0.0	0.0	0.0	0.0	0.0	30.0	2단계
2009	0.0	0.0	8.7	7.4	0.6	2.7	6.5	3.5	0.0	0.0	0.0	0.0	0.0	29.4	2단계
2010	0.0	0.0	7.7	7.1	0.6	2.9	6.0	3.5	0.0	0.0	0.0	0.0	0.0	27.8	2단계
2011	0.0	0.0	7.7	4.8	0.3	3.1	6.0	3.0	0.0	0.0	0.0	0.0	0.0	24.9	2단계
2012	0.0	0.0	6.6	5.0	0.5	3.3	6.0	3.0	0.0	0.0	0.0	0.0	0.0	24.5	2단계
2013	0.0	0.0	7.2	3.0	0.9	1.9	4.1	4.5	0.0	0.0	0.0	0.0	0.0	21.6	2단계
2014	0.0	0.0	7.5	5.3	0.4	3.4	6.0	3.5	0.0	0.0	0.0	0.0	0.0	26.1	2단계
2015	0.0	0.0	6.8	6.8	0.2	3.4	6.0	3.5	0.0	0.0	0.0	0.0	0.0	26.8	2단계
2016	0.0	0.0	6.8	1.1	0.1	0.4	0.7	3.0	0.0	0.0	0.0	0.0	0.0	12.1	1단계
2017	0.0	0.0	7.6	0.0	0.1	0.0	0.0	3.0	0.0	0.0	0.0	0.0	0.0	10.7	1단계
2018	0.0	0.0	7.6	0.2	0.2	0.0	0.5	3.5	0.0	0.0	0.0	0.0	0.0	12.0	1단계
2019	0.0	0.0	7.8	0.0	0.1	0.0	0.0	3.0	0.0	0.0	0.0	0.0	0.0	10.9	1단계
2020	0.0	0.0	7.3	0.0	0.1	0.0	0.0	3.0	0.0	0.0	0.0	0.0	0.0	10.4	1단계
2021	0.0	0.0	7.2	0.0	0.1	0.0	0.0	3.0	0.0	0.0	0.0	0.0	0.0	10.3	1단계

2. 정치

가. 지수구성

- 정치영역의 구조통합지수를 구성하는 변인과 배점은 아래와 같다.

〈표 2-15〉 정치영역 변인들의 분류와 배점

	영역	변인	배점
정치 구조 통합	제도적 통합	· 정치 군사의 공동집행기구	30
		· 정치제도의 단일화	30
		· 정치분야 남북 법제화	30
		소계	90
	관계적 통합	· 실무정치회담	20
		· 고위급 정치회담	20
		· 군사회담	20
		· 의회회담	20
		· 대화· 회담의 정례화	10
		· 매개제도의 구성과 활성화	20
		· 정치분야 공동행사	10
		· 국제사회에서 외교군사적 협력	10
		· 군비축소	10
		·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10
· 상대체제인정 행위	10		
소계	160		
합계	250		

- 이상의 변인들에 부여된 점수를 가산하여 정치통합의 단계를 다음과 같이 11단계로 구분한다.
 - 0단계 (정치적 대화· 회담 등 교류가 없거나 있더라도 미미한 수준): 10점 이하
 - 1단계 (대화· 회담 등 교류가 있으나 빈도 및 비중이 낮음): 11-20점
 - 2단계 (대화· 회담 등 교류의 빈도· 비중이 높음): 21-40
 - 3단계 (대화· 회담 등 교류의 비중이 높으며, 교류의 의제가 포괄적): 41-60

- 4단계 (3단계+매개제도의 구성과 활동): 61-80
- 5단계 (4단계+매개제도의 정례화· 제도화 진행): 81-100
- 6단계 (5단계+매개제도의 역할 최대화): 101-130
- 7단계 (6단계+남북공동집행기구 구성과 활동): 131-160
- 8단계 (7단계+대부분의 정치활동을 공동집행기구 및 제도에 위임): 161-190
- 9단계 (8단계+모든 정치활동을 공동집행기구 및 제도에 위임): 191-220
- 10단계 (9단계+실질적인 정치통합): 221-250

- 남북통합 수준을 단계로 구분하면, 남북 접촉· 교류기(0~2단계), 남북 협력도약기(3~5단계), 남북연합기(6~8단계), 통일 완성기(9~10단계)로 구분된다. 남북통합은 3단계, 6단계, 9단계에서 질적으로 도약(take-off)한다. 마지막 실질적인 통일 시기는 남북 간 정치분야에서 민주화· 제도화· 단일화 등이 실질적으로 완전하게 실현되는 단계를 의미한다.

나. 제도통합지수

- 정치통합은 구조통합과 의식통합으로 구분하며, 구조통합은 다시 제도통합과 관계통합의 두 차원으로 구성한다.
- 먼저 제도적 측면의 정치통합, 즉 제도통합은 남북의 정치행위를 규제· 규정하는 공동의 집행기구가 구성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 공동기구가 실질적인 통치기능을 발휘하는가 하는 측면에 초점을 맞춘다. 또 남북한의 정치제도가 상호 동질화되어 있는가 하는 부분도 제도통합의 중요한 변인으로 설정한다. 정치제도의 동질화는 현실적으로 북한의 정치제도가 다원주의 정치체제로 변화하는 방향으로 남북의 정치제도가 동질화될 것으로 예상하여 구체적으로는 북한 정치제도의 민주화 정도를 측정변인으로 설정한다. 따라서 제도적 통합은 남북한간 공동집행기구(정치· 군사)

의 구성과 활성화, 남북 정치제도의 단일화, 정치 분야의 남북 공동법제화 등의 변인을 포함한다.

〈표 2-16〉 정치영역 제도적 통합의 지표와 배점

통합영역	지표	세부지표	배점
제도적 통합 (총 90점)	남북공동집행기구	남북정치공동기구	15
		남북군사공동기구	15
	남북정치제도의 단일화	북한 유일지도체계의 변화	10
		북한의 복수후보 선거	10
북한 정당결성의 자유		10	
남북한 공동법제화	북한 정치법제의 실효성	15	
	남북한 공동법제화 수준	15	

1) 남북공동정치기구의 구성과 활성화

- 정치와 군사 영역에서 각 15점씩 배정하고, 점수부여 방식은 기구구성 논의 5점, 기구구성 추진 5점, 기구의 활성화 5점으로 배정하며 각각의 요소에 대해 진전 정도와 수준에 따라 1~5점을 차별적으로 부여한다.
- 남북통합지수에서 가정한 정치 분야의 공동 집행기구란 추후 남북 연합이나 남북 연방과 같이 통합된 정치 체제로 나아가기 위해 남북의 정치 활동을 공동으로 규제하고 통제할 중앙집행기구로서, 그동안 남북 간에는 공식적인 중앙집행기구 설립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한 바 없다.
- 따라서 2021년 정치와 군사영역에서 공동정치기구의 구성에 대한 점수는 2020년과 마찬가지로 0점이다.

2) 남북한 정치제도의 단일화

- 남북한 정치제도의 단일화 변인은 수령과 당의 유일지도체계가 변화하는

가(10점), 복수후보에 의한 선거가 이루어지는가(10점), 자유로운 정당결성의 자유가 존재하는가(10점) 등을 기준으로 30점을 배정하고, 각각의 논의가 진행되는 정도, 즉 당이나 정치권에서 논의 및 토론 시작(2.5점), 부분적인 변화 발생(2.5점), 광범위한 변화 발생(2.5점), 법제화(2.5점)의 진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 2021년 북한의 정치제도는 당 공식 회의체를 통해 국정 전반을 논의하고 주요 간부들을 교체하는 등 기존의 일반적인 당국가 체제 모습을 유지하였다. 연초에는 제8차 당대회를 개최하여 국가경제발전, 인민생활 향상, 국방력 현대화 등에 매진할 것을 천명하였다.
- 비핵-평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이후 정면돌파전, 핵 억제력 강화 및 재래식 국방력 현대화 등이 강조된 가운데 국가경제발전, 경제건설 총력 집중 등 경제의 중요성이 꾸준히 커지는 방향의 시도가 지속해서 이뤄졌다. 이는 북한 사회주의 체제 정당성의 세 가지 자원(군사, 정치, 경제)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움직임들은 당에 의한 통치를 중심으로 제도화 되어가는 양상을 띠지만 이것이 민주주의 체제의 경쟁적 선거 도입과 같은 방향의 변화는 아니기 때문에 지난 2018년 이후의 운영 방식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2021년 정치제도 단일화 부분의 점수는 2020년과 마찬가지로 1.5점이다.

3) 남북한 공동법제화

- 남북한 정치 관련 공동법제화는 크게 법제화의 수준(15점)과 법제의 실효성(15점)으로 구분된다. 정치분야 공동 법제화 수준은 다시 북한의 법제화 수준(5점), 남북한 간 법제의 수렴도(5점), 남북한 공동법제의 구속력 수준(5점) 등 세 항목으로 구성하며, 2022년 6월~7월 10명의 북한법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전문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21년 정치분야 남북한 법제화 수준은 15점 만점 중 5.1점이다.

〈표 2-17〉 북한 정치관련 법제화 정도

세부 지표	평균점수 (항목별 10점 만점)	상대점수 (항목별 5점 만점)	법제화 수준 (합계/15점 만점)
정치분야 북한의 법제화 수준	4.8	2.4	5.1/15
정치분야 남북간 법제의 수렴도	2.7	1.4	
정치분야 남북 공동법제의 구속력	2.6	1.3	

■ 법제의 실효성은 북한헌법에 명시된 정치적 민주화 관련 기본법 조항들이 실제로 현실사회에서 어느 정도 보장되는가의 여부로 판단한다. 측정 지표와 배점은 아래와 같다. 문헌조사와 북한이탈주민(탈북자) 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 15점 만점 중 피선거권이나 정치적 자유에서는 여전히 억압적인 반면, 구속과 체포의 법적 보장 측면에서는 형법과 관련법이 개정되어 2004년부터 조금 나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2020년과 비교할 때 특별히 나아진 것이 없으므로 2021년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서는 1.0점을 부여한다.

〈표 2-18〉 북한 정치관련 법제의 실효성 정도

구분	헌법조항(98년)	실효성 점수
피선거권	17살 이상의 모든 국민은 성별, 민족별, 직업, 거주기간, 재산과 지식정도, 당별, 정권, 신앙에 관계 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 받을 권리를 가진다(제66조)	0/5
정치적 자유	국민은 언론, 출판,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조건을 보장한다(제67조)	0/5
구속·체포의 법적 보장	국민은 인신과 주택의 불가침, 서신의 비밀을 보장받는다.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국민을 구속하거나 체포할 수 없으며 살림집을 수색할 수 없다(79조)	1/5
합계		1/15

※ 실효성 점수는 실효성이 '전혀 없다'=0점, '거의 없다'=1점, '약간 있다'=2점, '보통 이상이다'=3점, '상당히 크다'=4점, '전면적 효력이 있다'=5점으로 구분

■ 이상으로 남북한의 공동법제화 변인에 대한 점수를 종합해 보면 다음의 〈표2-19〉와 같다. 북한의 법제화 수준, 남북한 법제의 수렴도 및 공동법제의 구속력에 대해 법학자들이 평가한 점수에 북한법제의 실효성을 합한 점수를 산출한다. 2021년의 경우, 남북한 공동법제화 수준은 남북의 법제화 점수 5.1점과 북한법제의 실효성 1점을 합하여 최종 점수는 6.1점이 된다. (1989~2007년 기간의 점수 산출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남북통합지수 1989~2007」 참고, 2008년 이후는 연도별 남북통합지수 보고서 참고)

〈표 2-19〉 남북한 공동법제화 수준

	법제화 수준 (15)	북한법제 실효성 (15)	가중치 총점
1989	1.0	0	1
1990	1.0	0	1
1991	1.0	0	1
1992	2.0	0	2
1993	2.5	0	2.5
1994	2.6	0	2.6
1995	3.1	0	3.1
1996	3.2	0	3.2
1997	3.3	0	3.3
1998	3.8	0	3.8
1999	4.3	0	4.3
2000	4.4	0	4.4
2001	4.5	0	4.5
2002	4.6	0	4.6
2003	4.7	0	4.7
2004	5.0	1	6.0
2005	5.1	1	6.1
2006	5.2	1	6.2
2007	5.3	1	6.3
2008	5.3	1	6.3
2009	5.4	1	6.4
2010	4.8	1	5.8
2011	4.8	1	5.8

	법제화 수준 (15)	북한법제 실효성 (15)	가중치 총점
2012	4.5	1	5.5
2013	4.9	1	5.9
2014	4.9	1	5.9
2015	4.5	1	5.5
2016	4.8	1	5.8
2017	5.8	1	6.8
2018	6.0	1	7
2019	6.2	1	7.2
2020	5.9	1	6.9
2021	5.1	1	6.1

4) 제도통합지수 종합

- 정치영역의 제도통합지수는 남북공동집행기구 및 남북한 정치체도의 단일화, 남북한 공동법제화 수준의 합계로 산정된다. 2021년에는 남북간의 공동집행기구에 관한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으므로 공동집행기구 점수는 0점을 부여한다. 다만 북한 내부에서 군의 중요성이 점차 감소하고 당에 의한 정치가 제도화되고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의 향상을 중시하는 흐름이 지속된 것을 고려해 2021년 단일제도화 점수는 작년과 같은 1.5점을 부여한다. 남북한 공동법제화 수준은 법제화 측면과 실효성 측면을 합한 6.1점을 부여한다. 위의 점수를 나타낸 제도통합지수는 아래 <표 2-20>과 같다.

<표 2-20> 정치영역 제도통합지수 종합

	공동집행기구 (30)	단일제도화 (30)	공동법제화 (30)	합계 (90)
1989	0	0	1.0	1.0
1990	0	0	1.0	1.0
1991	0	0	1.0	1.0
1992	0	0	2.0	2.0
1993	0	0	2.5	2.5
1994	0	0	2.6	2.6

	공동집행기구 (30)	단일제도화 (30)	공동법제화 (30)	합계 (90)
1995	0	0	3.1	3.1
1996	0	0	3.2	3.2
1997	0	0	3.3	3.3
1998	0	0	3.8	3.8
1999	0	0	4.3	4.3
2000	0	0	4.4	4.4
2001	0	0	4.5	4.5
2002	0	0	4.6	4.6
2003	0	0	4.7	4.7
2004	0	0	6.0	6.0
2005	0	0	6.1	6.1
2006	0	0	6.2	6.2
2007	0	0	6.3	6.3
2008	0	0	6.3	6.3
2009	0	0.5	6.4	6.9
2010	0	1.0	5.8	6.8
2011	0	1.0	5.8	6.8
2012	0	1.0	5.5	6.5
2013	0	0.5	5.9	6.4
2014	0	0.5	5.9	6.4
2015	0	0.5	5.5	6.0
2016	0	0.5	5.8	6.3
2017	0	0.5	6.8	7.3
2018	0	1.5	7.0	8.5
2019	0	1.5	7.2	8.7
2020	0	1.5	6.9	8.4
2021	0	1.5	6.1	7.6

다. 관계통합지수

- 정치영역의 관계통합은 남북 간의 실무정치회담, 고위급정치회담, 군사회담, 의회회담, 정치분야 공동행사, 위원회 존재 및 합의문·공동선언 발표 등 대개제도의 구성과 활성화, 대화·회담의 정례화, 국제사회에서

의 외교군사적 협력, 군비축소, 군사적 긴장완화 및 군사통합 정도, 상대 체제 인정행위 등의 변인을 포함한다.

- 각종 정치회담이 관계통합의 변인으로 많이 포함된 것은 다양한 수준에서의 정치대화와 협상, 합의 등의 활동이 남북 간 정치관계를 안정적으로 형성함으로써 공동정치기구의 구성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는 유력한 행위가 되기 때문이다. 정치, 외교, 군사 분야에서 이러한 대화와 회담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어 있는가 하는 측면과 그러한 대화와 회담이 위원회 구성 및 정례화 등으로 어느 정도 제도화되어 가고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변인을 포함한다.

1) 실무정치회담

- 2021년도에는 실무정치회담이 개최되지 않았다.

〈표 2-21〉 실무정치회담 연도별 개최 횟수 및 점수

	실무정치회담(횟수)	가중치(×0.2점)
1989	5	1.0
1990	11	2.2
1991	10	2.0
1992	77	15.4
1993	4	0.8
1994	10	2.0
1995	0	0.0
1996	0	0.0
1997	0	0.0
1998	2	0.4
1999	3	0.6
2000	13	2.6
2001	0	0.0
2002	2	0.4
2003	1	0.2
2004	0	0.0

	실무정치회담(횟수)	가중치(×0.2점)
2005	6	1.2
2006	3	0.6
2007	9	1.8
2008	0.2	0.0
2009	4	0.8
2010	0	0.0
2011	0	0.0
2012	0	0.0
2013	1	0.2
2014	1	0.2
2015	0	0.0
2016	0	0.0
2017	0	0.0
2018	7	1.4
2019	0	0.0
2020	0	0.0
2021	0	0.0

※ 자료 : 남북회담 홈페이지 <http://dialogue.unikorea.go.kr>

2) 고위급 정치회담

- 2021년도에는 고위급 정치회담이 개최되지 않았다.

〈표 2-22〉 고위급 정치회담 연도별 횟수 및 점수

	정상회담	총리회담	장관급회담	차관급회담	횟수 총계	가중치 총점
가중치	×5점	×2점	×1.5점	×0.8점		
1989					0	0
1990		3			3	6
1991		2			2	4
1992		3			3	6
1993					0	0
1994					0	0
1995					0	0

	정상회담	총리회담	장관급회담	차관급회담	횟수 총계	가중치 총점
1996					0	0
1997					0	0
1998					0	0
1999				2	2	1.6
2000	1		4		5	11
2001			2		2	3.0
2002			2		2	3.0
2003			4		4	6
2004			2		2	3.0
2005			3	1	4	5.3
2006			2		2	3.0
2007	1	1	2		4	10
2008	0	0	0	0	0	0
2009	0	0	0	0	0	0
2010	0	0	0	0	0	0
2011	0	0	0	0	0	0
2012	0	0	0	0	0	0
2013	0	0	0	0	0	0
2014	0	0	1	0	1	1.5
2015	0	0	1	1	2	2.3
2016	0	0	0	0	0	0
2017	0	0	0	0	0	0
2018	2.5	0	8	0	11	20
2019	0	0	0	0	0	0
2020	0	0	0	0	0	0
2021	0	0	0	0	0	0

* 2018년 5월 26일 남북정상회담은 약식회담으로 진행되어 1/2의 점수 부여하며 산출된 가중치 점수는 24.5점이나 배점 체계상의 만점이 20점이므로 20점을 부여함.

3) 군사회담

- 2021년도에는 군사분야 회담이 개최되지 않았다.

〈표 2-23〉 군사분야 회담 연도별 개최 횟수 및 점수

	국방장관회담	장성급군사회담	군사실무회담	횟수 총계	가중치 총점
가중치	×2점	×1점	×0.4점		
1989				0	0
1990				0	0
1991				0	0
1992				0	0
1993				0	0
1994				0	0
1995				0	0
1996				0	0
1997				0	0
1998				0	0
1999				0	0
2000	1		3	4	3.2
2001			2	2	0.8
2002			9	9	3.6
2003			6	6	2.4
2004		2	3	5	3.2
2005			3	3	1.2
2006		2	2	4	2.8
2007	1	3	7	11	7.8
2008	0	0	2	2	0.8
2009	0	0	0	0	0
2010	0	0	2	2	0.8
2011	0	0	1	1	0.4
2012	0	0	0	0	0
2013	0	0	0	0	0
2014	0	0	1	1	0.4
2015	0	0	0	0	0
2016	0	0	0	0	0
2017	0	0	0	0	0
2018	0	3	1	4	3.4
2019	0	0	0	0	0
2020	0	0	0	0	0
2021	0	0	0	0	0

※ 자료: 통일부 홈페이지 unikorea.go.kr

4) 의회회담

- 2021년에 남북간 국회 교류나 의회 회담, 정당 회담은 개최되지 못했다. 따라서 점수는 0점이며, 정당 교류와 정치인 교류도 없었으므로 총 점수는 0점이다.

〈표 2-24〉 의회회담 연도별 개최 횟수 및 점수

	국회회담	의회교류	정당간 회담	정당교류 정치단체 교류	실무회담 실무접촉	정치인 교류	가중치 총점
가중치	×4점	×3점	×2점	×1점	×0.4점	×0.2점	
1989					2		0.8
1990					1		0.4
1991						1	0.2
1992							0
1993							0
1994							0
1995							0
1996							0
1997							0
1998							0
1999						1	0.2
2000						3	0.6
2001						2	0.4
2002						3	0.6
2003						2	0.4
2004					1	4	1.2
2005				1		2	1.4
2006			1			3	2.6
2007						9	1.8
2008	0	0	0	0	0	0	0
2009	0	0	0	0	0	1	0.2
2010	0	0	0	1	0	0	0.2
2011	0	0	0	0	0	0	0
2012	0	0	0	0	0	0	0
2013	0	0	0	0	0	0	0

	국회회담	의회교류	정당간 회담	정당교류 정치단체 교류	실무회담 실무접촉	정치인 교류	가중치 총점
2014	0	0	0	0	0	0	0
2015	0	0	0	0	0	0	0
2016	0	0	0	0	0	0	0
2017	0	0	0	0	0	0	0
2018	0	0	0	0	0	0	0
2019	0	0	0	0	0	0	0
2020	0	0	0	0	0	0	0
2021	0	0	0	0	0	0	0

〈표 2-25〉 정당교류 정치단체 교류 관련 점수

정당교류 정치단체 교류	가중치
1. 집권여당 간 교류	×1점
2. 제1야당 간 교류	×0.4점
3. 군소정당 간 교류	×0.2점

5) 정치분야 공동행사

- 2021년에는 공동행사가 개최되지 않았으므로 0점이다

〈표 2-26〉 정치분야 공동행사

	3·1절 공동행사	6·15 공동행사	8·15 공동행사	10·3 개천절 공동행사	가중치 총점
2001	-	(민간)	(민간)-평양		0
2002	-	(민간)	(민간)-서울		0
2003	(민간)-서울	미개최	(민간)-평양		0
2004	-	(민간)-인천	조문파동 무산		0
2005	-	남측 당국대표단 (40명) -평양	북측 당국대표단 (17명) -서울		5
2006	-	북측 당국대표단 (19명), 남측 당국대표단 (13명) -광주	수해로 미개최		2.5
2007	-	남측 국회의원 10명 -평양	을지훈련 등 이유 북한불참-미개최		2.5

	3·1절 공동행사	6·15 공동행사	8·15 공동행사	10·3 개천절 공동행사	가중치 총점
2008	-	-	-	-	0
2009	-	-	-	-	0
2010	-	남측 공동행사 불허 각기 공동행사	-	-	0
2011	-	-	-	-	0
2012	-	-	-	-	0
2013	-	-	-	-	0
2014	-	-	-	-	0
2015	-	-	-	-	0
2016	-	-	-	-	0
2017	-	-	-	-	0
2018	-	-	-	-	0
2019	-	-	-	-	0
2020	-	-	-	-	0
2021	-	-	-	-	0

※ 자료 : 김치관, 「6.15 공동선언 이후 남북공동행사에 관한 연구」 경남대 북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통일부, 『통일백서』 2006, 2007, 2008; 2009년-2021년 공동행사 참여여부는 통일부 홈페이지 (<http://www.unikorea.go.kr>) 보도자료와 신문기사 참조

6) 매개제도의 구성과 활성화

- 매개제도의 구성과 활성화는 위원회, 회담체 등 매개제도의 존재(10점), 매개제도의 활동 결과로 나타난 합의서 및 공동보도문의 횟수(10점)로 평가한다. 우선, 남북 정치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구성할 수 있는 매개제도는 정치, 군사, 외교(핵통제)의 세 영역에 대한 위원회나 회담체의 존재를 의미한다. 정치공동위원회, 군사공동위원회, 외교공동위원회의 형태로 매개기구가 존재할 수 있고, 혹은 장관급회담, 장성급회담 등의 회담체 형태로 존재할 수도 있다.
- 따라서 매개제도의 영역을 정치회담, 군사회담, 외교회담의 3영역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에서 회담기구(위원회 또는 회담체)의 존재 유무로 점

수를 부여한다. 매개기구의 배점은 정치, 군사, 외교의 영역에서 각각 3점씩 부여하여 총 9점을 주고, 나머지 1점을 매개기구의 존재가 안정적으로 제도화되어 있다고 판단되면 추가로 1점을 부여하는 방식을 취한다.

- 2018년, 세 차례에 걸친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 위원회도 구성되었고, 9월 14일에는 가시적인 매개제도로서 상설 연락기구인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사무처가 설립되어 2019년에도 운영되면서 각종 회담, 협의 업무, 교류 협력을 지원했다. 하지만 2020년 1월부터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발생한 후 공동연락사무소 운영이 잠정 중단되었고, 같은 해 6월에 북한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여 폐쇄되었다.
- 이후 남북 간 정상회담이나 공동위원회 개최, 그에 따른 공동보도문 등의 공표는 이뤄지지 않았다. 따라서 각 매개제도의 가중치를 반영한 2021년 매개제도의 구성과 활동 부문 점수는 0점이다.

〈표 2-27〉 매개제도의 구성과 활동 부문 점수

	공동위원회	합의서	공동보도문	가중치 총점
가중치	×3점	×0.5점	×0.3점	
1989	0	0	0	0
1990	0	1	0	0.5
1991	0	1	2	1.1
1992	3	10	1	14.3
1993	0	0	0	0
1994	0	2	0	1
1995	0	1	0	0.5
1996	0	0	0	0
1997	0	0	0	0
1998	0	0	0	0
1999	0	1	0	0.5

	공동위원회	합의서	공동보도문	가중치 총점
2000	2	7	5	11
2001	2	0	1	6.3
2002	2	0	4	7.2
2003	2	0	4	7.2
2004	2	1	2	7.1
2005	2	2	4	8.2
2006	2	1	1	6.8
2007	2	5	3	9.4
2008	1	0	0	3
2009	0	0	1	0.3
2010	0	0	0	0
2011	0	0	0	0
2012	0	0	0	0
2013	0	0	0	0
2014	0	0	1	0.3
2015	0	0	2	0.6
2016	0	0	0	0
2017	0	0	0	0
2018	1	4	6	4.8
2019	1	0	0	3
2020	0	0	0	0
2021	0	0	0	0

7) 대화·회담의 정례화

- 2021년에는 정치분야 회담이 개최되지 않았다. 이에 대화·회담의 정례화 부문에 대한 평가점수는 0점이다.

〈표 2-28〉 대화·회담의 정례화 수준 평가 방법 (2010년 수정)

점수	정례화 수준	설명
0점	전혀 되어있지 않음	회담이 정기적으로 개최되지 않으며 다음 회담 일정도 잡혀 있지 않음. 빠른 시일 내에 혹은 몇 개월 안에 접촉을 재개하기로 하는 방식
2.5점	약간 정례화	정기적 회담 개최가 문서로 약속되어 있으나 실행되지는 않으며 다음 회담 일정을 문서화하는 방식으로 진행
5점	중간정도(보통) 정례화	회담이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편이며 다음 회담 일정이 문서화되어 있음.
7.5점	상당한 수준으로 정례화	정기적 개최 방식으로 회담이 진행되는 비중이 높음.
10점	완벽한 수준으로 정례화	정례화된 회담 개최 방식이 안정적으로 진행됨.

* 2010년부터 이 변인에 대한 배점을 20점에서 10점으로 줄였음.

〈표 2-29〉 대화·회담의 정례화 부문 점수

	정례화 수준 (10)		정례화 수준 (10)
1989	0	2006	2.5
1990	2.5	2007	2.5
1991	2.5	2008	0
1992	2.5	2009	0
1993	0	2010	0
1994	0	2011	0
1995	0	2012	0
1996	0	2013	0
1997	0	2014	0
1998	0	2015	0
1999	0	2016	0
2000	2.5	2017	0
2001	2.5	2018	2.5
2002	2.5	2019	0
2003	5	2020	0
2004	2.5	2021	0
2005	2.5		

8) 국제사회에서의 외교군사적 협력

- 국제사회에서 남북 외교군사적 협력은 4자회담이나 6자회담, 아세안지역 안보포럼(ARF), 제네바군축회의(CD) 등의 국제적 외교·군사회담에 남북이 함께 참여한 경우, 그리고 유엔이나 국제기구의 회의에서 남북한이 상대방을 지지하는 발언이나 선거지원 등을 포함한다. 외교군사 분야의 협력은 1회당 1점을 부과하고 비군사외교 분야에서 남북의 국제협력은 0.5점으로 처리하며 총 10점을 만점으로 한다.
- 2021년에는 남북 간 국제사회의 외교군사적 분야에서 협력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따라서 2021년 국제사회에서의 남북한 외교군사적 협력은 0점이다.

〈표 2-30〉 국제사회에서 외교군사적 협력 횟수 및 점수

	4자회담	6자회담	ARF	CD	기타	가중치 총점
가중치	×0.5점	×0.5점	×0.5점	×0.5점	×0.2점	
1989						0
1990						0
1991					2	0.4
1992					2	0.4
1993					3	0.6
1994					1	0.2
1995						0
1996				1	1	0.7
1997		7			1	3.7
1998		4			1	2.2
1999		5				2.5
2000			1		1	0.7
2001			1			0.5
2002			1			0.5
2003		1	1			1.0
2004		4	1			2.5
2005		3	1		2	2.4

	4자회담	6자회담	ARF	CD	기타	가중치 총점
2006		1	1			1.0
2007		4	1		2	2.9
2008		2	1		0	1.5
2009			0			0
2010			0			0
2011			2		1	1.2
2012			0			0
2013	0	0	0	0	0	0
2014	0	0	0	0	0	0
2015	0	0	0	0	0	0
2016	0	0	0	0	0	0
2017	0	0	0	0	0	0
2018	0	0	0	0	0	0
2019	0	0	0	0	0	0
2020	0	0	0	0	0	0
2021	0	0	0	0	0	0

※ 자료 : 『1999년 국방백서』, 245~246쪽; 『2003참여정부국방정책』, 165~170쪽;

※ 자료 : 『2004 국방백서』, 46~47쪽.

9) 군축

- 군축변인은 남북한 병력 수 190만 명 이상을 0점으로 하고 40만 명을 10점으로 하여 병력감축 수에 따라 비례로 점수를 부여한다. 공식적으로 공개된 2021년 남북한 통합병력 수는 178만여 명으로 병력감축 수준은 0.8점이다. 2018년 이후부터 나타난 병력감축 수준의 2배 오른 점수이다. 이는 남한 정부의 부대구조 개편, 전력화 계획 등에 따른 병력감축이 반영된 결과이다.

〈표 2-31〉 남북한의 연도별 병력 수 및 병력감축 수준 부문 점수

	남한 병력	북한 병력	병력 합계 (a)	190만명-a (b)	b÷15만
1989	65만명	98만명	163만명	27.0	1.8
1990	65.5만명	99만명	164.5만명	25.5	1.7
1991	65.5만명	99.5만명	165만명	25.0	1.7

	남한 병력	북한 병력	병력 합계 (a)	190만명-a (b)	b÷15만
1992	65.5만명	101만명	166.5만명	23.5	1.6
1993	65.5만명	103만명	168.5만명	21.5	1.4
1994	65.5천명	104만명	169만명	21.0	1.4
1995	65.5천명	104만명	169만명	21.0	1.4
1996	69만명	105.5만명	174.5만명	15.5	1.0
1997	69만명	114.7만명	183.7만명	6.3	0.4
1998	69만명	116만명	185만명	5.0	0.3
1999	69만여명	117만여명	186만여명	4.0	0.3
2000	69만여명	117만여명	186만여명	4.0	0.3
2001	69만여명*	117만여명*	186만여명	4.0	0.3
2002	69.1만여명	117만여명	186.1만여명	3.9	0.3
2003	69.1만여명*	117만여명*	186.1만여명	3.9	0.3
2004	68.1만여명	117만여명	185.1만여명	4.9	0.3
2005	68.1만여명*	117만여명*	185.1만여명	4.9	0.3
2006	67.4만여명	117만여명	184.4만여명	5.6	0.4
2007	67.4만여명*	117만여명*	184.4만여명	5.6	0.4
2008	65.5만여명	119만여명	184.5만여명	5.5	0.4
2009	65만여명*	122만여명	187만여명	3.0	0.2
2010	65만여명	119만여명	184만여명	6.0	0.4
2011	65만여명	119만여명	184만여명	6.0	0.4
2012	63.9만여명	119만여명	182.9만여명	7.1	0.5
2013	63.3만명	119만여명	182.3만여명	7.7	0.5
2014	63만여명	120만여명	183만여명	7.0	0.5
2015	63만여명	120만여명	183만여명	7.0	0.5
2016	62.5만여명	128만여명	190.5만여명	-.05	0.0
2017	59.9만여명	128만여명	187.9만여명	2.1	0.1
2018	59.9만여명	128만여명	187.9만여명	2.1	0.1
2019	55.5만여명	128만여명	183.5만여명	6.5	0.4
2020	55.5만여명	128만여명	183.5만여명	6.5	0.4
2021	50만여명	128만여명	178만여명	12	0.8

* 2001~2003년은 국방백서 발간 중단으로 국방정책 소개 책자 참고

※ 자료: 1988~2000년 격년별 <국방백서>; 2004~2021년 격년별 <국방백서>

10)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점수는 상호 군사적 대결 혹은 긴장고조를 기준으로 한 평가로 2010년에 만들어진 항목이다. 신실한 군사적 긴장완화 관련부문 점수는 다음 <표 2-32>와 같이 배점을 정한다.
-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점수는 군사적 긴장 및 상호 대치가 없는 상태에 기본점수 5점을 부여하고 긴장의 고조에 따라 점수를 낮추고 상호통합의 정도가 증가하는 데 따라 점수를 높이는 방식으로 계산된다. 전면전에 돌입한 상태를 최저점인 0점으로 계산하고 군사적 대결과 불신이 해소된 상호통합도가 완벽한 상태를 최고점인 10점으로 기록한다. 이 항목은 시간의 추이에 따라 긴장완화 혹은 긴장고조로 상호통합의 정도가 순행 또는 역행할 수 있는 현실을 반영할 수 있다. 1989년부터 2010년까지 이 부문의 점수가 추가되었으며 신설 항목을 위해 정례화 점수를 10점으로 축소하고 새롭게 10점을 확보하였다. 또한 점수가 새롭게 변화되면서 정치분야의 관계적 통합지수 역시 총점이 변화되었다.
-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항목을 새롭게 개발한 것은 상대체제 인정행위를 전적으로 법률에 근거하여 평가해오던 기존의 평가가 현실과 괴리가 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표 2-32>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의 배점 (2010년 신설)

점수	내용
10점	군사적 협력이 완벽히 이루어진 상태임
9.5점	군사적 협력이 거의 이루어진 상태임
9점	군사적 대치 상태가 현저히 완화되고 군사적 협력이 추진되어 중요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 상태임
8.5점	군사적 대치 상태가 완화되고 군사적 협력이 추진되어 일부 성과를 보이고 있는 상태임
8점	군사적 대치 상태의 완화를 위한 제도화가 추진되어 현저한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군사적 협력이 시도되는 상태임
7.5점	군사적 대치 상태의 완화를 위한 제도화가 추진되어 중요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 상태임

점수	내용
7점	군사적 대치 상태의 완화를 위한 제도화가 추진되어 일부 성과를 보이고 있는 상태임.
6.5점	군사적 대치 상태의 완화를 위한 제도화가 보다 집중적으로 시도되는 상태임.
6점	군사적 대치 상태의 완화를 위한 제도화가 시도되는 초기 상태임.
5.5점	군사적 대치 상황은 지속되나 상대방에 대한 의도적 긴장 유발 행위는 전혀 일어나고 있지 않은 상태임.
5점	군사적 대치 상황은 지속되나 상대방에 대한 의도적 긴장 유발 행위는 거의 일어나고 있지 않은 상태임.
4.5점	라디오, 신문, 확성기 방송, 전단 살포 등을 통한 상대방에 대한 심리전을 전개하는 긴장 상태임.
4점	공식 성명, 기자회견 등을 통한 상호 구두위협을 통한 긴장 조성의 상태임.
3.5점	선박 나포, 억류 등과 같은 사건을 통해 보다 직접적인 일방적 행위가 일어나는 긴장 상태임.
3점	전방에서의 전투부대 재배치 등 군사 이동 및 동원이 일어나고 상호 경계선에 대한 침범과 핵공격 위협이 벌어지는 긴장 상태임.
2.5점	상대방 영토에 대한 총격 및 포격이 일어나는 긴장 상태임.
2점	일방적 사격 및 포격이 아닌 공격 및 대응에 의한 교전이 벌어지는 긴장 상태로, 사상자가 0~10명에 이르는 경우임. 미사일 발사 등 긴장 조성 행위를 포함
1.5점	일방적 사격 및 포격이 아닌 공격 및 대응에 의한 교전이 벌어지는 긴장 상태로, 사상자가 10~50명에 이르는 경우임.
1점	일방적 사격 및 포격이 아닌 공격 및 대응에 의한 교전이 벌어지는 긴장 상태로, 사상자가 50명 이상에 이르는 경우임. 핵실험 등 긴장 조성 행위를 포함.
0.5점	생화학무기의 제한적인 사용, 전쟁 선언, 영토의 일부 점령 등이 일어나며 기간 내 (지속적인) 국지적 충돌 및 전투가 벌어지는 상태임.
0점	군사적 긴장과 대치에서 전면적인 전쟁 국면에 돌입한 상태임.

〈표 2-33〉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부문 점수

연도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10점)
1989	4
1990	4
1991	4
1992	2
1993	3
1994	3
1995	3.5
1996	1
1997	2.5
1998	3.5
1999	1.5

연도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10점)
2000	4
2001	4
2002	2
2003	4
2004	4.5
2005	5
2006	4
2007	4.5
2008	2
2009	1.5
2010	1
2011	2.5
2012	2.5
2013	1
2014	2
2015	2
2016	1
2017	1
2018	6
2019	4
2020	4
2021	4

※ 자료: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점수의 근거에 대해서는 연도별 남북통합지수 보고서 참고. 연도별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의 내용에 대해서는 통일부, 남북관계 주요일지, 통일연구원, 남북관계 연표 참고.

- 2021년에는 2020년과 유사하게 남북관계가 진전되지 못했다. 미국의 바이든 정부의 새로운 대북 정책이 수립되고 미중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남북관계는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였으나 남북간 통신연락선 복원이나 종전선언과 관련된 협상 재개의 노력이 있었다. 하지만 한편으론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적 압력이 강화되고, 다른 한편으론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지속되면서 본격적인 대화 재개나 적극적 관계 개선 노력은 실현되지 못했다.

- 1월에는 북한은 2016년의 제 7차 당대회에 이어 5년만에 제 8차 당대회를 개최하며 제재와 경제난, 자연재해 등으로 북한이 처한 위기 상황에 대한 “정면돌파전”을 선언하며 결의를 다졌다.
- 2월에 WHO와 UNICEF는 북한 보건성과 함께 북한에 대한 백신 지원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고, 대통령은 3.1절 기념사를 통해 방역·보건 협력을 통해 남북간 협력을 강조했다.
- 3월에는 미국의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대아시아 정책의 방향이 드러나면서 쿼드 정상회의가 개최되었고, 미중간 첫 고위급 회담이 열리며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미중간의 긴장구도가 여전히 이어졌다.
- 이에 북한은 2018~2019년과 같은 우호적 남북관계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담화와 함께 발사체와 전술 유도탄 등을 발사했고 8월에 개최될 도쿄 올림픽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공표 했다.
- 4월말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가 완료되면서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 이어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되었으며 한미간 한반도 비핵화, 북한 인권문제 개선과 인도적 지원에 관한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고, 한미 미사일 지침을 종료하기로 합의했다.
- 북미간 상호 입장을 좁히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북한은 한편으로는 유엔 고위급 정치포럼에서 자발적 국가별 검토(Voluntary National Review)를 발표하며 유엔 등 국제기구가 수행하는 지속가능한 발전 프로그램에 대한 우호적 관심을 표명하였다. 하지만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 진행을 비난하며 9월에 순항 미사일과 탄도 미사일을 연이어 발사 했다.
- 9월에는 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 30주년을 맞아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다시 한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북한은 한국과 미국이 제안한 종전선언 구상에 대해 관심을 보이며 남북간 정상회담도 가능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가 연이어 회담을 가졌지만 북한은 9월말부터 10월에 걸쳐 화성-8형 미사일 및 SLBM을 발사하였으며 대화는 재개되지 못했다.
- 12월에 미국 정부는 다음 해 1월의 베이징 올림픽을 외교적으로 보이콧하려는 움직임을 보였고 미중관계 긴장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유엔총회가 채택한 북한인권결의안에 북한은 비난 담화를 공표했고 한국과 미국 정부가 제안한 종전선언 안에 대해 미국 내부에서는 공화당의 반대와 민주당의 지지성명이 엇갈렸다.
- 연말에 이르러서는 한국의 국내 정치가 2021년 대선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더 이상의 적극적 대북 정책은 시도되지 못한 채로 2021년이 마무리되었다. 전반적으로 2021년은 미국의 정권교체에 이은 대아시아, 대북 정책의 정립이 전반적인 대외 정세를 규정한 상황에서 남북간에 대화를 재개하려는 상호 노력도 있었지만 미사일 발사나 인권 결의안 등의 추가적 긴장, 갈등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려는 노력이 실현되지 못한 채로 전반적으로 상황을 관리하는 흐름이 지배적인 한 해였다.
- 이상과 같은 흐름을 반영하여 2021년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부문의 점수는 작년과 같은 4점이다. 4점은 공식 성명, 기자회견 등을 통한 상호 구두위협을 통한 긴장 조성의 상태이다.

〈표 2-34〉 2021년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부문 내용

일자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1.1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5차 전원회의 결과 발표 □ 국방력 강화로 자주권·생존권 보위, 정면돌파전과 자력갱생·자력강화 □ 미국의 대북입장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가 가변적임을 표명 정부, 대통령, 전쟁불용, 상호안전보장, 공동번영이라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원칙과 상생번영의 평화공동체 강조
1.20	한국에서 처음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발생
1.30	남북, 연락대표 협의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위험이 완전히 해소될 때 까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잠정 중단 결정

일자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1.5~12	북한 조선노동당 제8차 당 대회 개최 □ '정면돌파' 선언, '인민대중 제일주의' 강조, 국방력 강화 명시, 보완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수립 □ 군정지도부 설치, 인사 세대교체, 경제 전문 엘리트 총원 □ 남북관계 개선 전망 및 금강산 지구 독자 개발 계획 표명
2.12	UNICEF, 'WHO 北보건성과 협력 대북 백신 지원 논의중'(RFA)
3.1	대통령 3.1 제102주년 3.1절 기념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동북아 방역 보건협력체' 참여를 시작으로 북한이 역내 국가들과 협력하고 교류하게 되길 희망합니다."
3.8~18	전반기 한미연합지휘소훈련
3.11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인권 상황에 관한 특별보고관 보고서' 발표
3.12	미국 바이든 정부가 주도하는 새로운 안보 다자 협의체인 쿼드QUAD(미국·일본·인도·호주) 출범 정상회의 개최
3.16	北 김여정 당 중앙위 부부장 담화, "3년전의 봄날은 다시 돌아오기 어려울 것"
3.17~19	美 블링컨 국무장관, 오스틴 국방장관 방한, 한미 외교장관회담, 국방장관회담 개최
3.18~19	미중 고위급 회담(알래스카 앵커리지)
3.23	제46차 유엔인권이사회, EU가 상정한 북한인권결의안 컨센서스로 채택
3.25	北, 동해상으로 발사체 2발 발사
3.26	北 국방과학원, '신형전술유도탄 시험발사'(함남 함주) 진행 보도
4.5	北 올림픽위원회 총회(3.25)에서 도쿄올림픽 불참 결정
4.30	美 백악관 대변인, 대북정책 검토 완료 공표
5.5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런던)
5.16	아시아축구연맹(AFC), 2022 카타르 월드컵 2차 예선전 北 불참 최종 확인
5.21	한미정상회담 □ 방역, 환경, 기후문제 등 글로벌 차원의 협력 □ 미국 중심 글로벌 공급망 구축에 대한 경제협력 및 첨단기술, 원전, 우주개발 협력 강화 □ 개정미사일지침 종료 합의 □ 기존 합의를 계승하며 북핵문제 해결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
6.15~18	北 김정은 위원장 주재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전원회의 진행
6.19~23	美 성 김 대북특별대표 방한,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
7.13.	北, 유엔 고위급 정치포럼(HLPF)에서 '자발적 국가별 검토(VNR)' 발표
7.27.	남북 간 통신연락선 복원
8.10.	北 김여정 당 중앙위 부부장, 한미연합훈련 비난 담화
9.13.	北 국방과학원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발사' 진행 보도
9.15	北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 발사
9.15	대통령, 우리 군 첫 SLBM 잠수함 발사 시험 참관

일자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9.19~23.	대통령, 제 76차 유엔총회 기조연설 □ 한국은 '글로벌 백신 생산 허브'이자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연결하는 '교량국가' □ 남북미 혹은 남북미중의 종전선언을 통해 비핵화 협상 재개 □ 남북 관계 개선이 주변국과의 협력 강화 및 동북아 평화에 기여
9.24	北 김여정 당 중앙위 부부장 담화 "종전선언은 흥미있는 제안이고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
9.28	北,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8형' 시험발사 보도
10.4	남북 통신연락선 재개
10.16~19.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방미, 한미·한일·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
10.19	北, 함경남도 신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SLBM 1발 발사
10.17.	유엔 총회 제3위원회,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11.21	北 외무성 대변인,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관련 비난 담화
12.6	美, 베이징 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공식화
12.7	美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 35명, 종전선언 반대 공동서한 발송
12.9	美 의회 종전선언 등 포함한 '한반도 평화법안'에 34명 지지 서명
12.23	COVAX, 북한에 AZ 백신 129만회분 추가배정
12.27~31.	北 당 중앙위 제8기 제4차 전원회의 개최

※ 자료: 통일부 홈페이지, <남북관계 주요일지>

11) 상호체제인정

- 상호체제인정은 기존에 남한과 북한에서 교류와 접촉의 대상을 규제하는 법을 기준으로 한 평가이다. 2011년에 체제 간 상호비방의 강도를 기준으로 남북 정치통합의 정도를 반영하려 하였으나 보다 과학적인 방법론을 체계적으로 도입하지 않는 한 이러한 비방의 수준과 강도를 정확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기존의 방식대로 상호체제를 법과 제도의 틀 속에서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가 하는 영역으로 제한하여 평가하였다. 법 개정 관련부처 점수는 남북교류 관련법과 국가보안법(남한), 형법(북한) 등 남한과 북한에서 각각 두 개의 법률을 선택하여 총 4개의 법률에 각 2.5점씩 총 10점을 만점으로 한다.

〈표 2-35〉 상호체제인정 정도(법 개정)

점수	내용
0점	남북관계 관련 법제도 제정 및 개정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음.
0.5점	남북관계 관련 법제도 제정 및 개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
1.0점	남북관계 관련 법제도 제정 및 개정이 이루어짐.
1.5점	남북관계 관련 법제도 재개정 및 보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짐.
2점	남북관계 관련 법제도 재개정 및 보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상당 수준으로 법제도가 확립됨.
2.5점	남북관계 관련 법제도가 완벽한 수준으로 제정(개정)되어 있음.

- 먼저 기존의 남북한 법 개정 관련부문 상호인정 점수는 다음과 같다. 상 대체제 인정행위 중 법 개정 관련점수는 5점을 기준으로 환산했다. 남한의 경우, 2019년 남북교류협력 관련법은 “남북관계 관련 법제도 재개정 및 보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짐”에 해당하는 1.5점을 부여한다.
- 하지만 2005~2010년 기간에는 2점으로 평가되었던 상호체제인정 분야의 법개정 정도는 2011년 이후 5.24조치와 2016년 개성공단 폐쇄의 영향으로 1.5점에서 한 단계 더 떨어진 상태였다. 그러다가 2018년에 수 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교류협력이 적극 추진되었고 체육, 문화, 산림, 적십자, 이산가족, 철도 등 여러 분야에서 각종 남북교류협력이 재개되어 2016년 수준의 1.5점으로 회복된 것이었다. 2020년부터는 남북 간 공식 회담 및 인적 왕래 등이 중단되었지만 2021년도에 법 개정 차원에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된 점을 고려하여 2020년과 같은 1.5점을 부여했다.
- 2021년 현재 국가보안법은 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지 않기 때문에 1991년 이후부터 0.1점을 부여하였다. 북한의 경우, 교류협력 관련 법은 전무하여 0점으로 처리하고, 남한의 국가보안법에 대비되는 형법이 지속적으로 개정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2021년에도 0.3점을 부여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법률적 측면에서 2021년 점수는 전년과 같은 1.9점으로 평가한다.

〈표 2-36〉 남북한의 상호체제인정 부문 점수

	상호체제인정(법 개정)				가중치 총점 (10점)
	남한		북한		
	교류협력 관련법 (2.5점)	국가보안법 (2.5점)	교류협력 관련법 (2.5점)	형법 (2.5점)	
1989	0.5	0	0	0	0.5
1990	1.0	0	0	0	1.0
1991	1.0	0.1	0	0	1.1
1992	1.0	0.1	0	0	1.1
1993	1.0	0.1	0	0	1.1
1994	1.0	0.1	0	0	1.1
1995	1.0	0.1	0	0.1	1.2
1996	1.0	0.1	0	0.1	1.2
1997	1.0	0.1	0	0.1	1.2
1998	1.0	0.1	0	0.1	1.2
1999	1.0	0.1	0	0.2	1.3
2000	1.0	0.1	0	0.2	1.3
2001	1.0	0.1	0	0.2	1.3
2002	1.5	0.1	0	0.2	1.8
2003	1.5	0.1	0	0.2	1.8
2004	1.5	0.1	0	0.3	1.9
2005	2.0	0.1	0	0.3	2.4
2006	2.0	0.1	0	0.3	2.4
2007	2.0	0.1	0	0.3	2.4
2008	2.0	0.1	0	0.3	2.4
2009	2.0	0.1	0	0.3	2.4
2010	2.0	0.1	0	0.3	2.4
2011	1.5	0.1	0	0.3	1.9
2012	1.5	0.1	0	0.3	1.9
2013	1.5	0.1	0	0.3	1.9
2014	1.5	0.1	0	0.3	1.9

	상호체제인정(법 개정)				가중치 총점 (10점)
	남한		북한		
	교류협력 관련법 (2.5점)	국가보안법 (2.5점)	교류협력 관련법 (2.5점)	형법 (2.5점)	
2015	1.5	0.1	0	0.3	1.9
2016	1.5	0.1	0	0.3	1.9
2017	1.0	0.1	0	0.3	1.4
2018	1.5	0.1	0	0.3	1.9
2019	1.5	0.1	0	0.3	1.9
2020	1.5	0.1	0	0.3	1.9
2021	1.5	0.1	0	0.3	1.9

12) 관계통합지수 종합

- 정치영역의 관계통합지수는 지수를 구성하는 10개의 변인의 점수를 합계로 산정된다.
- 2021년에는 실무정치회담, 고위급 회담, 군사분야 회담 모두 개최되지 못해 해당 지수가 모두 0점으로 돌아갔다. 매개제도 구성 역시 2020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 이후 공식적인 활동이 없었으므로 0점이고, 정치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노력은 꾸준히 있었지만, 외부적 긴장요인을 해소하지 못하고 정세를 관리하는 흐름이 이어지며 협상이 진행되지 못하여 4점을 기록했다. 따라서 2021년 정치영역의 관계적 통합지수는 2020년과 동일한 6.3점을 나타냈다.

〈표 2-37〉 2020/2021년 정치영역 관계통합지수 변화부문 지수 비교

	2020년	2021년	증감	요인
실무정치회담	0.0	0.0	-	□ 후속 회담 없음.
고위급정치회담	0.0	0.0	-	정상 회담 없음.
군사분야회담	0.0	0.0	-	군사분야 회담 없음.
의회회담	0.0	0.0	-	의회회담 없음.

	2020년	2021년	증감	요인
정치분야공동행사	0.0	0.0	-	공동행사 없음.
매개제도 구성과 활동	0.0	0.0	-	
대화·회담 정례화	0.0	0.0	-	
외교군사적 협력	0.0	0.0	-	
군축	0.4	0.4	-	
정치군사적 긴장완화	4.0	4.0	-	
상호체제인정	1.9	1.9	-	
계	6.3	6.3	-	

라. 종합

-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제도적 차원과 관계적 차원을 포함하는 정치영역 구조통합을 평가한 전체지수를 종합하면 다음 〈표 2-38〉와 같다.

〈표 2-38〉 정치영역 구조통합지수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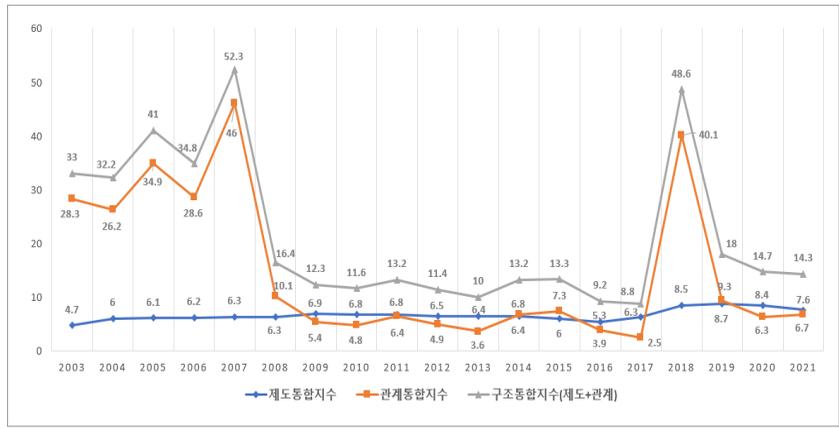
	제도적 통합(90)			관계적 통합(160)										합계 (250)	통합 단계	
	공동 집행 기구 (30)	단일 제도 화 (30)	공동 법제 화 (30)	실무 정치 회담 (20)	고위 급정 치 회담 (20)	군사 회담 (20)	의회 회담 (20)	남북 공동 행사 (10)	매개 제도 (20)	정례 화 (10)	국제 협력 (10)	군축 (10)	긴장 완화 및 신뢰 구축 (10)			상호 체제 인정 (10)
1989	0	0	1.0	1.0	0	0	0.8	0	0	0	0	1.8	4	0.5	9.1	0
1990	0	0	1.0	2.2	6	0	0.4	0	0.5	2.5	0	1.7	4	1.0	19.3	1
1991	0	0	1.0	2.0	4	0	0.2	0	1.1	2.5	0.4	1.7	4	1.1	18	1
1992	0	0	2.0	15.4	6	0	0	0	14.3	2.5	0.4	1.6	2	1.1	45.3	3
1993	0	0	2.5	0.8	0	0	0	0	0	0	0.6	1.4	3	1.1	9.4	0
1994	0	0	2.6	2.0	0	0	0	0	1	0	0.2	1.4	3	1.1	11.3	1
1995	0	0	3.1	0.0	0	0	0	0	0.5	0	0	1.4	3.5	1.2	9.7	0
1996	0	0	3.2	0.0	0	0	0	0	0	0	0.7	1.0	1	1.2	7.1	0
1997	0	0	3.3	0.0	0	0	0	0	0	0	3.7	0.4	2.5	1.2	11.1	1
1998	0	0	3.8	0.4	0	0	0	0	0	0	2.2	0.3	3.5	1.2	11.4	1

	제도적 통합(90)			관계적 통합(160)										합계 (250)	통합 단계	
	공동 집행 기구 (30)	단일 제도 화 (30)	공동 법제 화 (30)	실무 정치 회담 (20)	고위 급정 치 회담 (20)	군사 회담 (20)	의회 회담 (20)	남북 공동 행사 (10)	매개 제도 (20)	정례 화 (10)	국제 협력 (10)	군축 (10)	긴장 완화 및 신뢰 구축 (10)			상호 체제 인정 (10)
1999	0	0	4.3	0.6	1.6	0	0.2	0	0.5	0	2.5	0.3	1.5	1.3	12.8	1
2000	0	0	4.4	2.6	11	3.2	0.6	0	11	2.5	0.7	0.3	4	1.3	41.6	3
2001	0	0	4.5	0.0	3	0.8	0.4	0	6.3	2.5	0.5	0.3	4	1.3	23.6	2
2002	0	0	4.6	0.4	3	3.6	0.6	0	7.2	2.5	0.5	0.3	2	1.8	26.5	2
2003	0	0	4.7	0.2	6	2.4	0.4	0	7.2	5	1.0	0.3	4	1.8	33	2
2004	0	0	6	0.0	3	3.2	1.2	0	7.1	2.5	2.5	0.3	4.5	1.9	32.2	2
2005	0	0	6.1	1.2	5.3	1.2	1.4	5	8.2	2.5	2.4	0.3	5	2.4	41	3
2006	0	0	6.2	0.6	3	2.8	2.6	2.5	6.8	2.5	1.0	0.4	4	2.4	34.8	2
2007	0	0	6.3	1.8	10	7.8	1.8	2.5	9.4	2.5	2.9	0.4	4.5	2.4	52.3	3
2008	0	0	6.3	0	0	0.8	0	0	3	0	1.5	0.4	2	2.4	16.4	1
2009	0	0.5	6.4	0.8	0	0	0.2	0	0.3	0	0	0.2	1.5	2.4	12.3	1
2010	0	1.0	5.8	0	0	0.8	0.2	0	0	0	0	0.4	1	2.4	11.6	1
2011	0	1.0	5.8	0	0	0.4	0	0	0	0	1.2	0.4	2.5	1.9	13.2	1
2012	0	1.0	5.5	0	0	0	0	0	0	0	0	0.5	2.5	1.9	11.4	1
2013	0	0.5	5.9	0.2	0	0	0	0	0	0	0	0.5	1.0	1.9	10.0	0
2014	0	0.5	5.9	0.2	1.5	0.4	0	0	0.3	0	0	0.5	2	1.9	13.2	1
2015	0	0.5	5.5	0	2.3	0	0	0	0.6	0	0	0.5	2	1.9	13.3	1
2016	0	0.5	4.8	0	0	0	0	0	0	0	0	0	2	1.9	9.2	0
2017	0	0.5	5.8	0	0	0	0	0	0	0	0	0.1	1	1.4	8.8	0
2018	0	1.5	7	1.4	20	3.4	0	0	4.8	2.5	0	0.1	6	1.9	48.6	3
2019	0	1.5	7.2	0	0	0	0	0	3	0	0	0.4	4	1.9	18	1
2020	0	1.5	6.9	0	0	0	0	0	0	0	0	0.4	4	1.9	14.7	1
2021	0	1.5	6.1	0	0	0	0	0	0	0	0	0.8	4	1.9	14.3	1

- 2021년 정치영역의 남북한 구조통합지수는 14.3점으로 전년에 비해 0.4점이 감소했다. 통합단계는 11~20점 사이인 1단계 수준으로 평가된다.
- 구조통합지수를 구성하는 한 축인 제도통합 부문은 0.8점 감소한 7.6점이었고, 다른 한 축인 관계통합 부문은 전년 대비 0.4점 오른 6.7점을 나타냈다.

- 제도통합 부문은 정치분야나 군사분야의 남북공동집행기구가 존재하지 않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도 폐쇄된 가운데 북한이 당 중심 통치 강화, 자력갱생과 인민생활 향상 등을 지속 강조하였기에 남북한 정치제도의 단일화 정도는 1.5점으로 전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공동법제화 수준은 전년 대비 0.8점 감소하여 6.1점을 나타냈다.
- 관계통합 부문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상호 공식회담이 진행되지 않고, 정치군사적 긴장도 유지되는 양상을 보였기에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부분은 작년과 같은 4점이었다. 상호체제인정 부문에서도 역시 전년도 수준을 유지한 1.9점으로 평가되었다. 다만 군축 부문에서 남한정부의 전력 개편에 따른 일정한 수의 병력감축이 진행되어 전년 대비 2배 오른 0.8점의 점수를 나타냈다. 따라서 관계통합 부문은 총 6.7점으로 집계되었다.

〈그림 2-3〉 정치영역 구조통합지수 연도별 추이



3. 사회문화

가. 지수구성

- 사회문화영역의 구조통합지수를 구성하는 제도적 통합과 관계적 통합은 반드시 누적적 단계에 따라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실현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제도적 통합은 관계적 통합이 일정한 수준까지 올랐을 때 관계적 통합을 제도적으로 보장 또는 확정하는 방식으로 뒤따르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 사회문화영역의 구조통합지수를 구성하는 변인과 배점은 아래와 같다.

〈표 2-39〉 사회문화영역 변인들의 분류와 배점

영역	변인	배점
제도통합	사회문화정책 공동집행기구	30
	사회문화분야 남북 법제화	30
	사회문화제도의 단일화	30
	소계	90
관계통합	사회문화 인적 왕래	20
	사회문화 교류협력사업(공동행사)	20
	사회문화 교류협력기금 조성 및 집행	20
	이산가족 상봉의 상시화	10
	인적 이동의 자유화	20
	언론·방송의 자유화	20
	국제대회 공동개최·단일팀 구성	20
	사회문화 교류협력 정례화 및 공동협의기구	30
소계	160	
합계		250

- 이상의 변인들에 부여된 점수를 가산하여 사회문화적 통합의 단계를 아래와 같이 판단할 수 있다.

- 0단계 (교류가 없거나 있더라도 미미한 수준): 10점 이하
- 1단계 (비정기적인 교류, 접촉빈도 낮음(제한적 범위에서 진행)): 11-20점
- 2단계 (비정기적인 교류, 접촉빈도 높음): 21-40점
- 3단계 (정기적인 교류, 공동 협의기구(매개 제도) 구성): 41-70점
- 4단계 (공동협의기구(매개제도)의 상시화): 71-90점
- 5단계 (주요 대회 공동개최, 자유화 진행): 91점-110점
- 6단계 (남북 사회문화 공동집행기구 구성): 111-130점
- 7단계 (일부 사회문화제도 단일화·공동법제화): 131-160점
- 8단계 (광범위한 사회문화제도 단일화·공동법제화): 161-190점
- 9단계 (포괄적 사회문화정책 공동집행기구에 위임): 191-220점
- 10단계 (남북 사회문화공동체 완성): 221-250점

- 남북통합 수준을 단계로 구분하면, 남북 접촉·교류기(0~2단계), 남북 협력도약기(3~5단계), 남북연합기(6~8단계), 통일 완성기(9~10단계)이다. 남북통합은 3단계, 6단계, 9단계에서 질적으로 도약(take-off)한다. 마지막 실질적인 통일 시기는 남북한 간 사회문화 분야에서 자유화·제도화·단일화 등이 완전하게 실현되는 단계를 의미한다.

나. 제도통합지수

- 사회문화영역의 제도통합을 측정하는 지표와 배점은 아래와 같다. 단, 사회문화영역의 남북 공동 집행기구는 구성뿐만 아니라 기구의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수준까지 포함하며, 남북한 간 사회문화제도의 표준화/단일화의 영역은 대표적 측정지표로서 소통의 도구로서 언어와 방송통신 기술의 표준화, 삶의 만족도를 나타내는 사회복지제도의 단일화로 한정한다.
- 제도통합지수를 구성하는 지표와 배점의 세부 사항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2-40〉 사회문화영역 제도적 통합의 지표와 배점

통합 영역	지표	세부 지표	배점
제도적 통합 (총 90점)	남북 공동의 사회문화정책 집행기구 (30점)	공동의 집행기구 구성 논의	10
		공동의 집행기구 구성 추진	10
		공동의 집행기구 활성화	10
	남북한 사회문화제도 단일화 (30점)	언어의 표준화	10
		방송통신기술의 표준화	10
		사회복지제도의 단일화	10
	남북한 사회문화 법제화 (30점)	남북한 법제화 수준	15
		북한 법제의 실효성	15

1) 남북한 공동의 사회문화정책 집행기구

- 2021년에는 남북한 사회문화정책을 공동으로 집행할 기구 구성에 대한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변수에 해당되는 점수는 30점 만점 중 0점이다.

2) 남북한 사회문화제도의 단일화

- 2021년에는 남북한 당국 간 사회문화제도(방송통신기술, 언어, 사회복지제도 등)를 표준화 또는 단일화하려는 조치는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다. 이중 사회복지제도의 단일화에 대한 조치에 대해 부여하는 점수는 10점 만점 중 0점이다.
- 방송통신기술, 언어 영역에서는 남북한 간 사회문화제도의 표준화를 위한 노력이나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특히, 남한과 마찬가지로 북한 방송통신기술의 보급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2015년부터는 방송통신기술의 표준화에 관한 지표를 세분화하여 반영했다.
- 방송통신기술의 표준화에 대한 배점은 2015년부터 방송통신기술 표준화의 환경 조성 2점, 방송통신기술 표준화의 합의 도출 3점, 방송통신기술 표준화의 실행 5점으로 세분화되었다.

- 방송통신기술 표준화의 환경 조성은 남한주민 이동전화 이용률⁶⁾과 북한주민의 손전화 이용률을 평균한 점수를 단계별로 구분하여 0~25%는 0.5점, 26~50%는 1.0점, 51~75%는 1.5점 76~100% 2.0점의 점수를 부여한다. 2021년 방송통신기술 표준화에 대해 부여하는 점수는 10점 만점 중 2.0점이다.

○ 퓨리서치(Pew Research)에 따르면 가장 최근 통계를 기준으로 남한주민 이동전화 보급률은 100%이다. 다만 1인당 복수의 기기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감안하여 99.9%로 산정한다. 북한주민의 손전화 이용률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가장 최근 자료인 『북한사회변동』 조사 결과의 2019년 응답률과 2020년 응답률에 50:50 가중치를 두어 계산한 58%다.⁷⁾ 따라서 남북한 평균 이용률은 79%로 방송통신기술 표준화의 환경 조성에 대한 점수는 2.0점이다.

- 방송통신기술 표준화의 합의 도출 3점, 방송통신기술 표준화의 실행 5점 항목에 있어서는 진행된 바 없어 둘 다 0점이다.
- 언어 표준화에 대한 배점을 2020년부터 언어 표준화 환경 조성 3점, 언어 표준화 준거 마련 4점, 언어 표준화 실행 3점으로 세분화했다. 지표 세분화 및 배점 변경에 따라 지난 시기 언어 표준화 점수가 조정되었다.
 - 언어 표준화 환경 조성은 남북한 주민이 상대방 언어를 접한 정도로 측정하며, 언어 표준화 준거 마련은 민간 차원에서 남북한이 공동으로 편찬하는 최초의 우리말 사전인 겨레말큰사전 남북 합의 수준으로 측정한다.

6) "8 charts on internet use around the world as countries grapple with COVID-19," Pew Research Center, 2020년 4월 2일 <https://www.pewresearch.org/fact-tank/2020/04/02/8-charts-on-internet-use-around-the-world-as-countries-grapple-with-covid-19/> (검색일: 2020.12.13)

7) 2021년에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북한의 국경봉쇄로 북한이탈주민조사의 표본 수가 충분하지 못해 2019년, 2020년 『북한사회변동』(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조사 결과의 응답률에 각각 50:50의 가중치를 두어 계산한 값으로 점수를 부여한다.

○ 언어 표준화 준거 마련 점수는 민간 차원에서 겨레말큰사전 편찬 사업이 진척된 2005년부터, 언어 표준화 환경 조성은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설문조사가 실시된 2007년부터 배점이 시작되었다.

■ 언어 표준화 환경 조성은 남한주민의 북한언어(문화) 접근률과 북한주민의 남한언어(문화) 접근률을 평균한 점수를 단계별로 구분해 남북한 주민들이 각각 상대방의 언어를 접한 정도를 측정한다. 평균 점수가 0~25%는 0.8점(반올림), 26~50%는 1.5점, 51~75%는 2.3점(반올림) 76~100% 3점을 부여한다. 2021년 언어 표준화 환경 조성 점수는 2.3점이다.

○ 남한주민의 북한언어 접근률은 “북한 방송이나 영화, 소설 등을 접해본 경험” 여부에 대해 “예”라고 대답한 비율을 사용하며, 북한주민의 남한언어 접근률은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남한 방송, 영화, 드라마, 노래(음악) 등을 접해본 경험” 여부에 대한 질문에 “자주 접해봤다”, “한두 번 접해봤다”고 응답한 비율을 사용한다.

○ 남한주민의 북한언어 접근률은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발간한 『2021 통일외식조사』 결과에 따라 29.5%다. 북한주민의 남한언어 접근률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가장 최근 자료인 『북한주민 통일외식』 조사 결과의 2019년 응답률과 2020년 응답률에 50:50 가중치를 두어 계산한 87.9%다.⁸⁾ 남한주민의 북한언어 접근률 29.5%와 평균하면 58.7%다. 이에 따라 2021년 언어 표준화 환경 조성에 부여하는 점수는 2.3점이다.

■ 언어 표준화 준거 마련은 민간 차원의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을 통해 진척되고 있다. 남북 합의 수준은 2015년과 동일하며 마지막 남북 공동회의가 개최된 2015년 기준 30만 7천개 올림말 중 12만 5000개 어휘에 합의해 남북 합의 수준은 40.7%다.⁹⁾ 이를 4점 기준으로 환산한 배점은 1.6점이다.

8) 2021년에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북한의 국경봉쇄로 북한이탈주민조사의 표본 수가 충분하지 못해 2019년, 2020년 『북한사회변동』(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조사 결과의 응답률에 각각 50:50의 가중치를 두어 계산한 값으로 점수를 부여한다.

9) 정일영,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을 지켜야 한다, 『뉴시스』, 2022년 06월 24일. <http://omn.kr/1ziz1>

○ 남북이 공동편찬회의를 개최해 상호 합의한 내용으로 겨레말큰사전이 편찬된다는 점을 감안해 어휘 합의 수준을 남북 합의 수준으로 삼는다. 남북 합의 수준을 기준으로 하면서 2009~2020년 수치가 전체적으로 조정되었다. 겨레말큰사전 공동편찬회의가 열린 2009년, 2014년, 2015년 점수는 2020년 40.7%에서 2008년 35%를 제하고 연도별로 균등 분할하여 배정했다.

○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위는 2005년 2월 결성되었으나 남북관계 부침에 따라 2010~2013년 공동편찬회의가 열리지 못하고 2016년부터는 공동편찬회의가 중단된 상태다. 마지막으로 제25차 공동편찬회의가 2015년 12월 7~13일 중국 다롄에서 열린¹⁰⁾ 이후 공동편찬회의가 개최되지 않아 남북 합의 수준은 2015년과 동일하다.

■ 언어 표준화 실행 점수는 0점으로 언어 표준화 지표의 최종적인 점수는 언어 표준화 환경 조성 2.3점과 언어 표준화 준거 마련 1.6점을 합한 3.9점이다.

■ 방송통신기술 표준화 2점, 언어 표준화 3.9점, 사회복지제도 단일화 0점을 총합한 남북한 제도 단일화 점수는 5.9점이다.

10) 김호준, “겨레말큰사전 남북 공동편찬회의 7~13일 중 다롄서 개최,” 『연합뉴스』, 2015년 12월 1일. <https://www.yna.co.kr/view/AKR20151201061900014>

〈표 2-41〉 사회문화영역 남북한 제도 단일화 변인에 대한 점수

구분 연도	방송통신기술 표준화 (10)			언어 표준화 (10)			사회복지제도 단일화 (10)	남북한 제도 단일화 점수 (합계)
	표준화 환경 조성 (2)	표준화 합의 도출 (3)	표준화 실행 (5)	표준화 환경 조성 (3)	표준화 준거 마련 (4)	표준화 실행 (5)		
1989	0	0	0	0	0	0	0	0
1990	0	0	0	0	0	0	0	0
1991	0	0	0	0	0	0	0	0
1992	0	0	0	0	0	0	0	0
1993	0	0	0	0	0	0	0	0
1994	0	0	0	0	0	0	0	0
1995	0	0	0	0	0	0	0	0
1996	0	0	0	0	0	0	0	0
1997	0	0	0	0	0	0	0	0
1998	0	0	0	0	0	0	0	0
1999	0	0	0	0	0	0	0	0
2000	0	0	0	0	0	0	0	0
2001	0	0	0	0	0	0	0	0
2002	0	0	0	0	0	0	0	0
2003	0	0	0	0	0	0	0	0
2004	0	0	0	0	0	0	0	0
2005	0	0	0	0	0.4	0	0	0.4
2006	0	0	0	0	0.7	0	0	0.7
2007	0	0	0	2.3	1.0	0	0	3.3
2008	0	0	0	1.5	1.4	0	0	2.9
2009	0	0	0	2.3	1.5	0	0	3.8
2010	0	0	0	2.3	1.5	0	0	3.8
2011	0	0	0	2.3	1.5	0	0	3.8
2012	0	0	0	2.3	1.5	0	0	3.8
2013	0	0	0	2.3	1.5	0	0	3.8
2014	2.0	0	0	2.3	1.6	0	0	5.9
2015	1.5	0	0	2.3	1.6	0	0	5.4
2016	1.5	0	0	2.3	1.6	0	0	5.4
2017	1.5	0	0	2.3	1.6	0	0	5.4
2018	2.0	0	0	2.3	1.6	0	0	5.9
2019	2.0	0	0	2.3	1.6	0	0	5.9
2020	2.0	0	0	2.3	1.6	0	0	5.9
2021	2.0	0	0	2.3	1.6	0	0	5.9

3) 남북한 사회문화 공동법제화

- 남북한 사회문화 관련 공동법제화는 크게 법제화의 수준과 법제의 실효성으로 구분된다.
- 먼저, 사회문화영역의 법제화 수준은 북한의 법제화 수준, 남북간 법제의 수렴 정도, 남북 공동법제의 구속력 수준으로 세분화하여 전문가조사를 통해 측정된다. 전문가조사는 2022년에 10명의 북한법 전문가들이 세 개의 지표를 10점 척도로 하여 점수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 전문가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회문화영역에서 북한의 법제화 수준에 5.3 점, 남북한 간 법제의 수렴도에 3.4점, 그리고 남북한 공동법제의 구속력에 2.8점이 부여되었다. 각 항목별 점수를 다시 5점 만점으로 환산한 후 합한 결과, 2021년 사회문화영역의 남북한 법제화 수준은 15점 만점 중 5.7점이다.
- 2021년 전문가조사 결과 지난해보다 사회문화영역 법제화 수준은 0.3점, 남북한 간 법제의 수렴도는 0.3점, 남북한 공동법제 구속력은 0.4점 하락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를 5점으로 환산한 결과에 따르면, 남북한 법제화 수준은 지난해 대비 0.6점 하락했다.
 - 2020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북한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채택해 남한 문화 및 미디어 접촉을 금지함에 따라 법제화 수렴도가 하락하고, 남북관계 냉각에 따라 공동법제 구속력이 하락한 영향이 반영되었다.

〈표 2-42〉 사회문화영역 남북한 법제화 정도

세부 지표	평균점수 (항목별 10점 만점)	상대점수 (항목별 5점 만점)	법제화 수준 (합계/15점 만점)
사회문화영역 북한의 법제화 수준	5.3	2.6	5.7
사회문화영역 남북 간 법제의 수렴도	3.4	1.7	
사회문화영역 남북 공동법제의 구속력	2.8	1.4	

〈표 2-43〉 사회문화영역 남북한 법제화 전문가 설문조사 연도별 추이

세부 지표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사회문화영역 북한의 법제화 수준	2.6	2.6	3.0	2.6	2.8	2.7	2.8	2.8	2.8	2.8	2.6
사회문화영역 남북 간 법제의 수렴도	1.7	1.7	1.9	1.9	1.7	1.7	1.8	1.8	2.0	1.9	1.7
사회문화영역 남북 공동법제 의 구속력	1.6	1.6	1.7	1.9	1.4	1.5	1.8	1.8	1.9	1.6	1.4
합계	5.8	5.8	6.6	6.4	5.8	5.8	6.4	6.3	6.6	6.3	5.7

* 합계 점수는 각 부문별 점수를 합산 후 반올림한 것으로 부문별로 반올림 후 합산한 것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법제의 실효성은 북한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회문화 자유화 관련 기본 법 조항들이 실제로 현실사회에서 보장되고 있는가 여부로 판단한다. 측정지표와 배점은 아래의 표와 같다. 북한의 사회문화 자유화 법제의 실효성에 대한 점수는 문헌조사, 북한법 전문가의 자문, 그리고 북한주민(탈북자) 의식조사 등의 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 2021년 기간 동안 사회문화 자유화와 관련된 북한 법제가 새롭게 제정되거나 개정된 바는 없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북한 헌법에 명시된 거주·여행의 자유가 전혀 실효성이 없지는 않다. 해외 여행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국내의 거주·여행의 자유 관련

법제의 부분적 실효성을 인정하여 2.5점을 부여한다.¹¹⁾ 해외여행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국내의 거주·여행의 자유 관련 법제의 부분적 실효성을 인정하여 2.5점을 부여한다.

○ 가장 최근 자료인 북한이탈주민 설문조사 결과인 『북한주민 통일의식』의 2019년과 2020년 당시 거주·여행의 자유 관련한 “북한에 살고 계실 때 얼마나 자주 다른 지역(다른 군, 시, 도, 외국)에 가보셨습니까?” 질문에 “자주 가보았다” 또는 “가끔 가보았다”로 응답한 비율에 각 연도별로 50:50 가중치를 두어 계산하면 55.7%이다.¹²⁾ 이에 따라 거주·여행의 자유 관련 법제는 부분적 실효성이 있는 2.5점으로 산정되었다.

○ 나머지 언론, 출판,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 관련 법 조항과 신앙의 자유 관련 법 조항에 대한 실효성은 없다고 판단되어 각각 0점을 부여한다.

〈표 2-44〉 북한의 사회문화 자유화 법제의 실효성

헌법조항	실효성 수준	실효성 점수* (5점 만점)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가짐	실효성 전혀 없음	0
국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짐	실효성 전혀 없음	0
모든 국민은 거주, 여행의 자유를 가짐	부분적 실효성 있음	2.5
합계 (15점 만점)		2.5

* 실효성 점수는 전면적 효력=5점, 부분적 효력=2.5점, 무효력=0점으로 구분

■ 이상의 남북 사회문화 법제화 변인에 대한 점수를 종합해보면, 2021년 남북한 사회문화 법제화 점수는 남북 법제화 정도 5.7점과 북한의 자유화 법제의 실효성 2.5점을 합하여 30점 만점 중 8.2점으로 2020년보다 0.6점 감소했다.

11) 북한이탈주민 설문조사가 시작된 이래 거주·여행의 자유 관련한 질문에 대해 “자주 가 보았다”, “가끔 가 보았다”라고 답한 북한이탈주민 응답률은 매년 50% 이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북한주민 통일의식』 각년도 참조.

12)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북한의 국경봉쇄로 북한이탈주민조사의 표본 수가 충분하지 못해 2021년 값은 2020년 수치와 동일한 값을 부여하였다.

〈표 2-45〉 남북한 사회문화 법제화 변인에 대한 점수

구분 연도	법제의 실효성 (15)	남북한 법제화 정도 (15)	남북한 법제화 점수 (합계)
1989	0	1.1	1.1
1990	0	1.1	1.1
1991	0	1.1	1.1
1992	0	1.3	1.1
1993	0	1.5	1.5
1994	0	1.6	1.6
1995	0	1.9	1.9
1996	0	2.2	2.2
1997	0	3.2	3.2
1998	2.5	4.4	6.9
1999	2.5	4.5	7.0
2000	2.5	4.6	7.1
2001	2.5	4.7	7.2
2002	2.5	4.7	7.2
2003	2.5	4.9	7.4
2004	2.5	5.0	7.5
2005	2.5	5.0	7.5
2006	2.5	5.0	7.5
2007	2.5	6.6	9.1
2008	2.5	6.6	9.1
2009	2.5	6.7	9.2
2010	2.5	5.7	8.2
2011	2.5	5.8	8.3
2012	2.5	5.8	8.3
2013	2.5	6.6	9.1
2014	2.5	6.4	8.9
2015	2.5	5.8	8.3
2016	2.5	5.9	8.4
2017	2.5	6.3	8.8
2018	2.5	6.2	8.7
2019	2.5	6.6	9.1
2020	2.5	6.3	8.8
2021	2.5	5.7	8.2

4) 제도통합지수 종합

- 사회문화영역 제도통합지수는 세 가지의 지표인 남북 공동의 사회문화정책 공동집행기구, 남북한 사회문화제도 단일화, 남북한 사회문화 법제화 각각에 부여된 점수를 합하여 산출한다.
- 2021년 사회문화영역 제도적 통합지수는 90점 만점 중 14.1점으로 전년 대비 0.6점 감소하였다.
 - 전문가 조사에 따른 남북한 법제화 지수가 0.6점 하락해 제도통합지수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표 2-46〉 사회문화영역 제도통합지수 종합

구분 연도	공동집행기구 (30)	제도 단일화 (30)	남북한 법제화 (30)	제도적 통합지수 (합계)
1989	0	0	1.1	1.1
1990	0	0	1.1	1.1
1991	0	0	1.1	1.1
1992	0	0	1.3	1.3
1993	0	0	1.5	1.5
1994	0	0	1.6	1.6
1995	0	0	1.9	1.9
1996	0	0	2.2	2.2
1997	0	0	3.2	3.2
1998	0	0	6.9	6.9
1999	0	0	7.0	7.0
2000	0	0	7.1	7.1
2001	0	0	7.2	7.2
2002	0	0	7.2	7.2
2003	0	0	7.4	7.4
2004	0	0	7.5	7.5
2005	0	0.4	7.5	7.9
2006	0	0.7	7.5	8.2
2007	0	3.3	9.1	12.4
2008	0	2.9	9.1	12.0

구분 연도	공동집행기구 (30)	제도 단일화 (30)	남북한 법제화 (30)	제도적 통합지수 (합계)
2009	0	3.8	9.2	13.0
2010	0	3.8	8.2	12.0
2011	0	3.8	8.3	12.1
2012	0	3.8	8.3	12.1
2013	0	3.8	9.1	12.9
2014	0	5.9	8.9	14.8
2015	0	5.4	8.3	13.7
2016	0	5.4	8.4	13.8
2017	0	5.4	8.8	14.2
2018	0	5.9	8.7	14.6
2019	0	5.9	9.1	15.0
2020	0	5.9	8.8	14.7
2021	0	5.9	8.2	14.1

다. 관계통합지수

- 사회문화영역의 관계통합을 측정하는 지표는 인적왕래의 규모,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빈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중 사회문화영역의 비중, 이산가족 상봉의 상시화, 이동의 자유화, 언론방송의 자유화, 국제대회에서의 민족적 단결성, 마지막으로 정책협의를 정례화와 공동성 등이 포함된다.
- 사회문화 관계통합을 구성하는 지표와 배점의 세부 사항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2-47〉 사회문화영역 관계적 통합 지표와 배점

통합영역	지표	배점
관계통합	사회문화 인적 왕래	20
	사회문화 교류협력사업(공동행사)	20
	사회문화 교류협력기금 조성 및 집행	20
	이산가족 상봉의 상시화	10

통합영역	지표	배점
	인적 이동의 자유화	20
	언론·방송의 자유화	20
	국제대회 공동개최·단일팀 구성	20
	사회문화 교류협력 정례화 및 공동협의기구	30
소계		160

1) 인적 왕래

- 인적왕래 변인의 경우, 북한주민의 남한방문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북한주민이 방남한 경우에는 인원수에 2를 곱하는 가중치를 부여한다.
- 남한주민의 북한방문 인원과 북한주민의 남한방문 인원 가중치를 부여한 결과, 방북 0명+방남 0명(X2)=0명이다.
 - 2021년 인적왕래는 통일부의 통계자료 분류 방식의 변경으로 분야별 남한주민의 북한방문 인원은 확인 불가능하며, 총 인원은 0명이다.
 - 2009년 이후로 북한주민의 남한방문의 경우 통일부의 통계자료 분류 방식의 변경으로 분야별 남한방문 인원을 확인할 수 없고, 2021년에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총 0명이다.
- 연간 인적왕래 수준의 기준점은 700만 명으로 하며, 상대점수는 인적왕래 비율이 1% 변화할 때마다 0.2점이 가산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¹³⁾
- 2021년 인적왕래 변인의 총점은 0명으로 613명이었던 2020년에 비해 감소하였다. 따라서 2021년 인적왕래 변인에 부여된 상대점수는 20점 만점 중 0점이다.

13) 본 수치에 활용하던 「월간 남북교류협력 동향」 출판이 2017년 7월 이후로 중단되었다. 따라서 이전에 분야별로 표기하던 방북인원 수치는 확인하기 어렵고 총 인원 수만 표기한다.

〈표 2-48〉 인적왕래 변인 상대점수

구분 연도	이산 가족 (A)	교육 학술 (B)	문화 예술 (C)	체육 (D)	종교 (F)	언론 출판 (G)	대북 지원 (H)	관광 (I)	가중치 총점*	비율 (%) **	상대 점수	
1989									1	0	0	
1990									1,056	0	0	
1991									762	0	0	
1992									566	0	0	
1993									36	0	0	
1994									12	0	0	
1995									536	0	0	
1996									146	0	0	
1997	0	1	0	0	4	11	151	-	167	0	0	
1998	1	21	87	0	51	48	129	10,554	10,891	0.2	0	
1999	5	1	106	125	39	4	364	148,074	148,718	2.1	0.4	
2000	348	5	697	446	47	143	751	213,009	215,446	3.1	0.6	
2001	436	76	134	312	86	82	803	57,879	59,808	0.9	0.2	
2002	1,479	68	513	2,182	195	84	1,975	84,727	91,223	1.3	0.3	
2003	233	396	34	1,552	584	253	1,670	75,353	80,075	1.1	0.2	
2004	1,632	797	784	161	376	107	2,067	268,420	274,344	3.9	0.8	
2005	247	273	286	955	1,231	1,242	6,669	301,011	311,914	4.5	0.9	
2006	2,127	378	138	274	788	487	7,658	234,446	246,296	3.5	0.7	
2007	3,207	865	331	1,624	4,779	289	13,119	352,433	376,647	5.4	1.1	
2008	2,267	663	46	424	685	308	4,812	303,088	312,293	4.5	0.9	
2009***	1,449	112	0	23	103	0	761	0	2,574	0.04	0	
	방남 63명(가중치 x2점)											
2010	754	95	0	3	77	7	684	0	1,620	0.02	0	
	방남 0명(가중치 x2점)											
2011	0	44	3	0	133	2	946	0	1,156	0.02	0	
	방남 14명 (사회문화 1명, 대북지원 13명)											
2012	1	0	2	0	77	2	117	0	199	0	0	
	방남 0명											
2013	0	9	0	41	53	0	35	0	218	0	0	
	방남 40명 (사회문화 40명 가중치 x2점)											
2014	760	100	6	0	186	0	63	0	1,847	0.03	0	
	방남 366명 (사회문화 366명 가중치 x2점)											

구분 연도	이산 가족 (A)	교육 학술 (B)	문화 예술 (C)	체육 (D)	종교 (F)	언론 출판 (G)	대북 지원 (H)	관광 (I)	가중치 총점*	비율 (%) **	상대 점수	
2015	1,491	840	15	100	354	0	295	0	3,103	0.04	0	
	방남 4명(사회문화 4명 가중치 x2점)											
2016	1	0	0	0	0	0	0	0	1	0	0	
	방남 0명											
2017	방북 52명								178	0	0	
	방남 63명 (사회문화 63명 가중치 x2점)											
2018	방북 6,689명								8,307	0.12	0	
	방남 809명 (사회문화 809명 가중치 x2점)											
2019	방북 9,835명								9,835	0.14	0	
	방남 0명 (사회문화 0명 가중치 x2점)											
2020	방북 613명								613	0.01	0	
	방남 0명 (사회문화 0명 가중치 x2점)											
2021	방북 0명								0	0	0	
	방남 0명 (사회문화 0명 가중치 x2점)											

* 1989~1996년 기간은 분야별 통계가 없고 함께 통계만 있어 가중치 총점만 산출

** 상대점수가 0.1% 이하인 경우는 0으로 처리

*** 2009년부터 북한주민의 남한방문 자료에는 분야별 인원이 누락되고, 총 인원만 표시되며, 남한주민의 북한방문 또한 2017년부터 분야별 인원이 누락되고, 총 인원만 표시

※ 자료: 통일부, 『2022 통일백서』 참조

2) 공동 행사(교류협력사업)

- 공동행사 변인 상대점수는 방문 성사 1건당 1점을 부여하여 산출하되, 인적왕래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남한방문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남한방문의 경우에는 건수에 2를 곱하는 가중치를 부여한다.
- 2021년 남북한 사회문화 공동행사는 2020년과 마찬가지로 방북 행사와 방남 행사 모두 0건으로 나타났다.
- 이상의 방북 행사 건수와 방남 행사 건수에 가중치를 부여한 결과, 총점은 0점이다. 2020년과 같은 점수이며, 기준점(600건) 대비 비율 또한 0%이다.

- 연간 남북공동행사의 개최 건수의 기준점은 600건으로 하며, 상대점수는 공동행사 비율이 1% 변화할 때마다 0.2점이 가산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 최종적으로 상대점수로 전환했을 경우 2021년 공동행사 변인에 부여된 상대점수는 0점이다.

〈표 2-49〉 공동행사 변인 상대점수

구분 연도	교육 학술	문화 예술	체육	종교	언론 출판	가중치 총점	비율 (%)	상대 점수	
1989	0	0	0	0	0	0	0	0	
1990	0	0	0	0	0	0	0	0	
1991	0	0	0	0	0	0	0	0	
1992	0	0	0	0	0	0	0	0	
1993	0	0	0	0	0	0	0	0	
1994	0	0	0	0	0	0	0	0	
1995	0	0	0	0	0	0	0	0	
1996	0	0	0	0	0	0	0	0	
1997	1	0	0	3	3	7	1.2	0.2	
1998	6	6	0	10	10	32	5.3	1.1	
1999	1	7	65	9	2	84	14	2.8	
2000	2	9	51	9	12	83	13.8	2.8	
2001	13	10	39	11	11	84	14	2.8	
2002	15	19	45	17	9	105	17.5	3.5	
2003	24	11	24	22	21	102	17	3.4	
2004	19	12	6	24	21	82	13.7	2.7	
2005	32	19	29	68	75	223	37.2	7.4	
2006	37	25	36	58	61	217	36.2	7.2	
2007	85	32	77	119	44	357	59.5	11.9	
2008	57	14	30	58	35	194	32.3	6.5	
2009	9	0	2	15	0	(26)	36	6	1.2
	방남 5건(가중치 x2점)*					(10)			
2010	8	0	1	15	3	(27)	27	4.5	0.9
	방남 0건					0			
2011	7	1	0	13	1	(22)	24	4	0.8
	방남 1건(가중치 x2점)*					(2)			

구분 연도	교육 학술	문화 예술	체육	종교	언론 출판	가중치 총점	비율 (%)	상대 점수	
2012	0	1	0	8	1	(10)	10	1.7	0.3
	방남 0건					(0)			
2013	1	0	1	3	0	(4)	8	1.3	0.3
	방남 2건(가중치 x2점)*					(4)			
2014	8	2	0	12	0	(22)	32	5.3	1.1
	방남 5건(가중치 x2점)*					(10)			
2015	0	0	0	0	0	0	0	0	0
	0					0			
2016	0	0	0	0	0	0	0	0	0
	0					0			
2017	0	0	0	0	0	0	0	0	0
	0					0			
2018	0	1	1	0	0	2	4	0.7	0.1
	방남 1건(가중치 x2점)*					2			
2019	1	2	0	0	0	3	3	0.5	0.1
	0					0			
2020	0	0	0	0	0	0	0	0	0
	0					0			
2021	0	0	0	0	0	0	0	0	0
	0					0			

* 상대점수는 소수점 이하 두자리에서 반올림한 수치임.
※ 자료: 통일부, 『2022 통일백서』

3) 사회문화 교류협력기금

- 2021년 사회문화영역에 정부가 지출한 남북협력기금은¹⁴⁾ 인적왕래지원에 0원, 사회문화협력지원에 34억 2,600만원, 이산가족교류지원에 22억 8,000만원, 인도적 지원(무상)에 17억 800만원으로 총 74억 1,400만원이다.

14) 2022. 1월 남북교류협력기금 통계, <https://www.unikorea.go.kr/viewer/skin/doc.html?fn=2022031509152387696.hwp&rs=viewer/doc/202208/> (검색일: 2022.08.17.)

■ 한국은행의 자료에 의하면¹⁵⁾, 2021년 한국의 국민총소득(GNI)은 약 2,094조 원으로 사회문화영역에 지출한 남북협력기금의 비율은 약 0.0004% 수준에 불과하다.

○ 2021년 전체적으로 조성된 남북협력기금은 GNI 대비 약 0.016%를 차지하여 작년 수치인 0.037% 보다 다소 감소했다. 이중 사회문화영역에 지출된 금액은 기금 전체의 약 2.17% 수준으로 10.1%p 대폭 감소했던 지난해 2.68% 보다도 0.51%p 줄어들었다.

■ 국민총소득(GNI) 대비 교류협력기금이 차지 하는 비중 0.12%를 연간 사회문화 교류협력기금의 기준점으로 하며, 상대점수는 교류협력기금 지출 비율이 1% 변화할 때마다 0.2점이 가산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 기준점 대비 2021년 사회문화영역 교류협력기금의 비율은 0.29%로 2020년 0.82%에 비해 0.53%p 감소하였다. 최종적으로 2021년 사회문화 남북협력기금 변인에 부여된 상대점수는 0.1점이다.

(표 2-50) 사회문화 교류협력기금 변인 상대점수

구분 연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중 사회 문화영역 지출액(억원)	GNI에서 차지하는 비중(%)	기준점과의 비교(%) (0.12=100)	상대 점수
1989	0	0	0	0
1990	0	0	0	0
1991	0	0	0	0
1992	0	0	0	0
1993	0	0	0	0
1994	0	0	0	0
1995	1,824	0.0419	34.9	7.0
1996	55	0.0011	0.9	0.2
1997	191	0.0035	3.0	0.6
1998	199	0.0038	3.1	0.6
1999	343	0.0059	4.9	1.0

15)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검색일 2022.08.17.)

구분 연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중 사회 문화영역 지출액(억원)	GNI에서 차지하는 비중(%)	기준점과의 비교(%) (0.12=100)	상대 점수
2000	1,896	0.0293	24.4	4.9
2001	1,182	0.0168	14.0	2.8
2002	2,450	0.0313	26.1	5.2
2003	3,110	0.0373	31.1	6.2
2004	2,319	0.0256	21.3	4.3
2005	3,904	0.0411	34.2	6.8
2006	2,391	0.0238	19.9	4.0
2007	4,032	0.0371	30.9	6.2
2008	845	0.0073	6.1	1.2
2009	345	0.0029	2.4	0.5
2010	233	0.0018	1.5	0.3
2011	129	0.001	0.8	0.2
2012	52	0.0004	0.3	0.1
2013	174	0.0012	1.0	0.2
2014	207	0.0013	1.1	0.2
2015	235	0.0014	1.18	0.2
2016	46	0.0003	0.22	0
2017	57	0.0003	0.26	0.1
2018	177	0.0009	0.78	0.2
2019	395	0.002	1.70	0.3
2020	194	0.001	0.82	0.2
2021	74	0.0004	0.29	0.1

* GNI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소수점 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상대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수치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라 명목 GNI는 익익년 6월 확정되기 때문에 잠정 수치에서 계산한 지수가 소폭 변경될 수 있음. 이전년도 잠정 GNI 수치를 명목 수치로 변경하여 매년 수치 변경

※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통일부 남북협력기금 통계를 활용하여 재구성.

4) 이산가족 상봉 상시화

■ 연간 이산가족 상봉 인원수의 기준점은 13,000명으로 하며, 상대점수는 이산가족 상봉 비율이 1% 변화할 때마다 0.1점이 가산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 2021년 이산가족 상봉 수는 0명으로 상대점수(10점 만점)는 0점이다.

〈표 2-51〉 이산가족 상봉 변인 상대점수

연도	구분	이산가족 상봉 인원수	비율(%)	상대점수
1989		0	0	0
1990		0	0	0
1991		0	0	0
1992		0	0	0
1993		0	0	0
1994		0	0	0
1995		0	0	0
1996		0	0	0
1997		0	0	0
1998		1	0.01	0
1999		5	0.04	0
2000		348	2.7	0.3
2001		296	2.3	0.2
2002		1,479	11.4	1.1
2003		233	1.8	0.2
2004		1,624	12.5	1.2
2005		239	1.8	0.2
2006		2,127	16.4	1.6
2007		3,207	24.7	2.5
2008		2,267	17.4	1.7
2009		1,449	11.1	1.1
2010		754	5.8	0.6
2011		0	0	0
2012		1	0.01	0
2013		0	0	0
2014		760	5.8	0.6
2015		976	7.5	0.8
2016		0	0	0
2017		0	0	0
2018		834	6.4	0.6
2019		1	0.01	0
2020		0	0	0
2021		0	0	0

※ 자료: 통일부, 「이산가족 신청 및 교류현황」 각 해당 연호¹⁶⁾

16) https://reunion.unikorea.go.kr/reuni/home/pds/reqstat/list_exc.do?mid=SM00000129

5) 인적 이동의 자유화

- 인적 이동의 자유화 변인은 2009년 남북통합지수부터 기존 관광자유화 변인이 명칭 변경된 것이다. 기존의 인적 이동의 자유화 변인은 관광분야의 인적 이동과 경제분야의 인적 이동을 합한 것이었으나, 2014년부터는 탈북자 입국 수가 추가되었다.
- 인적 이동의 자유화는 남북한 주민의 지역 간 인적 이동이 얼마나 자유롭게 이루어지는가를 측정한다. 남한주민의 북한 방문에 비해 북한주민의 남한 방문은 상대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가중치(×2)를 부여한다.
- 연간 인적 이동의 자유화 기준점은 700만 명으로 하며, 상대점수는 이동 인원의 비율이 1% 변화할 때마다 0.2점이 가산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2021년 인적 이동 자유화 변인의 상대점수는 2020년과 동일하게 0점이다.
 - 2021년 남북 인적교류는 0명으로 전년의 613명 대비 613명 감소했고 남북화물 물동량 또한 2020년과 같이 0톤¹⁷⁾으로 교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 관광 분야의 인적 이동은 2008년 금강산 관광객의 피살 사건으로 금강산관광이 중단되고 그해 11월 개성관광마저 중단된 이후 2009년에서 2021년까지 13년간 연속 0명이다.
 - 북한이탈주민 입국 수의 경우 2012년부터 감소하는 추세이며 2019년까지는 1,000명 이상 입국했던 반면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2020년에는 229명, 2021년에는 63명 입국에 그쳤다.

17) e-나라지표, 남북 인적교류 및 물동량 추이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83

〈표 2-52〉 인적 이동 자유화 변인 상대점수

구분 연도	관광분야 인적 이동	경제분야 인적 이동		탈북자 입국 수	소계	비율(%)	상대점수
		방북	방남*				
1989	0	-	-	-	-	0	0
1990	0	-	-	-	-	0	0
1991	0	-	-	-	-	0	0
1992	0	-	-	-	-	0	0
1993	0	-	-	-	-	0	0
1994	0	-	-	-	-	0	0
1995	0	-	-	-	-	0	0
1996	0	-	-	-	-	0	0
1997	0	-	-	-	-	0	0
1998	10,554	2,193	0	-	12,747	0.2	0
1999	148,074	2,288	0	-	150,362	2.1	0.4
2000	213,009	2,800	15	-	215,839	3.1	0.6
2001	57,879	1,162	19	-	59,079	0.8	0.2
2002	84,727	2,762	115	1,142	88,861	1.3	0.3
2003	75,353	5,208	82	1,285	82,010	1.2	0.2
2004	268,420	18,250	120	1,898	288,808	4.1	0.8
2005	301,011	69,682	50	1,384	372,177	5.3	1.1
2006	234,446	87,845	13	2,028	324,345	4.6	0.9
2007	352,433	130,006	213	2,554	485,419	6.9	1.4
2008	303,088	176,970	78	2,803	483,017	6.9	1.4
2009	0	118,303	183	2,914	121,583	1.7	0.3
2010	0	128,346	132	2,402	131,012	1.9	0.4
2011	0	114,919	0	2,706	117,625	1.7	0.3
2012	0	120,161	0	1,502	121,663	1.7	0.3
2013	0	76,064	0	1,514	77,578	1.1	0.2
2014	0	126,047	0	1,397	127,444	1.8	0.4
2015	0	128,566	0	1,276	129,842	1.9	0.4
2016	0	14,786	0	1,418	16,204	0.2	0
2017	0	52	63	1,127	1,305	0	0
2018	0	6,689	809	1,137	9,444	0.1	0
2019	0	9,835	0	1,047	10,882	0.2	0
2020	0	613	0	229	842	0	0
2021	0		0	63	63	0	0

* 북한의 남한방문은 x2점 가중치 부여

** 2017년 8월 이후 통일부의 「월간 남북교류협력동향」 폐간으로 분야별 방문인원 파악 불가능해 2017~2020년은 방북 인원은 관광, 경제 분야 인적 이동을 총괄한 수치 표기

※ 자료: 통일부 「2022 통일백서」, 「남북 인적·물적 왕래 현황 및 북한이탈주민 입국 현황」 참조

6) 언론·방송의 자유화

- 남북한 사회문화 통합에서 언론·방송부문의 자유화 변인은 일방향 교류, 쌍방향 교류, 제한적 자유화, 전면적 자유화로 나뉘며, 또 각 세부 지표는 모색, 제도화, 활성화로 하위 평가 단계를 가진다. 각 지표와 배점에 대한 세부 사항은 아래의 표와 같다.
- 2021년 언론·방송의 자유화 변인의 상대점수는 8점이다. 2008년 10월에 제4차 남북언론인대표자회의에서 기사교류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여 쌍방향 교류의 제도화 단계에 진입하였지만, 이후 남북관계의 경색으로 제도를 활성화시키는 단계까지는 진전되지 못하고 있기에 2008년 이후 13년 연속 8점을 유지하고 있다.

〈표 2-53〉 언론·방송의 자유화 변인 지표와 배점

언론·방송의 자유화 (20점)	세부지표	일방향 교류	쌍방향 교류	제한적 자유화	전면적 자유화
	배점	5	10	15	20
	세부배점	모색(1) 제도화(3) 활성화(5)	모색(6) 제도화(8) 활성화(10)	모색(11) 제도화(13) 활성화(15)	모색(16) 제도화(18) 활성화(20)

〈표 2-54〉 언론·방송의 자유화 변인 점수

구분 연도	언론·방송의 자유화 수준		자유화 점수
1989	방송, 신문에서 북한·통일 관련 고정 프로그램, 지면 마련 (예: KBS의 '남북의 창' 등)	일방향 교류의 모색 단계	1
1990		"	1
1991		"	1
1992		"	1
1993		"	1
1994		"	1
1995		"	1
1996		"	1
1997		"	1

구분 연도	언론·방송의 자유화 수준		자유화 점수
1998	통일부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 개정, 북한 영상물의 국내 반입 허가	일방향 교류의 제도화 단계	3
1999		"	3
2000	6.15남북공동선언 채택, 언론·방송 교류 활성화	일방향 교류의 활성화 단계	5
2001		"	5
2002		"	5
2003		"	5
2004		"	5
2005	남북언론교류협력위원회 공식 발족	쌍방향 교류의 모색 단계	6
2006		"	6
2007		"	6
2008	남북언론인대표자회의 개최: 기사교류 합의	쌍방향 교류의 제도화 단계	8
2009		"	8
2010		"	8
2011		"	8
2012		"	8
2013		"	8
2014		"	8
2015		"	8
2016		"	8
2017		"	8
2018		"	8
2019		"	8
2020		"	8
2021		"	8

1) 국제대회 공동개최·단일팀 구성

- 점수 산출방법은 주요 국제대회(올림픽, 월드컵 아시안게임, 선수권대회 등)를 공동으로 개최하거나 단일팀 구성 또는 공동 입장할 경우를 연평균 20회를 기준(20점)으로 하여 1회에 1점씩 부여하여 상대점수를 산출한다. 그러나 20회 이상이 되더라도 상한점수인 20점을 부여한다. 2021년 국제대회 공동 개최와 단일팀·공동입장 부문 모두 0회로 기록되어 0점이 부여되었다.

〈표 2-55〉 주요 국제대회 공동개최·단일팀 구성 변인 상대점수

구분 연도	국제대회 공동개최	단일팀·공동입장	총점	상대점수
1989	0	0	0	0
1990	0	0	0	0
1991	0	2	2	2
1992	0	0	0	0
1993	0	0	0	0
1994	0	0	0	0
1995	0	0	0	0
1996	0	0	0	0
1997	0	0	0	0
1998	0	0	0	0
1999	0	0	0	0
2000	0	1	1	1
2001	0	0	0	0
2002	0	0	0	0
2003	0	0	0	0
2004	0	1	1	1
2005	0	0	0	0
2006	0	0	0	0
2007	0	0	0	0
2008	0	0	0	0
2009	0	0	0	0
2010	0	0	0	0
2011	0	0	0	0
2012	0	0	0	0
2013	0	0	0	0
2014	0	0	0	0
2015	0	0	0	0
2016	0	0	0	0
2017	0	0	0	0
2018	0	11	24	20
2019	0	1	1	1
2020	0	0	0	0
2021	0	0	0	0

※ 자료: 통일부 「2022 통일백서」.

7) 사회문화 교류협력 정례화 및 공동협의기구

- 사회문화 교류협력 정례화 및 공동협의기구 변인은 사회문화 교류협력 관련 당국자 회담(10점 만점), 공동협의기구[매개기구] 구성(10점 만점), 공동협의기구의 상시적 운용(10점 만점)으로 구성된다.
- 단, 합의서의 경우는 구속력을 가지기 때문에 가중치 2점을, 공동보도문의 경우는 구속력이 약하기 때문에 1.5점의 가중치를 부여한다. 따라서 당국자 회담 총점의 산출방식은 “회담 수+합의서 채택수×2+공동보도문×1.5”이다.
- 2021년 사회문화영역의 당국자 회담 총점은 0점이다.
 - 남북당국자 회담의 상대점수는 연간 남북 당국자 간 회담의 기준점을 24회로 하고 상대점수를 회담 비율 1%가 변화할 때마다 0.1점이 가산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2021년 당국자 간 회담 상대점수는 0이다.

〈표 2-56〉 사회문화 교류협력 당국자 회담 상대점수

구분 연도	회담 (A)	합의서 (B)	합의서 가중치 (C=B*2)	공동보도문 (D)	공동보도문 가중치 (E=D*1.5)	총점 (A+C+E)	비율 (%)	상대 점수
1989	9	0	0	0	0	9	37.5	3.8
1990	7	0	0	0	0	7	29.2	3
1991	7	4	8	0	0	15	62.5	6.3
1992	0	0	0	0	0	0	0	0
1993	0	0	0	0	0	0	0	0
1994	0	0	0	0	0	0	0	0
1995	0	0	0	0	0	0	0	0
1996	0	0	0	0	0	0	0	0
1997	0	0	0	0	0	0	0	0
1998	0	0	0	0	0	0	0	0
1999	0	0	0	0	0	0	0	0
2000	0	0	0	0	0	0	0	0
2001	0	0	0	0	0	0	0	0

구분 연도	회담 (A)	합의서 (B)	합의서 가중치 (C=B*2)	공동보도문 (D)	공동보도문 가중치 (E=D*1.5)	총점 (A+C+E)	비율 (%)	상대 점수
2002	2	1	2	0	0	4	16.7	1.7
2003	1	1	2	0	0	3	12.5	1.3
2004	1	1	2	0	0	3	12.5	1.3
2005	6	2	4	1	1.5	11.5	47.9	4.8
2006	3	0	0	0	0	3	12.5	1.3
2007	6	0	0	3	4.5	10.5	43.8	4.4
2008	1	1	2	0	0	3	12.5	1.3
2009	2	1	2	0	0	4	16.7	1.7
2010	4	1	2	0	0	6	25	2.5
2011	0	0	0	0	0	0	0	0
2012	0	0	0	0	0	0	0	0
2013	1	1	2	0	0	3	12.5	1.3
2014	2	0	0	0	0	2	8.3	0.9
2015	1	1	2	0	0	3	12.5	1.3
2016	0	0	0	0	0	0	0	0
2017	0	0	0	0	0	0	0	0
2018	7	0	0	7	10.5	17.5	72.9	7.3
2019	0	0	0	0	0	0	0	0
2020	0	0	0	0	0	0	0	0
2021	0	0	0	0	0	0	0	0

* 자료: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회담통계' (<http://dialogue.unikorea.go.kr>)

- 공동협의기구의 경우는 구성에 10점이 배점되고, 기구가 상시적으로 운영될 경우 10점이 추가 배점된다. 2021년 사회문화 교류협력 정례화 및 공동협의기구 변인에 부여되는 종합점수는 10점이다.

〈표 2-57〉 사회문화 교류협력 정례화 및 공동협의기구 변인 종합점수

구분 연도	당국자 회담 (10점 만점)	공동협의기구 구성 (10점 만점)	공동협의기구의 상시적 운용 (10점 만점)	종합점수 (30점 만점)
1989	3.8	0	0	3.8
1990	3	0	0	3
1991	6.3	0	0	6.3

구분 연도	당국자 회담 (10점 만점)	공동협의기구 구성 (10점 만점)	공동협의기구의 상시적 운용 (10점 만점)	종합점수 (30점 만점)
1992	0	10	5*	15
1993	0	0	0	0
1994	0	0	0	0
1995	0	0	0	0
1996	0	0	0	0
1997	0	0	0	0
1998	0	0	0	0
1999	0	0	0	0
2000	0	0	0	0
2001	0	0	0	0
2002	1.7	0	0	1.7
2003	1.3	0	0	1.3
2004	1.3	0	0	1.3
2005	4.8	0	0	4.8
2006	1.3	0	0	1.3
2007	4.4	10**	0	14.4
2008	1.3	10	0	11.3
2009	1.7	10	0	11.7
2010	2.5	10	0	12.5
2011	0	10	0	10
2012	0	10	0	10
2013	1.3	10	0	11.3
2014	0.9	10	0	10.9
2015	1.3	10	0	11.3
2016	0	10	0	10
2017	0	10	0	10
2018	7.3	10	0	17.3
2019	0	10	0	10
2020	0	10	0	10
2021	0	10	0	10

* 1992년 공동협의기구의 상시적 운용에서 5점을 부여한 것은 1992년 3월~10월까지 총 6차례의 '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원회'가 개최된 바 있어 매년 12회(10점 만점) 개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

** 2007년 이후 공동협의기구 구성 10점을 부여한 것은 남북이 당국자 회담을 통해 '사회문화협력추진위원회' 구성에 합의한 것을 반영해 산정

라. 종합

- 사회문화영역 구조통합지수는 제도통합지수와 관계통합지수를 합하여 산출한다. 앞에서 제시한 단계별 배점 기준에 따라 사회문화영역의 구조통합 수준을 단계로 제시한다.
- 제도적 통합지수 14.1점과 관계적 통합지수 18.1점을 합하여 최종적으로 산출한 2021년 사회문화영역 구조통합지수는 32.2점이다. 이 수치는 단계별 배점 기준에 따라 2단계 (21~40점)에 해당된다. 2단계는 교류가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나, 접촉빈도가 높은 상태를 의미한다.
- 2021년 구조통합지수는 2020년 32.9점에 비해 0.7점 감소하였다.

〈표 2-58〉 사회문화영역 구조통합지수 종합

연도	제도적 통합 (90)			관계적 통합 (160)								제도·관계 통합 지수 (합계)	통합 단계 (250)
	공동 집행 기구 (30)	단일 제도화 (30)	공동 법제화 (30)	인적 왕래 (20)	공동 행사 (20)	교류 협력 기금 (20)	이산 가족 상봉 상시화 (10)	인적 이동 자유화 (20)	언론/방송 자유화 (20)	국제 대회 공동 개최·단일팀 (20)	정례 화 (30)		
1989	0	0	1.1	0	0	0	0	0	1	0	3.8	5.9	0단계
1990	0	0	1.1	0	0	0	0	0	1	0	2.9	5.0	0단계
1991	0	0	1.1	0	0	0	0	0	1	2	6.3	10.4	0단계
1992	0	0	1.3	0	0	0	0	0	1	0	15	17.3	1단계
1993	0	0	1.5	0	0	0	0	0	1	0	0	2.5	0단계
1994	0	0	1.6	0	0	0	0	0	1	0	0	2.6	0단계
1995	0	0	1.9	0	0	7	0	0	1	0	0	9.9	0단계
1996	0	0	2.2	0	0	0.2	0	0	1	0	0	3.4	0단계
1997	0	0	3.2	0	0.2	0.6	0	0	1	0	0	5.0	0단계
1998	0	0	6.9	0	1.1	0.6	0	0	3	0	0	11.6	1단계
1999	0	0	7.0	0.4	2.8	1	0	0.4	3	0	0	14.6	1단계

연도	제도적 통합 (90)			관계적 통합 (160)								제도·관계 통합 지수 (합계)	통합 단계 (250)
	공동 집행 기구 (30)	단일 제도화 (30)	공동 법제화 (30)	인적 왕래 (20)	공동 행사 (20)	교류 협력 기금 (20)	이산 가족 상봉 상시화 (10)	인적 이동 자유화 (20)	언론/ 방송 자유화 (20)	국제 대회 공동 개최· 단일팀 (20)	정례 화 (30)		
2000	0	0	7.1	0.6	2.8	4.9	0.3	0.6	5	1	0	22.3	2단계
2001	0	0	7.2	0.2	2.8	2.8	0.2	0.2	5	0	0	18.4	1단계
2002	0	0	7.2	0.3	3.5	5.2	1.1	0.3	5	0	1.7	24.3	2단계
2003	0	0	7.4	0.2	3.4	6.2	0.2	0.2	5	0	1.3	23.9	2단계
2004	0	0	7.5	0.8	2.7	4.3	1.2	0.8	5	1	1.3	24.6	2단계
2005	0	0.4	7.5	0.9	7.4	6.8	0.2	1.1	6	0	4.8	35.1	2단계
2006	0	0.7	7.5	0.7	7.2	4.0	1.6	0.9	6	0	1.3	29.9	2단계
2007	0	3.3	9.1	1.1	11.9	6.2	2.5	1.4	6	0	14.4	55.9	3단계
2008	0	2.9	9.1	0.9	6.5	1.2	1.7	1.4	8	0	11.3	43.0	3단계
2009	0	3.8	9.2	0	1.2	0.5	1.1	0.3	8	0	11.7	35.8	2단계
2010	0	3.8	8.2	0	0.9	0.3	0.6	0.4	8	0	12.5	34.7	2단계
2011	0	3.8	8.3	0	0.8	0.2	0	0.3	8	0	10	31.4	2단계
2012	0	3.8	8.3	0	0.3	0.1	0	0.3	8	0	10	30.8	2단계
2013	0	3.8	9.1	0	0.3	0.2	0	0.2	8	0	11.3	32.9	2단계
2014	0	5.9	8.9	0	1.1	0.2	0.6	0.4	8	0	10.8	35.9	2단계
2015	0	5.4	8.3	0	0	0.2	0.8	0.4	8	0	11.3	34.4	2단계
2016	0	5.4	8.4	0	0	0	0	0	8	0	10	31.8	2단계
2017	0	5.4	8.8	0	0	0.1	0	0	8	0	10	32.3	2단계
2018	0	5.9	8.7	0	0.1	0.2	0.6	0	8	11	17.3	51.8	3단계
2019	0	5.9	9.1	0	0.1	0.3	0	0	8	1	10	34.4	2단계
2020	0	5.9	8.8	0	0	0.2	0	0	8	0	10	32.9	2단계
2020	0	5.9	8.2	0	0	0.1	0	0	8	0	10	32.2	2단계

* 괄호 ()안의 수치는 각 지표의 만점의 수치를 표시

** 소수점 이하 두 자리에서 반올림한 수치로 각 부분의 합계점수와 전체합계 점수가 다를 수 있음.

〈표 2-59〉 사회문화영역 구조통합지수 연도별 추이

연도	제도적 통합	관계적 통합	구조통합지수
1989	1.1	4.8	5.9
1990	1.1	4	5.1
1991	1.1	9.3	10.4
1992	1.3	16	17.3
1993	1.5	1	2.5
1994	1.6	1	2.6
1995	1.9	8.0	9.9
1996	2.2	1.2	3.4
1997	3.2	1.8	5.0
1998	6.9	4.7	11.6
1999	7.0	7.6	14.6
2000	7.1	15.2	22.3
2001	7.2	11.2	18.4
2002	7.2	17.1	24.3
2003	7.4	16.5	23.9
2004	7.5	17.1	24.6
2005	7.9	27.2	35.1
2006	8.2	21.7	29.9
2007	12.4	43.5	55.9
2008	12.0	31.0	43.0
2009	13.0	22.8	35.8
2010	12.0	22.7	34.7
2011	12.1	19.3	31.4
2012	12.1	18.7	30.8
2013	12.9	20.0	32.9
2014	14.8	21.1	35.9
2015	13.7	20.7	34.4
2016	13.8	18.0	31.8
2017	14.2	18.1	32.3
2018	14.6	37.2	51.8
2019	15.0	19.4	34.4
2020	14.7	18.2	32.9
2021	14.1	18.1	32.2

* 소수점 이하 두 자리에서 반올림한 수치로 각 부분의 합계점수와 전체합계 점수가 다를 수 있음.

〈표 2-60〉 2020/2021년 사회문화 구조통합지수 변화부문 지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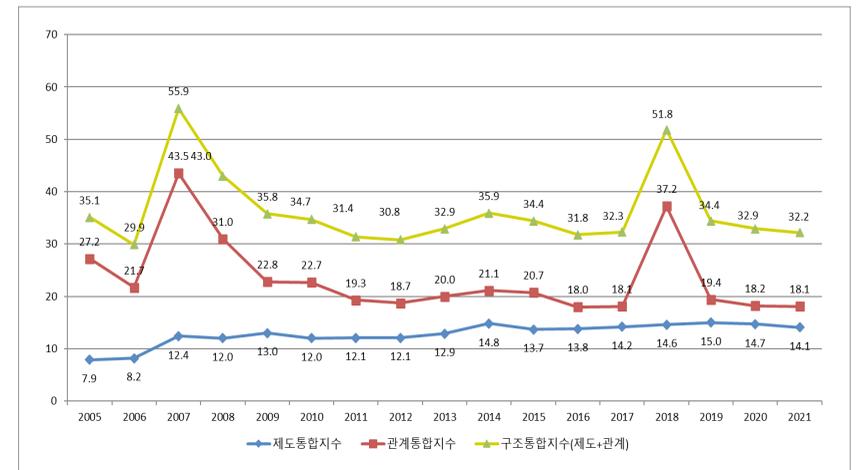
통합 영역	지표	2020년	2021년	증감	요인
제도적 통합	공동집행기구	0	0	0	전년 대비 변화 없음
	단일 제도화	5.9	5.9	0	전년 대비 변화 없음
	공동 법제화	8.8	8.2	-0.6	전문가조사 결과에 따라 소폭 감소
	합계	14.7	14.1	-0.6	전년 대비 감소
관계적 통합	인적 왕래	0	0	0	전년 대비 변화 없음
	공동행사	0	0	0	전년 대비 변화 없음
	사회문화교류 협력기금 집행	0.2	0.1	-0.1	사회문화 영역 협력기금 집행을 저하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
	이산가족 상봉의 상시화	0	0	0	전년 대비 변화 없음
	인적 이동의 자유화	0	0	0	전년 대비 변화 없음
	언론방송의 자유화	8	8	0	전년 대비 변화 없음
	국제대회 공동개최, 단일팀 구성	0	0	0	전년 대비 변화 없음
	교류협력 정례화 및 공동협의기구	10	10	0	전년 대비 변화 없음
	합계	18.2	18.1	-0.1	전년 대비 소폭 감소
	계	32.9	32.2	-0.7	전년 대비 소폭 감소

- 2021년 구조통합지수는 32.2점으로 전년 32.9점에서 소폭 하락했다. 제도적통합 지수는 0.6점 감소했으나, 관계적통합 지수는 0.1점 하락해 제도적통합 지수 하락 폭이 더 크다.
 - 제도적통합 지수 하락은 전문가 조사 결과 ‘공동법제화 수준’이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 관계적통합 지수 하락은 2020년 대비 2021년 사회문화영역 교류협력 기금 집행 감소에 따른 것이다.

■ 사회문화 구조(제도+관계)통합지수는 2019년 전년 대비 급격히 감소한 이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남북관계 단절이 계속되면서 남북 간 교류가 저조한 상황을 반영한다.

■ 2022년 사회문화 영역 구조(제도+관계)통합지수를 전망하면, 관계통합 지수가 전체 구조통합지수 등락에 미치는 영향이 결정적이라 남북 교류 활성화에 따른 접촉, 교류가 증가하지 않는 한 큰 변화를 기대하기 힘들다. 다만 남북 간 합의로 방역협력이나 대북 인도적 지원이 실시된다면 구조통합지수가 소폭 상승할 여지는 남아 있다.

〈그림 2-4〉 사회문화영역 구조통합지수 연도별 추이



3

2장. 의식통합지수

IPUS

2장. 의식통합지수

1. 지수구성

- 의식통합지수는 정치, 경제, 사회문화영역으로 나뉘고, 총 배점은 250점이다. 정치영역과 경제영역의 의식통합에는 각각 80점씩 부과되고 사회문화영역의 의식통합에는 90점이 부과된다. 사회문화영역의 배점이 더 큰 이유는 사회문화영역이 사회통합의 본질이자 정치·경제영역의 통합의 결과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 각 영역별 의식통합지수의 변인과 배점에 대한 세부 사항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3-1〉 의식통합지수 변인과 배점

영역	변인	배점	
정치영역	남북한 공통	통일의 필요성	20
		상대방에 대한 관계 인식	10
		상대방의 무력도발 가능성 인식	20
		남북 간 정치제도(선거방식, 법률제도) 차이 인식	20
		상대방에 대한 인지도	10
	소계		80

영역	변인		배점
경제영역	남한	통일이 남한 혹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정도	20
		인도적 지원과 남북한 경제협력의 통일기여도	10
		대북 지원의 증감에 대한 의견	10
	북한	북한 체제에 대한 평가와 시장경제에 대한 우호도	15
		개혁의 성과와 대북 지원에 대한 인지도	15
		대북 투자와 사업에 대한 우호도	10
소계		80	
사회문화영역	남북한 공통	상대방의 사회문화에 대한 인지도	10
		상대방의 사회문화에 대한 수용의식	20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 해소	20
		사회문화양식의 동질성	20
		통일 이후 사회평등 기대수준	20
	소계		90
합계		250	

- 남북한 주민의 의식통합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남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2022년 남북통합지수에 활용한 설문조사 데이터는 남한주민의 경우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2021년 7월 1일 ~ 7월 25일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74세 이하의 성인 남녀 1,200명을 유효표본으로 실시한 『2022 통일의식조사』의 자료이고, 북한주민의 경우 동 기관이 2022년 남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의 북한이탈주민 26명을 유효표본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자료이다.¹⁸⁾
- 설문조사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간접 조사 방식으로 실시된다. 북한주민 통일의식조사는 2008년부터 시작되어 2022년까지 총 14차례(2008년, 2009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에 걸쳐 실시되었다.

18) 이 조사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설문문의 준거 시점을 조사 시기보다 1년 전으로 설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22년에 실시된 조사의 경우 설문문의 준거 시점은 2021년이다.

- 2008년과 2009년의 조사는 하나원에 입소해 있는 북한이탈주민(만 19세 이상의 성인남녀)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하지만 2008년과 2009년 조사의 경우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탈북연도가 일치되지 않고 다양하다는 점에서 측정되는 의식의 기준연도 편차가 크다는 한계점을 갖고 있다.
- 기존 조사의 표본이 갖고 있는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2011년부터 2021년까지의 조사는 직전 연도에 북한을 나온 사람들로 한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직행 이탈주민 수가 급감하면서 2022년 조사에 참여한 대상자는 2019년 1월부터 2021년 12월 중 북한지역에 거주했거나 중간에 남한으로 입국한 북한주민들을 대상으로 기존의 설문조사를 생략한 심층조사를 실시하였다.
- 남한으로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 수의 급감으로 조사사업의 대상자를 예년 수준으로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2022년도 조사에 참여한 북한이탈주민은 26명에 불과했기 때문에, 조사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올해 북한주민의 지표별 상대점수는 전년도에 산출방식으로 적용하였던 2019년 입국자(109명) 대상 2020년 설문조사 결과와 2020년 입국자(15명)를 대상으로 한 2021년 설문조사 평균에 각각 50%씩 가중치를 부여한 후 평균값을 구한 점수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2. 영역별 지수

가. 경제

- 경제영역의 의식통합지수의 변인과 배점은 다음과 같다.

〈표 3-2〉 경제영역 의식통합 변인과 배점

변인		배점(남한)
남한주민 설문내용	통일이 남한 혹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정도	20
	인도적 지원과 남북한 경제협력의 통일기여도	10
	대북 지원에 대한 선호도	10
북한주민 설문내용	북한 체제에 대한 평가와 시장경제에 대한 우호도	15
	대북 지원에 대한 인지도 및 우호도	15
	대북 투자와 사업에 대한 우호도	10

1) 남한주민 지표별 응답율과 상대점수

가) 통일이 남한과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정도

- 통일에 대한 집단적 이익 기대감의 긍정 응답률은 2021년 53.5%으로 전년 대비 4.9% 포인트 감소하여 지난해 대비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 개인적 이익 기대감 긍정 응답률의 경우 26.5%를 기록하여 2020년 24.9%에 비해 1.6% 포인트 상승하였다. 30.9%를 기록하였던 2019년을 제외하면 20%대의 긍정 응답률이 뚜렷한 추세없이 지속되고 있다.
- 종합하면, 2021년 통일 편익에 대한 기대감 상대점수는 8.0점을 기록하여 2020년 대비 0.3% 포인트 하락하였다.

〈표 3-3〉 통일이 남한과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정도에 대한 응답률과 상대점수

질문과 응답		응답률(%)	상대점수
2013	질문: “통일이 남한에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와 “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 택	48.6	7.0/20
	질문: “통일이 자신에게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와 “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 선택	21.8	
2014	“	55.5	8.2/20
	“	26.7	
2015	“	57.4	8.5/20
	“	28.0	
2016	“	53.0	7.8/20
	“	24.6	
2017	“	52.1	7.6/20
	“	23.9	
2018	“	57.7	8.4/20
	“	26.7	
2019	“	61.9	9.3/20
	“	30.9	
2020	“	58.4	8.3/20
	“	24.9	
2021	“	53.5	8.0/20
	“	26.5	

나) 남한 주민의 남북 경제교류에 대한 평가

- 본 항목은 남북 경제협력과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대한 남한 주민의 평가를 바탕으로 점수를 산출한다. 2017년 이후 조사에서는 각 정책이 ‘통일에 도움이 되는’ 정도를 묻는 질문에서 각 정책이 ‘통일을 위해 시급한’ 정도를 묻는 질문으로 대체되었다.
- 2021년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62.8%로 2020년 69.1% 대

비 6.3% 포인트 하락 하였으며,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긍정적 평가 역시 44.6%로 전년대비 4.8% 포인트 하락하였다. 이에 따라 상대점수는 5.9점에서 5.4점으로 소폭 하락하였다.

- 2021년 남북 경제교류에 대한 평가는 2019년 이후 북미·남북 간 회담이 사실 상 중단됨에 따라 한국민들의 남북 경제교류에 대한 의식의 하락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표 3-4〉 남한 주민의 남북 경제교류에 대한 평가

질문과 응답		응답률(%)	상대점수
2013	질문: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사업 등 남북한 경제협력이 통일을 이루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매우 도움이 된다”와 “다소 도움이 된다” 선택	61.8	5.4/10
	질문: “쌀, 비료, 의약품 지원 등 인도적 대북 지원이 통일을 이루는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매우 도움이 된다”와 “다소 도움이 된다” 선택	46.3	
2014	“ ”	62.2	5.5/10
	“ ”	46.9	
2015	“ ”	65.4	5.8/10
	“ ”	50.3	
2016	“ ”	52.5	4.7/10
	“ ”	41.8	
2017	질문: “남북한 경제협력이 통일을 이루기 위해 얼마나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매우 시급하다”와 “다소 시급하다” 선택	62.5	5.3/10
	질문: “인도적 대북 지원이 통일을 이루기 위해 얼마나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매우 시급하다”와 “다소 시급하다” 선택	43.3	
2018	“ ”	71.3	6.3/10
	“ ”	54.9	
2019	“ ”	75.4	6.6/10
	“ ”	56.1	
2020	“ ”	69.1	5.9/10
	“ ”	49.4	
2021	“ ”	62.8	5.4/10
	“ ”	44.6	

다) 대북 지원에 대한 선호

- 과거에 지수 산출을 위해 사용되었던 설문 문항이 통일의식조사에서 다른 문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2017년 이후 본 항목을 “대북지원이 북한의 개혁개방에 도움이 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긍정적 응답과 “북핵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남북교류협력을 중단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한 부정적 응답의 비중의 평균을 구하여 산출한다.
 - 2013년부터 본 항목은 “대북지원이 북한주민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질문과 “대북 지원을 위해서는 북핵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질문을 활용하여 지수를 산출하여 왔다.
 - 그러나 2016년에는 “대북지원을 위해서는 북핵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질문이 “북핵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남북교류협력을 중단해야 한다”는 질문으로 대체되었으며, 뒤이어 2017년에는 “대북지원이 북한주민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질문이 “대북지원이 북한의 개혁개방에 도움이 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질문으로 대체되었다.
- 2021년 대북 지원 선호 정도에 대한 점수는 4.0점으로 2020년과 같은 점수를 기록하였다.

〈표 3-5〉 대북 지원의 선호 정도에 대한 응답률과 상대점수

질문과 응답		응답률(%)	상대점수
2013	질문: (1) “대북 지원이 북한주민의 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2) “북핵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대북지원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에 얼마나 찬성 또는 반대하십니까?”	27.4	2.7/10
	응답: (1)에서 “매우 도움이 된다”와 “약간 도움이 된다” 선택한 사람과 (2)에서 “다소 반대”와 “매우 반대”를 택한 사람의 평균을 구함.		
2014	“ ”	32.8	3.3/10
2015	“ ”	32.5	3.3/10
2016	질문: (1) 상동, (2) “북핵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남북 교류협력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에 얼마나 찬성 또는 반대하십니까?”	34.2	3.4/10
	응답: (1)에서 “매우 도움이 된다”와 “약간 도움이 된다” 선택한 사람과 (2)에서 “다소 반대”와 “매우 반대”를 택한 사람의 평균을 구함.		

질문과 응답		응답률(%)	상대점수
2017	질문: (1) "북한의 개혁 개방에 인도적 대북지원이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2) 상동	37.1	3.7/10
	응답: (1)에서 "매우 도움이 된다"와 "약간 도움이 된다" 선택한 사람과 (2)에서 "다소 반대"와 "매우 반대"를 택한 사람의 평균을 구함.		
2018	"	41.5	4.2/10
2019	"	45.8	4.6/10
2020	"	39.6	4.0/10
2021	"	40.1	4.0/10

2) 북한주민 지표별 응답율과 상대점수

- 2021년에는 코로나-19 관련 북중 국경봉쇄로 인한 이탈주민 급감으로 북한주민 의식통합지수 산출의 근거자료인 '북한이탈주민 의식조사'의 충분한 표본 수가 확보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부득이하게 2021년 북한주민 지표별 상대점수는 2020년 상대점수를 유지한다.

3) 종합

- 지난 6년간 의식지수를 비교하면, 경제 부문 점수는 2015년까지 40점대 초반을 유지하다가 2016년과 2017년 30점대로 내려앉은 후 2018년에는 다시 반등하여 40점대를 회복하였다. 2019년에는 일시적으로 45.0점을 기록하였지만, 이후 2020년과 2021년에는 점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 남한주민의 의식조사 상대점수는 2013년 15.1점 → 2014년 17.0점 → 2015년 17.6점 → 2016년 15.9점 → 2017년 16.6점 → 2018년 18.9점 → 2019년 20.5점 → 2020년 18.2점 → 2021년 17.4점으로 집계되었다. 2016년 이후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과 그에 따른 남북 간 교류 중단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기록하였으나, 2018년에는 남북 간의 화해 분위기 조성으로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이후 이어진 남북, 북

미간 대화 단절과 북핵협상의 교착상태 장기화로 2020년과 2021년 연속 점수가 하락하였다.

- 북한주민(탈북자)의 의식조사 점수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경봉쇄로 이 탈주민 표본 수가 충분하지 못하여 2020년 점수를 그대로 유지한다.
- 북한주민의 의식조사 상대점수는 2013년 25.7점 → 2014년 26.4점 → 2015년 25.0점 → 2016년 23.4점 → 2017년 21.7점 → 2018년 22.3점 → 2019년 24.5점 → 2020년 23.6점 → 2021년 23.6점으로 2018년부터 이어진 상승 추세를 이어가지 못했다.

〈표 3-6〉 경제분야 의식통합지수 종합

질문과 응답		점수/만점	총점/만점
2013	남한 주민	통일이 남한 혹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정도	7.0/20
		인도적 지원과 남북한 경제협력의 통일기여도	5.4/10
		대북 지원의 증감에 대한 의견	2.7/10
	북한 주민	북한 체제에 대한 평가와 시장경제에 대한 우호도	7.0/15
		대북 지원에 대한 인지도 및 우호도	10.2/15
		대북 투자와 사업에 대한 우호도	8.5/10
총점		40.8	
2014	남한 주민	통일이 남한 혹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정도	8.2/20
		인도적 지원과 남북한 경제협력의 통일기여도	5.5/10
		대북 지원에 대한 선호도	3.3/10
	북한 주민	북한 체제에 대한 평가와 시장경제에 대한 지지도	7.9/15
		대북 지원에 대한 인지도 및 우호도	10.9/15
		대북 투자와 사업에 대한 우호도	7.6/10
총점		43.4	
2015	남한 주민	통일이 남한 혹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정도	8.5/20
		인도적 지원과 남북한 경제협력의 통일기여도	5.8/10
		대북 지원에 대한 선호도	3.3/10
	북한 주민	북한 체제에 대한 평가와 시장경제에 대한 지지도	7.3/15
		대북 지원에 대한 인지도 및 우호도	10.4/15
		대북 투자와 사업에 대한 우호도	7.3/10
총점		42.6	

질문과 응답			점수/만점	총점/만점
2016	남한 주민	통일이 남한 혹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정도	7.8/20	15.9/40
		인도적 지원과 남북한 경제협력의 통일기여도	4.7/10	
		대북 지원에 대한 선호도	3.4/10	
	북한 주민	북한 체제에 대한 평가와 시장경제에 대한 지지도	6.9/15	23.4/40
		대북 지원에 대한 인지도 및 우호도	9.5/15	
		대북 투자와 사업에 대한 우호도	7.0/10	
총점			39.3	
2017	남한 주민	통일이 남한 혹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정도	7.6/20	16.6/40
		인도적 지원과 남북한 경제협력의 통일기여도	5.3/10	
		대북 지원에 대한 선호도	3.7/10	
	북한 주민	북한 체제에 대한 평가와 시장경제에 대한 지지도	5.9/15	21.7/40
		대북 지원에 대한 인지도 및 우호도	9.1/15	
		대북 투자와 사업에 대한 우호도	6.7/10	
총점			38.3	
2018	남한 주민	통일이 남한 혹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정도	8.4/20	18.9/40
		인도적 지원과 남북한 경제협력의 통일기여도	6.3/10	
		대북 지원에 대한 선호도	4.2/10	
	북한 주민	북한 체제에 대한 평가와 시장경제에 대한 지지도	7.1/15	22.3/40
		대북 지원에 대한 인지도 및 우호도	8.6/15	
		대북 투자와 사업에 대한 우호도	6.6/10	
총점			41.2	
2019	남한 주민	통일이 남한 혹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정도	9.3/20	20.5/40
		인도적 지원과 남북한 경제협력의 통일기여도	6.6/10	
		대북 지원에 대한 선호도	4.6/10	
	북한 주민	북한 체제에 대한 평가와 시장경제에 대한 지지도	6.9/15	24.5/40
		대북 지원에 대한 인지도 및 우호도	9.8/15	
		대북 투자와 사업에 대한 우호도	7.8/10	
총점			45.0	
2020	남한 주민	통일이 남한 혹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정도	8.3/20	18.2/40
		인도적 지원과 남북한 경제협력의 통일기여도	5.9/10	
		대북 지원에 대한 선호도	4.0/10	
	북한 주민	북한 체제에 대한 평가와 시장경제에 대한 지지도	7.2/15	23.6/40
		대북 지원에 대한 인지도 및 우호도	9.3/15	
		대북 투자와 사업에 대한 우호도	7.1/10	
총점			41.8	
2021	남한 주민	통일이 남한 혹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정도	8.0/20	17.4/40
		인도적 지원과 남북한 경제협력의 통일기여도	5.4/10	
		대북 지원에 대한 선호도	4.0/10	
	북한 주민	북한 체제에 대한 평가와 시장경제에 대한 지지도	7.2/15	23.6/40
		대북 지원에 대한 인지도 및 우호도	9.3/15	
		대북 투자와 사업에 대한 우호도	7.1/10	
총점			41.0	

나. 정치

- 정치영역의 의식통합지수의 변인과 배점은 다음과 같다.

〈표 3-7〉 정치영역 의식통합 변인과 배점

변인	배점(남한)	배점(북한)
통일의 필요성	10	10
남북 간 정치체제의 동질성	10	10
상대방에 의한 무력도발 가능성	10	10
상대방에 대한 긍정인식	5	5
상대방에 대한 인지도	5	5

1) 지표별 응답률과 상대점수

가) 통일의 필요성

- 통일이 필요하다는 의식은 남북통합을 촉진하는 중요한 변인이다. 이에 따라 남북한 주민들이 통일을 얼마나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가를 측정하기 위한 질문을 제기했다. 2021년 남한주민은 44.3%, 북한주민은 86.8%가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남북주민의 응답률을 상대점수(10점)로 환산하면 각각 4.4점, 8.7점으로 총 13.1점(20점 만점)이 된다.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상대점수는 2008년 14.7점, 2009년 15.2점, 2010년 15.5점, 2011년 14.8점, 2012년 15.0점, 2013년 15.5점, 2014년 15.4점, 2015년 14.6점, 2016년 15.1점, 2017년 14.9점, 2018년 15.3점, 2019년 14.7점, 2020년 13.9점을 기록하였다.

〈표 3-8〉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률과 상대점수

연도	주민 구분	질문과 응답	응답률 (%)	상대 점수
2008	남한주민	질문: 귀하는 남북한 통일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51.6	5.2
	북한주민	응답: "필요하다" 선택	95.2	9.5
2009	남한주민	"	55.8	5.5
	북한주민	"	97.0	9.7
2010	남한주민	질문: OO님은 남북한 통일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59.0	5.9
	북한주민	응답: "필요하다" 선택	94.7	9.6
2011	남한주민	"	53.7	5.4
	북한주민	"	93.8	9.4
2012	남한주민	"	57.0	5.7
	북한주민	"	93.3	9.3
2013	남한주민	"	54.8	5.5
	북한주민	"	100.0	10
2014	남한주민	"	55.9	5.6
	북한주민	"	98.0	9.8
2015	남한주민	"	51.0	5.1
	북한주민	"	94.9	9.5
2016	남한주민	"	53.4	5.3
	북한주민	"	97.8	9.8
2017	남한주민	"	53.8	5.4
	북한주민	"	95.4	9.5
2018	남한주민	"	59.7	6.0
	북한주민	"	93.1	9.3
2019	남한주민	"	53.0	5.3
	북한주민	"	93.6	9.4
2020	남한주민	"	52.3	5.2
	북한주민	"	86.8	8.7
2021	남한주민	"	44.3	4.4
	북한주민	"	86.8	8.7

* 2010, 2014, 2015, 2017년 남북한주민 응답률 및 상대점수 오기 수정

나) 남북한 간 정치제도의 동질성

■ 남북한 주민들이 남북의 정치제도가 동질적이라고 인식하면 의식통합에 긍정적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남북한 주민에게 남북한 간 선거제도 차이 여부에 대해 질문하였다. 남한주민의 경우, 남북의 선거방식에 차이가 없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9.4%였고, 북한주민은 0.9%의 응답률을 보였다. 이를 상대점수(10점)로 환산하면 각각 0.9점, 0.1점이 된다. 이 둘을 합하면 2021년 남북 정치제도의 동질성에 대한 인식은 1.0점(20점 만점)이다. 2008년 0.8점, 2009년 0.7점, 2010년 1.3점, 2011년 1.0점, 2012년 0.9점, 2013년 1.8점, 2014년 1.2점, 2015년 1.4점, 2016년 1.1점, 2017년 1.1점, 2018년 0.9점, 2019년 0.8점, 2020년 0.7점으로 이번 조사에서는 전년 대비 0.3점 상승하였다.

〈표 3-9〉 남북 정치제도의 동질성에 대한 응답률과 상대점수

연도	주민 구분	질문과 응답	질문1 응답률 (%)	질문2 응답률 (%)	평균 응답률 (%)	상대 점수
2008	남한주민	질문: 귀하는 다음 측면(선거방식)에서 남북한 간의 차이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5.7	4.9	5.3	0.5
	북한주민	응답: "없다" 선택	3.5	2.3	2.9	0.3
2009	남한주민	"	4.2	4.2	4.2	0.4
	북한주민	"	3.5	3.0	3.3	0.3
2010	남한주민	질문: OO님은 현재 다음 측면(선거방식)에서 남북한 간의 차이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6.2	11.3	8.8	0.9
	북한주민	응답: "없다" 선택	3.8	-	3.8	0.4
2011	남한주민	"	6.1	-	6.1	0.6
	북한주민	"	3.8	-	3.8	0.4
2012	남한주민	"	6.6	-	6.6	0.7
	북한주민	"	2.3	-	2.3	0.2
2013	남한주민	"	8.6	-	8.6	0.9
	북한주민	"	9.0	-	9.0	0.9

연도	주민 구분	질문과 응답	질문1 응답률 (%)	질문2 응답률 (%)	평균 응답률 (%)	상대 점수
2014	남한주민	"	9.0	-	9.0	0.9
	북한주민		2.5	-	2.5	0.3
2015	남한주민	"	6.7	-	6.7	0.7
	북한주민		6.5	-	6.5	0.7
2016	남한주민	"	7.6	-	7.6	0.8
	북한주민		3.0	-	3.0	0.3
2017	남한주민	"	8.2	-	8.2	0.8
	북한주민		3.4	-	3.4	0.3
2018	남한주민	"	6.4	-	6.4	0.6
	북한주민		2.6	-	2.6	0.3
2019	남한주민	"	5.8	-	5.8	0.6
	북한주민		1.8	-	1.8	0.2
2020	남한주민	"	5.5	-	5.5	0.6
	북한주민		0.9	-	0.9	0.1
2021	남한주민	"	9.4	-	9.4	0.9
	북한주민		0.9	-	0.9	0.1

* 2017, 2018년 남한주민 응답률 및 상대점수 오기 수정

다) 상대방의 무력도발 가능성 “없음”

■ 남북한이 상대방에 대해 무력도발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남북의 정치통합을 위해 중요한 변인이 될 수 있다. 남한주민은 43.7%가 북한에 의한 무력도발 가능성이 없다고 응답하였고, 북한주민은 48.0%가 남한에 의한 무력도발 가능성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이를 상대점수(10점)로 환산하면 각각 4.4점, 4.8점으로 총 9.2점이 된다. 이 부분의 총 점수는 2008년 11.7점, 2009년 9.5점, 2010년 6.9점, 2011년 6.7점, 2012년 8.5점, 2013년 7.0점, 2014년 7.7점, 2015년 7.3점, 2016년 8.1점, 2017년 7.3점, 2018년 9.7점, 2019년 9.8점, 2020년 8.7점으로 이번 조사에서는 전년대비 0.5점 상승하였다.

〈표 3-10〉 상대방의 무력도발 가능성 “없음”에 대한 응답률과 상대점수

연도	주민 구분	질문과 응답	응답률 (%)	상대 점수
2008	남한주민	질문: 귀하는 앞으로 북한의(남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47.8	4.8
	북한주민	응답: “없다” 선택	68.7	6.9
2009	남한주민	"	37.3	3.7
	북한주민		58.4	5.8
2010	남한주민	"	32.5	3.2
	북한주민		36.9	3.7
2011	남한주민	"	21.7	2.2
	북한주민		44.7	4.5
2012	남한주민	"	31.1	3.1
	북한주민		54.2	5.4
2013	남한주민	"	34.0	3.4
	북한주민		36.2	3.6
2014	남한주민	"	25.1	2.5
	북한주민		51.6	5.2
2015	남한주민	"	29.5	3.0
	북한주민		42.6	4.3
2016	남한주민	"	33.9	3.4
	북한주민		46.9	4.7
2017	남한주민	"	28.8	2.9
	북한주민		43.6	4.4
2018	남한주민	"	43.9	4.4
	북한주민		53.4	5.3
2019	남한주민	"	42.0	4.2
	북한주민		56.0	5.6
2020	남한주민	"	38.8	3.9
	북한주민		48.0	4.8
2021	남한주민	"	43.7	4.4
	북한주민		48.0	4.8

* 2019년 남한주민 응답률 오기 수정

라) 상대방에 대한 긍정인식

■ 남북한 주민이 상대방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가 하는 문제도 통합을 촉진하거나 저해하는 데에 유용한 변인이다. 남한주민은 59.9%가 북한을 긍정적 대상으로 바라보았고, 북한주민은 61.1%가 남한을 긍정적 대상으로 인식하였다. 이를 상대점수(5점)로 환산하면 남한 3.0점, 북한 3.1점으로 총 6.1점이 된다. 남한주민의 북한에 대한 긍정인식은 전년 대비 0.2점 증가하였고, 북한주민의 남한에 대한 긍정인식은 전년과 동일하였다. 총 점수는 2008년 7.4점, 2009년 7.2점, 2010년 6.2점, 2011년 6.7점, 2012년 6.9점, 2013년 6.1점, 2014년 6.3점, 2015년 5.8점, 2016년 5.9점, 2017년 6.0점, 2018년 6.4점, 2019년 6.8점, 2020년 6.1점으로 변화하였으며, 이번 조사에서는 전년과 동일한 수치를 기록하였다.

〈표 3-11〉 상대방에 대한 긍정인식 응답률과 상대점수

연도	주민 구분	질문과 응답	응답률(%)	상대점수
2008	남한주민	질문: 귀하는 북한이(남한이) 귀하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79.5	4.0
	북한주민	응답: "지원대상" + "협력대상" 선택	67.8	3.4
2009	남한주민	"	68.1	3.4
	북한주민	"	75.7	3.8
2010	남한주민	"	64.0	3.2
	북한주민	"	60.2	3.0
2011	남한주민	"	63.7	3.2
	북한주민	"	70.0	3.5
2012	남한주민	"	62.9	3.1
	북한주민	"	76.7	3.8
2013	남한주민	"	56.8	2.8
	북한주민	"	66.6	3.3
2014	남한주민	"	58.8	2.9
	북한주민	"	68.1	3.4
2015	남한주민	"	52.5	2.6
	북한주민	"	64.9	3.2

연도	주민 구분	질문과 응답	응답률(%)	상대점수
2016	남한주민	"	55.3	2.8
	북한주민	"	62.1	3.1
2017	남한주민	"	54.9	2.7
	북한주민	"	65.5	3.3
2018	남한주민	"	71.0	3.6
	북한주민	"	56.0	2.8
2019	남한주민	"	67.9	3.4
	북한주민	"	68.8	3.4
2020	남한주민	"	60.1	3.0
	북한주민	"	61.1	3.1
2021	남한주민	"	59.9	3.0
	북한주민	"	61.1	3.1

* 2017, 2018년 남한주민 응답률 및 상대점수 오기 수정

마) 상대방에 대한 인지도

■ 남북통합을 위해서는 남북한 주민들이 상대에 대해 많이 알아야 한다는 점에서 상대방에 대한 인지도가 어떠한가를 질문하였다. 남한주민들은 선군정치(66.7%), 주체사상(79.4%), 천리마운동(78.0%), 고난의 행군(70.7%), 장마당(66.6%), 모란봉악단(88.1%)에 대해 팔호 안의 수치만큼 알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평균 인지도는 74.9%였다. 북한주민들은 4.19 혁명(73.4%), 5.18 광주항쟁(86.0%), 88서울올림픽(59.2%), 2002 월드컵(58.8%), 세월호 사건(72.9%), 개성공업지구 운영(74.1%), 촛불 집회(50.3%), 1997 IMF 외환위기(34.2%), K-POP(케이팝)(40.9%)에 대해 팔호 안의 수치만큼 알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평균 인지도는 61.1%였다. 한편, 북한주민은 남한의 쌀과 비료에 대한 대북지원에 대해서 53.7%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 두 결과를 종합한 북한주민들의 남한에 대한 평균 인지도는 57.4%가 된다. 이를 상대점수(5점)로 환산하면 남한의 경우 4.0점, 북한의 경우 2.9점으로 총 6.9점이 된다. 남한주민들의 북한인지도는 2008년 2.9점, 2009년 2.6점, 2010년 3.0점, 2011년 3.2점, 2012년 3.0점, 2013년 3.0점, 2014년 3.1점, 2015년 3.5점,

2016년 3.5점, 2017년 3.5점, 2018년 3.9점, 2019년 3.9점, 2020년 4.0점으로 이번 조사 점수는 전년과 동일하였다. 북한주민들의 남한인지도는 2008년, 2010년 3.4점, 2009년, 2011, 2012년 3.5점, 2013년 3.2점, 2014년 3.6점, 2015년 3.5점, 2016년 3.2점, 2017년 3.4점, 2018년 3.0점, 2019년 2.9점. 2020년 2.9점으로 이번 조사에서는 전년과 동일하다. 종합인지도는 2008년 6.3점, 2009년 6.1점, 2010년 6.4점, 2011년 6.7점, 2012년 6.5점, 2013년 6.2점, 2014년 6.7점, 2015년 7.0점, 2016년 6.7점, 2017년 6.9점, 2018년 6.9점, 2019년 6.8점, 2020년 6.9점으로 2021년은 전년과 동일한 점수를 기록하였다.

〈표 3-12〉 상대방 인지도에 대한 응답률과 상대점수

연도	주민 구분	질문과 응답	응답률(%)	상대점수
2008	남한주민	질문: 귀하는 다음의 사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남한- 북한의 선군정치, 주체사상, 천리마운동, 고난의 행군, 꽃제비, 아리랑축전), (북한- 쌀, 비료 등 남한의 대북 지원) 응답: "알고 있다" 선택	58.6	2.9
	북한주민		68.7	3.4
2009	남한주민	질문: 귀하는 다음의 사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남한- 북한의 선군정치, 주체사상, 천리마운동, 고난의 행군, 장마당, 아리랑축전), (북한- 쌀, 비료 등 남한의 대북 지원) 응답: "알고 있다" 선택	52.8	2.6
	북한주민		70.8	3.5
2010	남한주민	질문: 귀하는 다음의 사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남한- 북한의 선군정치, 주체사상, 천리마운동, 고난의 행군, 장마당, 아리랑축전), (북한- 4.19 혁명, 5.18 광주항쟁, 88서울올림픽, 2002 월드컵, 쇠고기수입반대 촛불집회 / 쌀, 비료 등 남한의 대북 지원) 응답: "알고 있다" 선택	60.6	3.0
	북한주민		68.1	3.4
2011	남한주민	2010년과 상동	63.2	3.2
	북한주민		70.1	3.5
2012	남한주민	2010년과 상동	60.7	3.0
	북한주민		70.7	3.5

연도	주민 구분	질문과 응답	응답률(%)	상대점수
2013	남한주민	2010년과 상동	59.8	3.0
	북한주민		63.5	3.2
2014	남한주민	질문: 귀하는 다음의 사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남한- 북한의 선군정치, 주체사상, 천리마운동, 고난의 행군, 장마당, 아리랑축전), (북한- 4.19 혁명, 5.18 광주항쟁, 88서울올림픽, 2002 월드컵, 세월호 사건, 개성공업지구 운영 / 쌀, 비료 등 남한의 대북 지원) ^a 응답: "알고 있다" 선택	62.5	3.1
	북한주민		73.2	3.6
2015	남한주민	2014년과 상동	69.6	3.5
	북한주민		70.3	3.5
2016	남한주민	질문: 귀하는 다음의 사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남한- 북한의 선군정치, 주체사상, 천리마운동, 고난의 행군, 장마당, 모란봉악단), (북한- 4.19 혁명, 5.18 광주항쟁, 88서울올림픽, 2002 월드컵, 세월호 사건, 개성공업지구 운영 / 쌀, 비료 등 남한의 대북 지원) ^b 응답: "알고 있다" 선택	69.2	3.5
	북한주민		62.9	3.2
2017	남한주민	2016년과 상동	69.4	3.5
	북한주민		68.4	3.4
2018	남한주민	2016년과 상동	78.6c	3.9
	북한주민		59.8	3.0
2019	남한주민	질문: 귀하는 다음의 사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남한- 북한의 선군정치, 주체사상, 천리마운동, 고난의 행군, 장마당, 모란봉악단), (북한- 4.19 혁명, 5.18 광주항쟁, 88서울올림픽, 2002 월드컵, 세월호 사건, 개성공업지구 운영, 촛불집회, 1997 IMF 외환위기, K-POP(케이팝) / 쌀, 비료 등 남한의 대북 지원) ^d 응답: "알고 있다" 선택	78.5	3.9
	북한주민		58.5	2.9
2020	남한주민	2019년과 상동	79	4
	북한주민		57.4	2.9
2021	남한주민	2019년과 상동	79	4
	북한주민		57.4	2.9

a. 2014년 북한주민 질문 수정 (쇠고기수입반대 촛불집회 삭제, 세월호 사건, 개성공업지구 운영 추가)

b. 2016년 남한주민 질문 수정 (아리랑축전 삭제, 모란봉악단 추가)

c. 2018년 남한주민 응답률 오기 수정

d. 2019년 북한주민 질문 수정 (촛불집회, 1997 IMF 외환위기, K-POP(케이팝) 추가)

2) 종합

- 정치영역 의식통합지수는 남한과 북한을 각각 50%씩 배정하여 총 80점 만점으로 구성하기 때문에 5개의 측정지표에 대한 남북한의 상대점수를 합하여 최종적으로 남북한 의식통합을 산출하였다. 2021년도 정치영역 의식통합지수는 80.0점 만점에 36.3점이다.
- 2021년의 정치영역 의식통합지수는 전년인 2020년과 동일한 점수를 나타내었다. 항목별로 보면, '상대방에 대한 긍정인식', '상대방에 대한 인지도'는 전년과 동일한 수치를 나타냈고, '상대방의 무력도발 가능성 없음', '정치제도 동질성' 등은 2020년에 비하여 각각 0.5점, 0.3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통일의 필요성'은 가장 큰 수치인 0.8점 하락하였다.
- 남북한 주민의 정치영역 통합의식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3년 연속 하락하다 2012년에는 소폭 상승하였으나, 2013년에는 다시 하락하였다. 2014년에도 동일하게 소폭 상승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2015년에 다시 하락하였다. 2016년에는 남북한의 정치통합의식이 전년 대비 0.9점 상승하였고 2017년에는 0.6점 하락하였다. 2018년에는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상대적으로 크게 상승(3.0점)하였다가 2019년부터 이번 2021년도 조사까지 하락세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표 3-13〉 정치분야 의식통합지수 종합

연도	항목	남한 점수/만점	북한 점수/만점	합계
2008	통일의 필요성	5.2/10	9.5/10	14.7/20
	남북한 간 정치제도 동질성	0.5/10	0.3/10	0.8/20
	상대방의 무력도발 가능성 없음	4.8/10	6.9/10	11.7/20
	상대방에 대한 긍정인식	4.0/5	3.4/5	7.4/10
	상대방에 대한 인지도	2.9/5	3.4/5	6.3/10
	총점	17.4/40	23.5/40	40.9/80

연도	항목	남한 점수/만점	북한 점수/만점	합계
2009	통일의 필요성	5.6/10	9.7/10	15.3/20
	남북한 간 정치제도 동질성	0.4/10	0.3/10	0.7/20
	상대방의 무력도발 가능성 없음	3.7/10	5.8/10	9.5/20
	상대방에 대한 긍정인식	3.4/ 5	3.8/ 5	7.2/10
	상대방에 대한 인지도	2.6/ 5	3.5/ 5	6.1/10
	총점	15.7/40	23.1/40	38.8/80
2010	통일의 필요성	5.9/10	9.6/10	15.5/20
	남북한 간 정치제도 동질성	0.9/10	0.4/10	1.3/20
	상대방의 무력도발 가능성 없음	3.2/10	3.7/10	6.9/20
	상대방에 대한 긍정인식	3.2/ 5	3.0/ 5	6.2/10
	상대방에 대한 인지도	3.0/ 5	3.4/ 5	6.4/10
	총점	16.2/40	20.1/40	36.3/80
2011	통일의 필요성	5.4/10	9.4/10	14.8/20
	남북한 간 정치제도 동질성	0.6/10	0.4/10	1/20
	상대방의 무력도발 가능성 없음	2.2/10	4.5/10	6.7/20
	상대방에 대한 긍정인식	3.2/ 5	3.5/ 5	6.7/10
	상대방에 대한 인지도	3.2/ 5	3.5/ 5	6.7/10
	총점	14.6/40	21.3/40	35.9/80
2012	통일의 필요성	5.7/10	9.3/10	15.0/20
	남북한 간 정치제도 동질성	0.7/10	0.2/10	0.9/20
	상대방의 무력도발 가능성 없음	3.1/10	5.4/10	8.5/20
	상대방에 대한 긍정인식	3.1/ 5	3.8/ 5	6.9/10
	상대방에 대한 인지도	3.0/ 5	3.5/ 5	6.5/10
	총점	15.6/40	22.2/40	37.8/80
2013	통일의 필요성	5.5/10	10/10	15.5/20
	남북한 간 정치제도 동질성	0.9/10	0.9/10	1.8/20
	상대방의 무력도발 가능성 없음	3.4/10	3.6/10	7.0/20
	상대방에 대한 긍정인식	2.8/5	3.3/5	6.1/10
	상대방에 대한 인지도	3.0/5	3.2/5	6.2/10
	총점	15.6/40	21.0/40	36.6/80

연도	항목	남한 점수/만점	북한 점수/만점	합계
2014	통일의 필요성	5.6/10	9.8/10	15.4/20
	남북한 간 정치제도 동질성	0.9/10	0.3/10	1.2/20
	상대방의 무력도발 가능성 없음	2.5/10	5.2/10	7.7/20
	상대방에 대한 긍정인식	2.9/5	3.4/5	6.3/10
	상대방에 대한 인지도	3.1/5	3.6/5	6.7/10
	총점	15.0/40	22.3/40	37.3/80
2015	통일의 필요성	5.1/10	9.5/10	14.6/20
	남북한 간 정치제도 동질성	0.7/10	0.7/10	1.4/20
	상대방의 무력도발 가능성 없음	3.0/10	4.3/10	7.3/20
	상대방에 대한 긍정인식	2.6/5	3.2/5	5.8/10
	상대방에 대한 인지도	3.5/5	3.5/5	7.0/10
	총점	14.9/40	21.2/40	36.1/80
2016	통일의 필요성	5.3/10	9.8/10	15.1/20
	남북한 간 정치제도 동질성	0.8/10	0.3/10	1.1/20
	상대방의 무력도발 가능성 없음	3.4/10	4.7/10	8.1/20
	상대방에 대한 긍정인식	2.8/5	3.1/5	5.9/10
	상대방에 대한 인지도	3.5/5	3.2/5	6.7/10
	총점	15.8/40	21.1/40	36.9/80
2017	통일의 필요성	5.4/10	9.5/10	14.9/20
	남북한 간 정치제도 동질성	0.8/10	0.3/10	1.1/20
	상대방의 무력도발 가능성 없음	2.9/10	4.4/10	7.3/20
	상대방에 대한 긍정인식	2.7/5	3.3/5	6.0/10
	상대방에 대한 인지도	3.5/5	3.4/5	6.9/10
	총점	15.3/40	20.9/40	36.2/80
2018	통일의 필요성	6.0/10	9.3/10	15.3/20
	남북한 간 정치제도 동질성	0.6/10	0.3/10	0.9/20
	상대방의 무력도발 가능성 없음	4.4/10	5.3/10	9.7/20
	상대방에 대한 긍정인식	3.6/10	2.8/10	6.4/20
	상대방에 대한 인지도	3.9/10	3.0/10	6.9/20
	총점	18.6/40	20.7/40	39.2/80

연도	항목	남한 점수/만점	북한 점수/만점	합계
2019	통일의 필요성	5.3/10	9.4/10	14.7/20
	남북한 간 정치제도 동질성	0.6/10	0.2/10	0.8/20
	상대방의 무력도발 가능성 없음	4.2/10	5.6/10	9.8/20
	상대방에 대한 긍정인식	3.4/10	3.4/10	6.8/20
	상대방에 대한 인지도	3.9/10	2.9/10	6.8/20
	총점	17.4/40	21.5/40	38.9/80
2020	통일의 필요성	5.2/10	8.7/10	13.9/20
	남북한 간 정치제도 동질성	0.6/10	0.1/10	0.7/20
	상대방의 무력도발 가능성 없음	3.9/10	4.8/10	8.7/20
	상대방에 대한 긍정인식	3.0/10	3.1/10	6.1/20
	상대방에 대한 인지도	4.0/10	2.9/10	6.9/20
	총점	16.7/40	19.6/40	36.3/80
2021	통일의 필요성	4.4/10	8.7/10	13.1/20
	남북한 간 정치제도 동질성	0.9/10	0.1/10	1.0/20
	상대방의 무력도발 가능성 없음	4.4/10	4.8/10	9.2/20
	상대방에 대한 긍정인식	3.0/5	3.1/5	6.1/20
	상대방에 대한 인지도	4.0/5	2.9/5	6.9/20
	총점	16.7/40	19.6/40	36.3/80

* 2009, 2015, 2017, 2018년 점수 오기 수정

** 2018, 2019, 2020년 '상대방에 대한 긍정인식', '상대방에 대한 인지도' 만점 오기 수정

다. 사회문화

- 사회문화영역 의식통합의 측정 지표는 상대방의 사회문화에 대한 인지수준, 상대방에 대한 수용의식,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 해소, 사회문화양식의 동질성, 통일 이후의 사회평등 기대수준 5가지이다.
- 사회문화영역의 의식통합지수를 구성하는 변인과 배점에 대한 세부사항은 아래의 <표3-14>와 같다. 각 변인에 해당하는 최종점수는 남북한 주민 각각의 질문 응답 비율을 다시 각 변인에 해당하는 배점을 기준으로 한 상대점수로 환산하여 산출된다.

〈표 3-14〉 사회문화영역 의식통합 변인과 배점

통합영역	변인	배점(남한)	배점(북한)
사회문화 의식 통합 (총 90점)	상대방의 사회문화에 대한 인지 수준	5	5
	상대방에 대한 수용의식	10	10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 해소	10	10
	사회문화양식의 동질성	10	10
	통일 이후 사회평등 기대 수준	10	10
	소계	45	45

1) 지표별 응답률과 상대점수

가) 상대방의 사회문화에 대한 인지 수준

- 상대방의 사회문화에 대한 인지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상대방의 사회문화를 얼마나 접촉한 경험이 있는가를 질문한 결과를 상대점수(5점 만점)으로 전환하면 남한주민 1.5점, 북한주민 4.4점이다.
 - 위 질문에 대해 남한주민은 29.5%, 북한주민은 87.9%가 상대방의 사회문화를 접해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남북 각각의 응답률을 상대점수(5점 만점)로 전환하면 남한주민의 경우 1.5점, 북한주민의 경우 4.4점이 부여된다.
 - 남한주민의 경우 북한의 사회문화를 접해보았다는 응답이 전년 대비 7.0%p 늘어났다.
 - 2021년 북한주민의 응답률은 충분한 조사 표본을 확보하지 못하여 2019년과 2020년 응답률에 50:50의 가중치를 두어 계산한 2020년 응답률과 같은 값으로 처리하였다.(이하 동일).¹⁹⁾

19)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북한의 국경봉쇄로 북한이탈주민조사의 표본 수가 충분하지 못해 2021년 값은 2020년 수치와 동일한 값을 부여하였다.

〈표 3-15〉 상대방의 사회문화에 대한 인지 수준 응답률과 상대점수

		질문과 응답	응답률(%)	상대점수
2008	남한주민	질문: 귀하는 남한(북한) 방송, 영화, 드라마, 노래(음악) 등을 접해본 적이 있습니까? 응답: "접해봄" 또는 "있다" 선택	31.2	1.6
	북한주민		64.7	3.3
2009	남한주민	"	46.2	2.3
	북한주민		56.5	2.8
2010	남한주민	"	37.4	1.9
	북한주민		77.3	3.9
2011	남한주민	"	31.5	1.6
	북한주민		90.0	4.5
2012	남한주민	"	32.3	1.6
	북한주민		88.0	4.4
2013	남한주민	"	27.3	1.4
	북한주민		85.9	4.3
2014	남한주민	"	31.5	1.6
	북한주민		87.7	4.4
2015	남한주민	"	23.2	1.2
	북한주민		87.0	4.4
2016	남한주민	"	21.6	1.1
	북한주민		86.4	4.3
2017	남한주민	"	29.3	1.5
	북한주민		81.6	4.1
2018	남한주민	"	20.6	1.0
	북한주민		91.4	4.6
2019	남한주민	"	25.5	1.3
	북한주민		82.5	4.1
2020	남한주민	"	22.5	1.1
	북한주민		87.9	4.4
2021	남한주민	"	29.5	1.5
	북한주민		87.9	4.4

※ 자료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통일외식조사 2010-2021 DATA SET (KOSSDA 기탁) 참조.

나) 상대방의 사회문화에 대한 수용의식

■ 상대방의 사회문화에 대한 수용의식을 측정하기 위해 상대방(또는 상대방의 사회문화)을 접촉하였을 때 얼마나 친근감을 느꼈는가를 질문했다. 남북 각각의 응답률을 상대점수(10점 만점)로 전환하면 남한주민의 경우 2.4점, 북한주민의 경우 9.0점이다.

- 2021년의 경우 남한주민은 24.3%, 북한주민은 90.2%가 상대방에 대해 친근감을 느꼈다고 응답해, 남북한 주민 간 큰 격차를 보였다.
- 2009년 조사까지는 남한주민과 북한주민 각각에게 질문한 내용이 상이했던 점을 보완하여 2010년 조사 때부터는 질문 문항의 표현을 아래의 <표 3-16>과 같이 동일하게 조정했다.

■ 2021년 남북한 주민의 상호 수용의식에 대한 응답 격차는 65.9%p로 전년 69.2%p보다 감소했다.

- 남북한주민 상호 수용의식에 대한 응답 격차는 2017년 63.9%p를 기록한 이래 2018년 61.3%p → 2019년 57.3%p로 감소세를 보이다가 2020년 69.2%p로 대폭 증가해 지수 산출 이후 최대 격차를 보였다. 2021년에는 65.9%p로 작년에 비해 감소한 수치이나 여전히 큰 격차를 보인다.
- 전반적으로 남한주민의 북한주민 수용의식 상대점수는 2~4점 내외, 북한주민의 남한주민 수용의식 8~9점 내외로 북한주민의 상대방 수용의식 상대점수가 남한주민에 비해 2~4배 높다.

<표 3-16> 상대방에 대한 수용의식 응답률과 상대점수

		질문과 응답	응답률 (%)	상대 점수
2008	남한주민	질문: 귀하는 탈북자(새터민)가 얼마나 친근하게 느껴지십니까? 응답: "친근하게 느껴진다" 선택	36.1	3.6
	북한주민	질문: 귀하는 남한[북한] 방송, 영화, 드라마, 노래(음악) 등을 접했을 때 어떤 느낌이셨습니까? 응답: "친숙했음" 선택	72.1	7.2
2009	남한주민	"	36.3	3.6
	북한주민	"	52.1	5.2
2010	남한주민	"	42.4	4.2
	북한주민 (변경 후)	질문: 귀하는 남한출신 주민이 얼마나 친근하게 느껴지십니까? 응답: "친근하게 느껴진다" 선택	91.9	9.2
2011	남한주민	2008년 문항 상동	41.0	4.1
	북한주민	2010년 문항 상동	90.5	9.1
2012	남한주민	"	39.5	4.0
	북한주민	"	89.7	9.0
2013	남한주민	"	42.0	4.2
	북한주민	"	87.1	8.7
2014	남한주민	"	43.2	4.3
	북한주민	"	90.6	9.0
2015	남한주민	"	45.9	4.6
	북한주민	"	91.7	9.2
2016	남한주민	"	29.0	2.9
	북한주민	"	92.4	9.2
2017	남한주민	"	25.8	2.6
	북한주민	"	89.7	9.0
2018	남한주민	"	27.5	2.8
	북한주민	"	88.8	8.9
2019	남한주민	"	29.8	3.0
	북한주민	"	87.1	8.7
2020	남한주민	"	21.0	2.1
	북한주민	"	90.2	9.0
2021	남한주민	"	24.3	2.4
	북한주민	"	90.2	9.0

※ 자료 : <표 3-15>과 동일

다)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 해소

■ 남북한 주민에게 각각 상대방을 ‘적대대상’으로 인식하는 정도에 대한 질문에 대한 역응답률을 상대점수로 환산하면 남한 주민의 상대점수는 8.9점, 북한 주민의 상대점수는 6.8점이다.

○ 남한 주민은 11.2%, 북한주민은 32.5%가 상대방을 적대대상으로 인식한다고 응답했다. 의식통합에 통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적대감 해소” 정도이기 때문에 이 변인에 대한 점수는 적대감의 역응답률을 적용한다.

○ 남한주민의 경우 역응답률 88.8%에 대한 상대점수는 8.9점, 북한주민의 역응답률 67.5%에 대한 상대점수는 6.8점이다.

■ 2021년 남한주민의 적대의식은 전년대비 3.6%p 감소했다.

○ 상대방을 적대대상으로 인식한다는 응답은 2021년에 북한주민은 전년도와 동일한 적대의식 수치를 적용한 가운데 남한주민은 전년대비 3.6%p 감소하여 21.3%p라는 역대 가장 큰 남북한 상호 적대의식의 응답격차를 보인다.

○ 2020년에는 전년 대비 남한주민과 북한주민 모두 상대를 ‘적대대상’으로 인식한다는 응답이 증가하여 남북관계가 전면 단절된 상황을 반영했으나 2021년 남한주민의 적대의식이 소폭 감소한 것은 단절된 상황에서 지난 1년 동안 북한의 심각한 수준의 도발이 없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²⁰⁾

20) 김병로, 2022, “제2장 북한에 대한 인식”. 김범수 외, 『2021 통일인식조사』,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p.76

〈표 3-17〉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 해소 응답률과 상대점수

		질문과 응답	응답률 (%)	역응답률 (%)	상대점수
2008	남한주민	질문: 귀하는 남한[북한]이 북한[남한]에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으십니까?	5.4	94.6	9.5
	북한주민	응답: “적대대상” 선택	20.9	79.1	7.9
2009	남한주민	”	9.1	90.9	9.1
	북한주민	”	11.4	88.6	8.9
2010	남한주민	”	12.0	88.0	8.8
	북한주민	”	13.3	86.7	8.7
2011	남한주민	”	16.7	83.3	8.3
	북한주민	”	15.7	84.3	8.4
2012	남한주민	”	10.9	89.1	8.9
	북한주민	”	12.9	87.1	8.7
2013	남한주민	”	16.4	83.6	8.4
	북한주민	”	20.1	79.9	8.0
2014	남한주민	”	13.9	86.1	8.6
	북한주민	”	16.4	83.6	8.4
2015	남한주민	”	16.5	83.5	8.4
	북한주민	”	22.5	77.5	7.8
2016	남한주민	”	14.8	85.2	8.5
	북한주민	”	23.5	76.5	7.7
2017	남한주민	”	16.2	83.8	8.4
	북한주민	”	28.7	71.3	7.1
2018	남한주민	”	10.3	89.7	9.0
	북한주민	”	30.2	69.8	7.0
2019	남한주민	”	10.8	89.2	8.9
	북한주민	”	18.3	81.7	8.2
2020	남한주민	”	14.8	85.2	8.5
	북한주민	”	32.5	67.5	6.8
2021	남한주민	”	11.2	88.8	8.9
	북한주민	”	32.5	67.5	6.8

※ 자료 : 〈표 3-15〉과 동일

라) 사회문화양식의 동질성

■ 남북한 간 사회문화양식의 동질성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남북한 간의 사회문화 양식(언어, 생활풍습)이 얼마나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응답을 상대점수(10점 만점)으로 전환하면 남한주민의 경우 2.6점, 북한주민의 경우 0.7점이다.

○ 남한주민은 역대 가장 높은 25.9% 북한주민은 7.4%가 상대방의 사회문화양식에 차이가 없다고 응답했다.

■ 상대방의 사회문화에 대한 접촉 경험 정도를 감안할 때 여전히 서로에 대한 동질감을 느끼는 정도는 낮게 나타나 상대방의 사회문화에 대한 접촉이 동질감의 확인으로 연결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드러낸다.

○ 남한주민의 29.5%, 북한주민은 87.9%가 상대방의 사회문화를 접해 본 경험이 있다고 답한 것을 고려하면, 특히 북한주민이 남한 사회문화 양식에 이질성을 느끼는 정도가 크다.

〈표 3-18〉 남북 사회문화양식의 동질성 응답률과 상대점수

질문과 응답		질문1 응답률 (%)	질문2 응답률 (%)	평균 응답률 (%)	상대 점수
2008	남한주민 문항1 질문: 언어사용에서 남북한 간의 차이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전혀 차이없음"과 "별로 차이없음" 선택	17.6	17.0	17.3	1.7
	북한주민 문항2 질문: 생활풍습에서 남북한 간의 차이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전혀 차이없음"과 "별로 차이없음" 선택	6.6	12.4	9.5	1.0
2009	남한주민	7.2	11.8	9.5	1.0
	북한주민	4.6	7.3	6.0	0.6
2010	남한주민	10.9	13.3	12.1	1.2
	북한주민	5.8	4.8	5.3	0.5

질문과 응답		질문1 응답률 (%)	질문2 응답률 (%)	평균 응답률 (%)	상대 점수
2011	남한주민	9.2	11.7	10.4	1.0
	북한주민	2.4	11.6	7.0	0.7
2012	남한주민	11.9	14.3	13.1	1.3
	북한주민	5.3	10.5	7.9	0.8
2013	남한주민	14.7	14.2	14.45	1.5
	북한주민	4.7	8.1	6.4	0.6
2014	남한주민	16.4	16.7	16.55	1.7
	북한주민	6.2	13	9.6	1.0
2015	남한주민	15.8	17.9	16.85	1.7
	북한주민	6.5	10.8	8.65	0.9
2016	남한주민	18.7	22.2	20.45	2.0
	북한주민	9.0	3.8	6.4	0.6
2017	남한주민	17.5	22.9	20.2	2.0
	북한주민	13.8	13.7	13.8	1.4
2018	남한주민	16.3	23.6	19.8	2.0
	북한주민	6.8	14.6	10.7	1.1
2019	남한주민	13.6	19.2	16.4	1.6
	북한주민	6.4	16.5	11.45	1.1
2020	남한주민	15.9	21.9	18.9	1.9
	북한주민	3.2	11.6	7.4	0.7
2021	남한주민	22.6	29.2	25.9	2.6
	북한주민	3.2	11.6	7.4	0.7

※ 자료 : 〈표 3-15〉과 동일

마) 통일 이후의 사회평등 기대수준

■ 남북한 주민 모두에게 “귀하는 통일이 되면 빈부격차가 통일 전에 비해 얼마나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동일한 질문에 대한 남북 각각의 응답률을 상대점수(10점 만점)로 전환하면 남한주민의 경우 0.8 점, 북한주민의 경우 8.3점으로 점수 간 차이가 크다.

○ 2021년 남한주민 7.6%, 북한주민 83.4%가 통일 이후에 빈부의 격차 문제가 개선될 것이라고 응답해 양자 간 차이는 75.8%p로 남북한 주민 간의 큰 인

식의 차이를 보였다.

○ 2009년까지는 남한주민 의식조사와 북한주민(북한이탈주민) 의식조사 간에 '통일 이후의 사회평등 기대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동일한 질문이 없어 그에 상응하는 각각의 질문을 추출하여 사용했으나 2010년부터는 남북한 주민 모두에게 "귀하는 통일이 되면 빈부격차가 통일 전에 비해 얼마나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동일하게 질문했다.

- 2021년 남한주민의 경우 통일 이후 사회평등에 대한 기대 수준은 역대 가장 낮은 0.8점을 나타냈다.
- 2010년 이래로 통일 이후 빈부격차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는 북한주민에게서 계속해서 73~86%대를 유지하여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남한주민은 20% 미만으로 유지하여 훨씬 낮은 기대수준을 보인다. 이러한 양측의 온도차는 통일비용과 통일편익에 대한 기대감의 차이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3-19〉 통일 이후의 사회평등 기대수준 응답률과 상대점수

질문과 응답		응답률(%)	상대점수
2008	남한주민 질문: 귀하는 통일이 되면 빈부격차가 통일 전에 비해 얼마나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크게 개선"과 "약간 개선" 선택	10.0	1.0
	북한주민 질문: 귀하는 통일이 되면 북쪽 주민이 남쪽 주민과 비교해서 어떤 대우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출신지역과 상관없이 똑같은 대우를 받을 것임" 선택	38.5	3.9
2009	남한주민 "	14.7	1.5
	북한주민 "	44.0	4.4
2010	남한주민 "	15.8	1.6
	북한주민 (변경 후) 질문: 귀하는 통일이 되면 빈부격차가 통일 전에 비해 얼마나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크게 개선"과 "약간 개선" 선택	77.2	7.7
2011	남한주민 2008년 문항 상동	12.5	1.3
	북한주민 2010년 문항 상동	77.9	7.8

질문과 응답		응답률(%)	상대점수
2012	남한주민 "	12.2	1.2
	북한주민 "	86.3	8.6
2013	남한주민 "	14.8	1.5
	북한주민 "	85.3	8.5
2014	남한주민 "	13.6	1.4
	북한주민 "	79.4	8.0
2015	남한주민 "	19.8	2.0
	북한주민 "	86.2	8.6
2016	남한주민 "	12.3	1.2
	북한주민 "	80.3	8.0
2017	남한주민 "	16.8	1.7
	북한주민 "	86.2	8.6
2018	남한주민 "	11.6	1.2
	북한주민 "	80.1	8.0
2019	남한주민 "	18.1	1.8
	북한주민 "	73.4	7.3
2020	남한주민 "	9.4	0.9
	북한주민 "	83.4	8.3
2021	남한주민 "	7.6	0.8
	북한주민 "	83.4	8.3

※ 자료 : 〈표 3-15〉과 동일

2) 종합

- 2021년 사회문화영역 의식통합지수는 90점 만점 중 45.4점으로 2020년 43.8점에서 다소 상승했다. 남한주민의 의식통합지수는 전년 대비 1.6점 상승하였으며,²¹⁾ 북한주민의 의식통합지수는 전년과 동일한 반면 남한주민 상대점수의 상승이 의식통합지수 상승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

21) 합계 점수는 각 부문별 점수를 합산 후 반올림한 것으로 부문별로 반올림 후 합산한 것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사회문화영역 의식통합지수가 측정되기 시작한 2008년 이후부터 2021년까지 13년간의 사회문화영역 의식통합지수의 변동 추이는 일정한 수준을 유지한 가운데 2021년 소폭 상승했다. 사회문화영역 의식통합지수 전반에서 드러나는 부동성(不動性)은 남북한 주민 모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다.

○ 2008년 40.7점 → 2009년 39.4점 → 2010년 47.7점 → 2011년 46.8점 → 2012년 48.5점 → 2013년 47.1점 → 2014년 48.4점 → 2015년 48.8점 → 2016년 45.5점 → 2017년 46.4점 → 2018년 45.6점 → 2019년 46.0점 → 2020년 43.8점 → 2021년 45.4점으로 2010년 이후로 큰 변동 없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해오다가 2021년 소폭 상승했다.

○ 의식통합지수 전반의 부동성은 북한주민에게서 보다 분명히 드러나며, 남한주민의 상대점수 변화에 따라 사회문화 영역 의식통합지수가 변동하는 추세를 보인다.

〈그림 3-1〉 사회문화영역 의식통합지수 (2008~2021)



■ 항목별 남북한 주민의 비중을 비교해 보면, 상대방의 사회문화에 대한 인지 수준 항목은 남한주민 1.5점, 북한주민 4.4점, 상대방에 대한 수용의식 항목은 남한주민 2.4점, 북한주민 9.0점, 통일 이후 사회평등 기대수준 항목은 남한주민 0.8점, 북한주민 8.3점으로 남북한 주민 간 의식 격차가 크다.

■ 반면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 해소 항목은 남한주민 8.9점, 북한주민 6.8점이며, 사회문화양식의 동질성 항목은 남한주민 2.6점, 북한주민 0.7점으로 남북한 주민의 의식 간 격차가 크지 않다. 단, 사회문화양식 동질성 항목에 대한 점수는 남북한 모두 낮게 나타나 상호 사회문화에 대한 이질성을 크게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3-20〉 사회문화영역 의식통합지수 종합

	항목	남한 상대점수 /배점	북한 상대점수 /배점	합계 /만점
2008	상대방의 사회문화에 대한 인지수준	1.6/5	3.3/5	4.9/10
	상대방에 대한 수용의식	3.6/10	7.2/10	10.8/20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 해소	9.5/10	7.9/10	17.4/20
	사회문화양식의 동질성	1.7/10	1.0/10	2.7/20
	통일 이후 사회평등 기대수준	1.0/10	3.9/10	4.9/20
	총점	17.4/45	23.3/45	40.7/90
2009	상대방의 사회문화에 대한 인지수준	2.3/5	2.8/5	5.1/10
	상대방에 대한 수용의식	3.6/10	5.2/10	8.8/20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 해소	9.1/10	8.9/10	18/20
	사회문화양식의 동질성	1.0/10	0.6/10	1.6/20
	통일 이후 사회평등 기대수준	1.5/10	4.4/10	5.9/20
	총점	17.5/45	21.9/45	39.4/90
2010	상대방의 사회문화에 대한 인지수준	1.9/5	3.9/5	5.8/10
	상대방에 대한 수용의식	4.2/10	9.2/10	13.4/20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 해소	8.8/10	8.7/10	17.5/20
	사회문화양식의 동질성	1.2/10	0.5/10	1.6/20
	통일 이후 사회평등 기대수준	1.6/10	7.7/10	9.3/20
	총점	17.7/45	30.0/45	47.7/90

	항목	남한 상대점수 /배점	북한 상대점수 /배점	합계 /만점
2011	상대방의 사회문화에 대한 인지수준	1.6/5	4.5/5	6.1/10
	상대방에 대한 수용의식	4.1/10	9.1/10	13.2/20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 해소	8.3/10	8.4/10	16.7/20
	사회문화양식의 동질성	1.0/10	0.7/10	1.7/20
	통일 이후 사회평등 기대수준	1.3/10	7.8/10	9.1/20
	총점	16.3/45	30.5/45	46.8/90
2012	상대방의 사회문화에 대한 인지수준	1.6/5	4.4/5	6.0/10
	상대방에 대한 수용의식	4.0/10	9.0/10	13.0/20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 해소	8.9/10	8.7/10	17.6/20
	사회문화양식의 동질성	1.3/10	0.8/10	2.1/20
	통일 이후 사회평등 기대수준	1.2/10	8.6/10	9.8/20
	총점	17.0/45	31.5/45	48.5/90
2013	상대방의 사회문화에 대한 인지수준	1.4/5	4.3/5	5.7/10
	상대방에 대한 수용의식	4.2/10	8.7/10	12.9/20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 해소	8.4/10	8.0/10	16.4/20
	사회문화양식의 동질성	1.5/10	0.6/10	2.1/20
	통일 이후 사회평등 기대수준	1.5/10	8.5/10	10.0/20
	총점	17.0/45	30.1/45	47.1/90
2014	상대방의 사회문화에 대한 인지수준	1.6/5	4.4/5	6.0/10
	상대방에 대한 수용의식	4.3/10	9.0/10	13.3/20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 해소	8.6/10	8.4/10	17.0/20
	사회문화양식의 동질성	1.7/10	1.0/10	2.7/20
	통일 이후 사회평등 기대수준	1.4/10	8.0/10	9.4/20
	총점	17.6/45	30.8/45	48.4/90

	항목	남한 상대점수 /배점	북한 상대점수 /배점	합계 /만점
2015	상대방의 사회문화에 대한 인지수준	1.2/5	4.4/5	5.6/10
	상대방에 대한 수용의식	4.6/10	9.2/10	13.8/20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 해소	8.4/10	7.8/10	16.2/20
	사회문화양식의 동질성	1.7/10	0.9/10	2.6/20
	통일 이후 사회평등 기대수준	2.0/10	8.6/10	10.6/20
	총점	17.9/45	30.9/45	48.8/90
2016	상대방의 사회문화에 대한 인지수준	1.1/5	4.3/5	5.4/10
	상대방에 대한 수용의식	2.9/10	9.2/10	12.1/20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 해소	8.5/10	7.7/10	16.2/20
	사회문화양식의 동질성	2.0/10	0.6/10	2.6/20
	통일 이후 사회평등 기대수준	1.2/10	8.0/10	9.3/20
	총점	15.7/45	29.8/45	45.5/90
2017	상대방의 사회문화에 대한 인지수준	1.5/5	4.1/5	5.6/10
	상대방에 대한 수용의식	2.6/10	9.0/10	11.6/20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 해소	8.4/10	7.1/10	15.5/20
	사회문화양식의 동질성	2.0/10	1.4/10	3.4/20
	통일 이후 사회평등 기대수준	1.7/10	8.6/10	10.3/20
	총점	16.2/45	30.2/45	46.4/90
2018	상대방의 사회문화에 대한 인지수준	1.0/5	4.6/5	5.6/10
	상대방에 대한 수용의식	2.8/10	8.9/10	11.7/20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 해소	9.0/10	7.0/10	16/20
	사회문화양식의 동질성	2.0/10	1.1/10	3.1/20
	통일 이후 사회평등 기대수준	1.2/10	8.0/10	9.2/20
	총점	16/45	29.6/45	45.6/90
2019	상대방의 사회문화에 대한 인지수준	1.3/5	4.1/5	5.4/10
	상대방에 대한 수용의식	3.0/10	8.7/10	11.7/20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 해소	8.9/10	8.2/10	17.1/20
	사회문화양식의 동질성	1.6/10	1.1/10	2.7/20
	통일 이후 사회평등 기대수준	1.8/10	7.3/10	9.1/20
	총점	16.6/45	29.4/45	46.0/90

	항목	남한 상대점수 /배점	북한 상대점수 /배점	합계 /만점
2020	상대방의 사회문화에 대한 인지도	1.1/5	4.4/5	5.5/10
	상대방에 대한 수용의식	2.1/10	9/10	11.1/20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 해소	8.5/10	6.8/10	15.3/20
	사회문화양식의 동질성	1.9/10	0.7/10	2.6/20
	통일 이후 사회평등 기대수준	0.9/10	8.3/10	9.3/20
	총점	14.6/45	29.2/45	43.8/90
2021	상대방의 사회문화에 대한 인지도	1.5/5	4.4/5	5.9/10
	상대방에 대한 수용의식	2.4/10	9/10	11.5/20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 해소	8.9/10	6.8/10	15.6/20
	사회문화양식의 동질성	2.6/10	0.7/10	3.3/20
	통일 이후 사회평등 기대수준	0.8/10	8.3/10	9.1/20
	총점	16.1/45	29.2/45	45.4/90

3. 종합

- 2021년 남북 의식통합지수는 경제영역 41.0점, 정치영역 36.3점, 사회문화영역 45.4점을 합한 결과 총 122.7점이다. 이 수치는 2020년의 121.9점에서 0.8점 상승한 것이다. 이 변화는 사회문화영역에서 전년 대비 1.6점 상승한 결과를 반영한 값이다. 이에 반해 경제영역은 0.8점 하락하였고 정치영역은 전년과 동일하였다.
- 연도별 의식통합지수의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2008년 123.5점 → 2009년 119.5점 → 2010년 124.6점 → 2011년 124.2점 → 2012년 128.8점 → 2013년 124.5점 → 2014년 129.1점 → 2015년 127.5점 → 2016년 121.7점 → 2017년 120.9점 → 2018년 126점 → 2019년 129.9점 → 2020년 121.9점 → 2021년 121.9점으로 짧은 주기의 등락이 반복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남북한 주민의 의식통합 수준이 남북관계의 상황적 요인에 영향을 받아 변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최근 10년간은 꾸준히 120점대를 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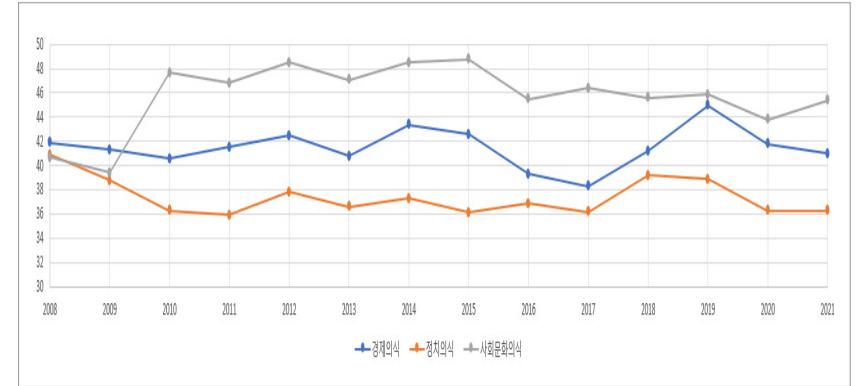
지하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큰 폭의 변화 없이 일관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영역별로 연도별 추이를 요약해 보면, 먼저 경제영역 의식통합의 경우 2008년 41.9점 → 2009년 41.3점 → 2010년 40.6점 → 2011년 41.5점 → 2012년 42.5점 → 2013년 40.8점 → 2014년 43.4점 → 2015년 42.6점 → 2016년 39.3점 → 2017년 38.3점 → 2018년 41.2점 → 2019년 45점 → 2020년 41.8점 → 2021년 41.0점으로 나타났다. 북한주민의 경우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남한주민은 대북 투자와 사업에 대한 우호도 항목만 전년과 동일하였고, 통일이 남한 혹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정도, 남북 경제교류에 대한 평가 등의 항목은 소폭 하락함으로써 작년과 동일하게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다.
- 다음으로, 정치영역 의식통합의 경우 2008년 40.9점 → 2009년 38.8점 → 2010년 36.3점 → 2011년 35.9점 → 2012년 37.8점 → 2013년 36.6점 → 2014년 37.3점 → 2015년 36.1점 → 2016년 36.9점 → 2017년 36.2점 → 2018년 39.2점 → 2019년 38.9점 → 2020년 36.3점 → 2021년 36.3점으로 변화했다. 항목별로 보면 상대방에 대한 긍정인식, 상대방에 대한 인지도 등은 전년과 동일한 수치를 나타냈으나 정치제도 동질성, 상대방의 무력도발 가능성 없음 등의 문항은 지난해에 비하여 각각 0.3점, 0.5점으로 소폭 상승하였다. 반면 통일의 필요성은 전년 대비 0.8점 하락하였다.
- 2008년 이후부터 2021년까지 13년간 사회문화영역 의식통합지수의 변동 추이는 2008년 40.7점 → 2009년 39.4점 → 2010년 47.7점 → 2011년 46.8점 → 2012년 48.5점 → 2013년 47.1점 → 2014년 48.4점 → 2015년 48.8점 → 2016년 45.5점 → 2017년 46.4점 → 2018년 45.6점 → 2019년 46.0점 → 2020년 43.8점 → 2021년 45.4점으로 2010년 이후로 큰 변동 없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2021년 조사에서는 통일 이후 사회평등 기대수준이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한 것을 제외하고 상대방의 사회문화에 대한 인지도, 상대방에 대한 수용의식,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 해소, 사회문화양식의 동질성 등이 모두 상승하였다.

〈표 3-21〉 남북의식통합지수 연도별 변화

영역	변인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경제 영역 (80)	남한	통일이 남한 혹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정도	7.8	7.9	7.8	7.0	8.2	8.5	7.8	7.6	8.4	9.3	8.3	8.0	
		인도적 지원과 남북한 경제협력의 통일기여도	6.0	5.6	5.9	5.4	5.5	5.8	4.7	5.3	6.3	6.6	5.9	5.4	
		대북 지원의 증감에 대한 의견	2.5	2.2	2.4	2.4	3.3	3.3	3.4	3.7	4.2	4.6	4.0	4.0	
	북한	북한 체제에 대한 평가와 시장경제에 대한 우호도	6.3	6.2	7.0	7.0	7.9	7.3	6.9	5.9	7.1	6.9	7.2	7.2	
		개혁의 성과와 대북 지원에 대한 인지도	10.1	10.8	10.8	10.2	10.9	10.4	9.5	9.1	8.6	9.8	9.3	9.3	
		대북 투자와 사업에 대한 우호도	7.9	8.8	8.6	8.5	7.6	7.3	7.0	6.7	6.6	7.8	7.1	7.1	
	소계		40.6	41.5	42.5	40.8	43.4	42.6	39.3	38.3	41.2	45.0	41.8	41.0	
	정치 영역 (80)	남한	통일의 필요성	15.5	14.8	15.0	15.5	15.4	14.6	15.1	14.9	15.3	14.7	13.9	13.1
			정치제도 동질성	1.3	1.0	0.9	1.8	1.2	1.4	1.1	1.1	0.9	0.8	0.7	1.0
			상대방의 무력도발 가능성 없음	6.9	6.7	8.5	7.0	7.7	7.3	8.1	7.3	9.7	9.8	8.7	9.2
상대방에 대한 긍정인식			6.2	6.7	6.9	6.1	6.3	5.8	5.9	6.1	6.4	6.8	6.1	6.1	
상대방에 대한 인지도			6.4	6.7	6.5	6.2	6.7	7.0	6.7	6.9	6.9	6.8	6.9	6.9	
소계		36.3	35.9	37.8	36.6	37.3	36.1	36.9	36.2	39.2	38.9	36.3	36.3		
사회 문화 영역 (90)	남한	상대방의 사회문화에 대한 인지 수준	5.8	6.1	6.0	5.7	6.0	5.6	5.4	5.6	5.6	5.4	5.5	5.9	
		상대방의 사회문화에 대한 수용 의식	13.4	13.2	13.0	12.9	13.3	13.8	12.1	11.6	11.7	11.7	11.1	11.5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 해소	17.5	16.7	17.6	16.4	17.0	16.2	16.2	15.5	16	17.1	15.3	15.6	
		사회문화양식의 동질성	1.6	1.7	2.1	2.1	2.7	2.6	2.6	3.4	3.1	2.7	2.6	3.3	
		통일 이후 사회평등 기대수준	9.3	9.1	9.8	10.0	9.4	10.6	9.3	10.3	9.2	9.1	9.3	9.1	
	소계		47.7	46.8	48.5	47.1	48.4	48.8	45.5	46.4	45.6	46.0	43.8	45.4	
합계	만점 250점	124.6	124.2	128.8	124.5	129.1	127.5	121.7	120.9	126.0	129.9	121.9	122.7		

〈그림 3-2〉 의식통합지수 2010~2021년 변화 추이



4

3장. 남북통합지수

IPUS

3장. 남북통합지수 : 2010~2021

- 2021년 남북통합지수는 1,000점 만점에 179.5점이다. 남북한의 통합수준을 백분율로 표시하면 18.0%이다.
 - 2021년 남북통합지수는 2020년 180.1점에 비해 0.6점이 하락하였다. 남북 관계의 급격한 진전이 있었던 2018년 이후 관계 경색이 지속되고 군사적 긴장 역시 높아진 현 상황을 여전히 반영하고 있다. 통합률은 18.0%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 제도적 통합지수는 270점 만점 중 28.9점으로 전년 대비 1.5점 하락하였고, 관계적 통합지수도 480점 만점 중 27.9점으로 전년 대비 0.9점 하락하여 전체적인 구조통합지수는 전년 대비 1.4점이 하락했다. 반면 의식통합지수는 250점 만점 중 122.7점으로 전년 121.9점 대비 0.8점 상승하였다.

- 영역별로는 경제, 정치영역에서 전년 대비 통합지수가 하락하였으나 사회문화 영역에서는 소폭 상승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 경제영역 통합지수는 51.3점, 정치영역 통합지수는 50.6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1점, 0.4점 하락하였으나 사회문화영역 통합지수는 77.6점으로 전년 대비 0.9점 상승하였다.
 - 관계통합지수는 전년 대비 0.1점 상승한 27.9점을 기록하였다. 경제영역과 사회문화영역은 각각 0.2점, 0.1점씩 하락하였지만, 정치영역은 0.4점 상승하였다.
 - 제도통합지수는 전년 대비 모두 하락하였다. 경제영역은 0.1점, 정치영역은 0.8점, 사회문화영역은 0.6점 하락하여 총 1.5점 하락한 28.9점을 기록하였다.
 - 의식통합지수는 전년과 대비하여 경제영역에서는 하락하고 정치영역

은 동일하였다. 한편 사회문화영역은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영역별로는 경제가 0.8점 하락하였고, 사회문화영역은 1.6점 상승하였다. 총점은 전년 대비 0.8점 상승한 122.7점을 기록하였다.

〈표 4-1〉 2010~2021년 남북통합지수와 백분율

연도	구분	경제		정치		사회·문화		합계	
		지수	%	지수	%	지수	%	지수	%
2010	제도적 통합	7.7/90	8.6	6.8/90	7.6	12/90	13.3	26.5/270	9.8
	관계적 통합	20.7/160	12.9	4.8/160	3.0	22.7/160	14.2	48.2/480	10.0
	의식의 통합	40.6/80	50.8	36.3/80	45.4	47.7/90	53.0	124.6/250	49.8
	합계	69/330	20.9	47.9/330	14.5	82.4/340	24.2	199.3/1000	19.9
2011	제도적 통합	7.7/90	8.6	6.8/90	7.6	12.1/90	13.4	26.6/270	9.9
	관계적 통합	17.4/160	10.9	6.4/160	4.0	19.3/160	12.1	43.1/480	9.0
	의식의 통합	41.5/80	51.9	35.9/80	44.9	46.8/90	52.0	124.2/250	49.7
	합계	66.6/330	20.2	49.1/330	14.9	78.2/340	23.0	193.9/1000	19.4
2012	제도적 통합	6.6/90	7.3	6.5/90	7.2	12.1/90	13.4	25.2/270	9.3
	관계적 통합	18.2/160	11.4	4.9/160	3.1	18.7/160	11.7	41.8/480	8.7
	의식의 통합	42.5/80	53.1	37.8/80	47.3	48.5/90	53.9	128.8/250	51.5
	합계	67.3/330	20.4	49.2/330	14.9	79.3/340	23.3	195.8/1000	19.6
2013	제도적 통합	7.2/90	8.0	6.4/90	7.1	12.9/90	14.3	26.5/270	9.8
	관계적 통합	14.8/160	9.3	3.6/160	2.3	19.9/160	12.4	38.3/480	8.0
	의식의 통합	40.8/80	51.0	36.6/80	45.8	47.1/90	52.3	124.5/250	49.8
	합계	62.8/330	19.0	46.6/330	14.1	79.9/340	23.5	189.3/1000	18.9
2014	제도적 통합	7.5/90	8.3	6.4/90	7.1	14.8/90	16.4	28.7/270	10.6
	관계적 통합	18.7/160	11.7	6.8/160	4.3	21.1/160	13.2	46.6/480	9.7
	의식의 통합	43.4/80	54.3	37.3/80	46.6	48.5/90	53.9	129.2/250	51.7
	합계	69.6/330	21.1	50.5/330	15.3	84.4/340	24.8	204.5/1000	20.5
2015	제도적 통합	6.8/90	7.6	6/90	6.7	13.7/90	15.2	26.5/270	9.8
	관계적 통합	20.1/160	12.6	7.3/160	4.6	20.7/160	12.9	48.1/480	10.0
	의식의 통합	42.6/80	53.3	36.1/80	45.1	48.8/90	54.2	127.5/250	51.0
	합계	69.5/330	21.1	49.4/330	15.0	83.2/340	24.5	202.1/1000	20.2

연도	구분	경제		정치		사회·문화		합계	
		지수	%	지수	%	지수	%	지수	%
2016	제도적 통합	6.8/90	7.6	5.3/90	5.9	13.8/90	15.3	25.9/270	9.6
	관계적 통합	5.3/160	3.3	3.9/160	2.4	18/160	11.3	27.2/480	5.7
	의식의 통합	39.3/80	49.1	36.9/80	46.1	45.5/90	50.6	121.7/250	48.7
	합계	51.4/330	15.6	46.1/330	14.0	77.3/340	22.7	174.8/1000	17.5
2017	제도적 통합	7.6/90	8.4	6.3/90	7.0	14.2/90	15.8	28.1/270	10.4
	관계적 통합	3.2/160	2.0	2.5/160	1.6	18.1/160	11.3	23.8/480	5.0
	의식의 통합	38.3/80	47.9	36.2/80	45.3	46.4/90	51.6	120.9/250	48.4
	합계	49.1/330	14.9	45/330	13.6	78.7/340	23.1	172.8/1000	17.3
2018	제도적 통합	7.6/90	8.4	8.5/90	9.4	14.6/90	16.2	30.7/270	11.4
	관계적 통합	4.5/160	2.8	40.1/160	25.1	37.2/160	23.3	81.8/480	17.0
	의식의 통합	41.2/80	51.5	39.2/80	49.0	45.6/90	50.7	126/250	50.4
	합계	53.3/330	16.2	87.8/330	26.6	97.4/340	28.6	238.5/1000	23.9
2019	제도적 통합	7.8/90	8.7	8.7/90	9.7	15/90	16.7	31.5/270	11.7
	관계적 통합	3.1/160	1.9	9.3/160	5.8	19.4/160	12.1	31.8/480	6.6
	의식의 통합	45/80	56.3	38.9/80	48.6	45.9/90	51.0	129.8/250	51.9
	합계	55.9/330	16.9	56.9/330	17.2	80.3/340	23.6	193.1/1000	19.3
2020	제도적 통합	7.3/90	8.1	8.4/90	9.3	14.7/90	16.3	30.4/270	11.3
	관계적 통합	3.3/160	2.1	6.3/160	3.9	18.2/160	11.4	27.8/480	5.8
	의식의 통합	41.8/80	52.3	36.3/80	45.4	43.8/90	48.7	121.9/250	48.8
	합계	52.4/330	15.9	51/330	15.5	76.7/340	22.6	180.1/1000	18.0
2021	제도적 통합	7.2/90	8.0	7.6/90	8.4	14.1/90	15.7	28.9/270	10.7
	관계적 통합	3.1/160	1.9	6.7/160	4.2	18.1/160	11.3	27.9/480	5.8
	의식의 통합	41/80	51.3	36.3/80	45.4	45.4/90	50.4	122.7/250	49.0
	합계	51.3/330	15.5	50.6/330	15.3	77.6/340	22.8	179.5/1000	18.0

■ 2010~2021년의 남북통합지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구조통합지수와 의식통합지수를 합한 종합지수는 2015년까지 200점 안팎에서 등락하다가 2016~2017년에 170점대로 크게 하락한 뒤 2018년 230점대로 크게 상승하였다. 하지만 남북관계가 경색된 2019년 이후 종합점수가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2021년에도 179.5점으로 하락세를 유지하였다.

○ 12년간 종합지수는 2010년 199.3점 → 2011년 193.9점 → 2012년 195.8점 → 2013년 189.3점 → 2014년 204.5점 → 2015년 202.1점 → 2016년 174.8점 → 2017년 172.8점 → 2018년 238.5점 → 2019년 193.1점 → 2020년 180.1점 → 2021년 179.5점으로 나타났다.

○ 제도적 통합과 관계적 통합으로 구성되는 구조통합지수는 2010년 74.7점 → 2011년 69.7점 → 2012년 67.0점 → 2013년 64.8점 → 2014년 75.3점 → 2015년 74.6점 → 2016년 53.1점 → 2017년 51.9점 → 2018년 112.5점 → 2019년 63.3점 → 2020년 58.2점 → 2021년 56.8점으로 변화했다. 2010년대 들어 계속 60~70점대를 유지하다가 2016~2017년에 50점대로 크게 하락했고 2018년 112.5점으로 두 배 넘게 상승하였으나, 2020년부터 다시 50점대로 떨어졌다. 제도적 통합수준은 2010~2017년 8년간 25점에서 30점 이내 범위에서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었으나 2018년부터 30점대로 상승하여 2019년과 20년에 각각 31.5점, 30.4점을 기록한 뒤, 2021년에는 28.9점으로 하락하여 다시 20점대 범위로 떨어지는 양상을 나타냈다. 관계적 통합수준은 핵 위기가 본격화된 2016년과 2017년에는 눈에 띄게 하락하였으나, 남북관계의 반전으로 2018년에는 81.8점으로 급등했고, 2019년부터는 남북관계의 교착으로 2018년 대비 절반 이하로 하락했다.

○ 12년간의 의식통합지수는 2010년 124.6점 → 2011년 124.2점 → 2012년 128.8점 → 2013년 124.5점 → 2014년 129.2점 → 2015년 127.5점 → 2016년 121.7점 → 2017년 120.9점 → 2018년 126점 → 2019년 129.8점 → 2020년 121.9점 → 2021년 122.7점으로 120점대에서 소폭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4-1〉 2010~2021년 남북통합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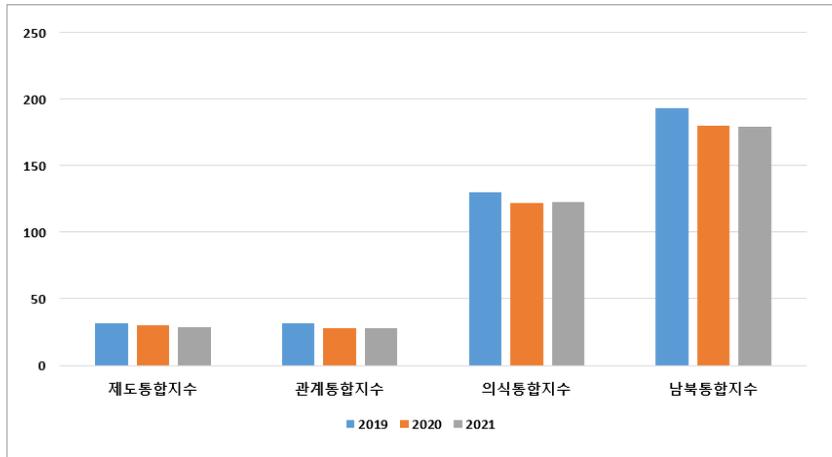


- 2010년~2021년의 남북한의 통합률을 보면 2015년까지는 20% 내외에서 소폭 변동하다가 2016년과 2017년에는 크게 하락, 2018년에는 크게 반등했고, 2019년부터 다시 하락하거나 유지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 그간 남북 통합률은 2010년 19.9% → 2011년 19.4% → 2012년 19.6% → 2013년 18.9% → 2014년 20.5% → 2015년 20.2% → 2016년 17.5% → 2017년 17.3% → 2018년 23.9% → 2019년 19.3% → 2020년 18.0% → 2021년 18.0%를 나타냈다.
- 2021년 영역별 통합률의 변동을 살펴보면, 경제영역과 정치영역은 전년 대비 각각 0.4%, 0.2% 하락하였으나 사회문화영역은 0.2% 상승하였다. 구체적으로, 경제영역의 경우 2010년 20.9% → 2011년 20.2% → 2012년 20.4% → 2013년 19.0% → 2014년 21.1% → 2015년 21.1%로 19~21% 사이에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2016년 15.6% → 2017년 14.9% → 2018년 16.2% → 2019년 16.9% → 2020년 15.9% → 2021년 15.5%로, 2016년 이후부터 15~16% 수준으로 내려앉았다. 정치영역의 경우도 2010년부터 2017년까지 13~15% 수준의 등락이 있었으나 2018년에 예외적으로 20% 수준까지 오르는 큰 폭의 상승을 기록하였다. 하지만 2019년 이후부터는 다시 15% 수준으로 내려앉아 그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다. (2010년 14.5% → 2011년 14.9% → 2012년 14.9% → 2013년 14.1% → 2014년 15.3% → 2015년 15.0% → 2016년 14.0% → 2017년 13.6% → 2018년 26.6% → 2019년 17.2% → 2020년

15.5% → 2021년 15.3%) 사회문화영역은 2010년 24.2% → 2011년 23.0% → 2012년 23.3% → 2013년 23.5% → 2014년 24.8% → 2015년 24.5% → 2016년 22.7% → 2017년 23.1% → 2018년 28.6% → 2019년 23.6% → 2020년 22.6% → 2021년 22.8%로 나타났다.

- 영역별 통합률은 2008~2017년 동안 사회문화>경제>정치영역 순서로 높게 나타났지만 2018년 정치영역 통합률의 가파른 증가로 정치영역이 경제영역보다 높은 통합률을 기록했다. 2020년부터는 다시 사회문화>경제>정치영역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21년을 기준으로 구조통합(제도+관계 통합)의 경우 사회문화(12.9%)>정치(5.7%)>경제(4.1%) 순서로 통합률의 차이를 나타냈으며, 의식통합은 사회문화(45.4%)>경제(41.0%)>정치(36.3%) 순서로 나타났다.

〈그림 4-2〉 최근 3년 간의 제도, 관계, 의식, 종합지수 비교



- 남북한 통합의 단계를 구조통합지수를 기준으로 평가해보면, 경제와 정치영역의 통합단계는 1단계이고, 사회문화영역은 2단계를 기록하였다.
 - 경제영역의 경우, 2010~2015년에는 2단계를 유지하다가 2016년부터 1단계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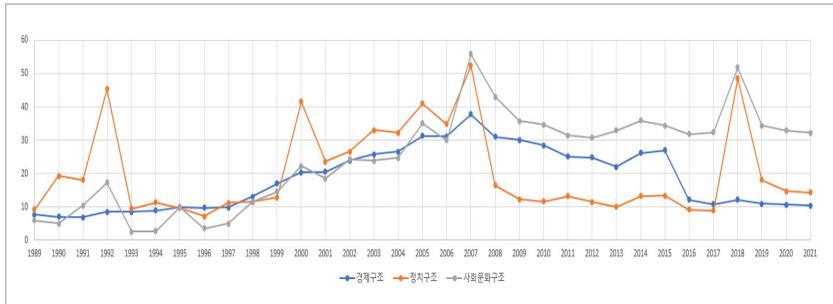
- 정치영역의 경우, 2010~2015년 동안 2013년 0단계를 제외하면 모두 1단계를 기록했고, 2016~2017년 0단계, 2018년 3단계를 기록했다가 2019년 이후부터 다시 1단계로 돌아왔다.
- 사회문화영역은 2010년부터 줄곧 2단계를 유지하다가 2018년 3단계로 상승했고, 2019년부터 다시 2단계를 기록하였다.

〈표 4-2〉 영역별 구조통합지수 시계열적 추이와 단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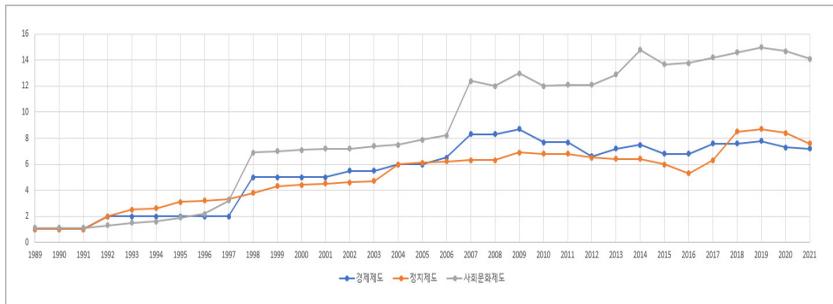
	경제(250)				정치(250)				사회·문화(250)			
	제도 (90)	관계 (160)	구조 (250)	단계	제도 (90)	관계 (160)	구조 (250)	단계	제도 (90)	관계 (160)	구조 (250)	단계
1989	1.0	6.6	7.6	0	1.0	8.1	9.1	0	1.1	4.8	5.9	0
1990	1.0	6.0	7.0	0	1.0	18.3	19.3	1	1.1	3.9	5.0	0
1991	1.0	5.9	6.9	0	1.0	17.0	18.0	1	1.1	9.3	10.4	0
1992	2.0	6.4	8.4	0	2.0	43.3	45.3	3	1.3	16.0	17.3	1
1993	2.0	6.5	8.5	0	2.5	6.9	9.4	0	1.5	1.0	2.5	0
1994	2.0	6.9	8.9	0	2.6	8.7	11.3	1	1.6	1.0	2.6	0
1995	2.0	7.8	9.8	0	3.1	6.6	9.7	0	1.9	8.0	9.9	0
1996	2.0	7.7	9.7	0	3.2	3.9	7.1	0	2.2	1.2	3.4	0
1997	2.0	7.8	9.8	0	3.3	7.8	11.1	1	3.2	1.8	5.0	0
1998	5.0	8.0	13.0	1	3.8	7.6	11.4	1	6.9	4.7	11.6	1
1999	5.0	12.0	17.0	1	4.3	8.5	12.8	1	7.0	7.6	14.6	1
2000	5.0	15.3	20.3	1	4.4	37.2	41.6	3	7.1	15.2	22.3	2
2001	5.0	15.5	20.5	1	4.5	19.1	23.6	2	7.2	11.2	18.4	1
2002	5.5	18.4	23.9	2	4.6	21.9	26.5	2	7.2	17.1	24.3	2
2003	5.5	20.2	25.7	2	4.7	28.3	33.0	2	7.4	16.5	23.9	2
2004	6.0	20.5	26.5	2	6.0	26.2	32.2	2	7.5	17.1	24.6	2
2005	6.0	25.3	31.3	3	6.1	34.9	41.0	3	7.9	27.2	35.1	2
2006	6.5	24.6	31.1	3	6.2	28.6	34.8	2	8.2	21.7	29.9	2
2007	8.3	29.5	37.8	3	6.3	46.0	52.3	3	12.4	43.5	55.9	3
2008	8.3	22.7	31.0	3	6.3	10.1	16.4	1	12.0	31.0	43.0	3
2009	8.7	21.4	30.1	2	6.9	5.4	12.3	1	13.0	22.8	35.8	2

	경제(250)				정치(250)				사회·문화(250)			
	제도 (90)	관계 (160)	구조 (250)	단계	제도 (90)	관계 (160)	구조 (250)	단계	제도 (90)	관계 (160)	구조 (250)	단계
2010	7.7	20.7	28.4	2	6.8	4.8	11.6	1	12.0	22.7	34.7	2
2011	7.7	17.4	25.1	2	6.8	6.4	13.2	1	12.1	19.3	31.4	2
2012	6.6	18.2	24.8	2	6.5	4.9	11.4	1	12.1	18.7	30.8	2
2013	7.2	14.8	22.0	2	6.4	3.6	10.0	0	12.9	20.0	32.9	2
2014	7.5	18.7	26.2	2	6.4	6.8	13.2	1	14.8	21.1	35.9	2
2015	6.8	20.1	26.9	2	6.0	7.3	13.3	1	13.7	20.7	34.4	2
2016	6.8	5.3	12.1	1	5.3	3.9	9.2	0	13.8	18.0	31.8	2
2017	7.6	3.2	10.8	1	6.3	2.5	8.8	0	14.2	18.1	32.3	2
2018	7.6	4.5	12.1	1	8.5	40.1	48.6	3	14.6	37.2	51.8	3
2019	7.8	3.1	10.9	1	8.7	9.3	18.0	1	15.0	19.4	34.4	2
2020	7.3	3.3	10.6	1	8.4	6.3	14.7	1	14.7	18.2	32.9	2
2021	7.2	3.1	10.3	1	7.6	6.7	14.3	1	14.1	18.1	32.2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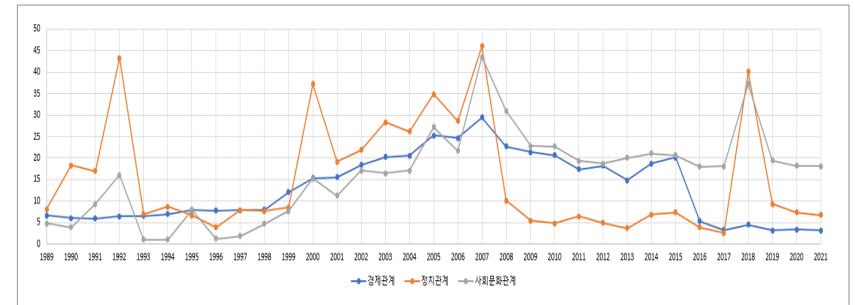
〈그림 4-3〉 영역별 구조통합지수 연도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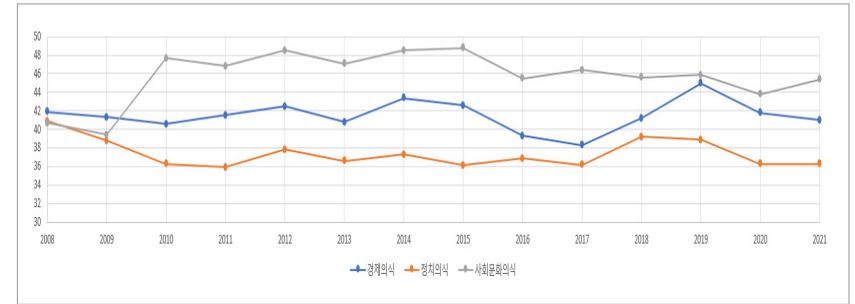
〈그림 4-4〉 영역별 제도통합지수 연도별 추이



〈그림 4-5〉 영역별 관계통합지수 연도별 추이



〈그림 4-6〉 영역별 의식통합지수 연도별 추이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통일학연구 59

2022 남북통합지수

발행일	2023. 4. 17.
발행처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발행인	김범수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교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원장)
책임연구원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원장)
공동연구원	김병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부교수) 김학재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조교수) 조용신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
보조연구원	신인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연구원) 권지애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프로젝트 연구원)
등록	119-82-11113(2020.8.3)
주소	15011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 173, 교육협력동 9층 906호
전화	031-5176-2332~3
팩스	031-624-4751
홈페이지	https://ipus.snu.ac.kr
디자인	희망커뮤니케이션즈 (02-2268-1968)

ISSN 2982-8511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22

이 보고서의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사전 서면 허락없이 복제하는 것을 금합니다.